2024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17개 시 · 도교육청 공동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장애인교원 우수 사례집

2024.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우수 사례집 개요

제작 목적 및 필요성

- 2024년 기준 전체 교원의 약 1%인 4,584명이 장애인교원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확대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교직 수행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이동 및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수업, 학급운영, 행정업무, 학생 지도 등 다양한 교직 업무에서 차별과 제한을 경험한다. 중증 장애일수록 이러한 어려움이 가중되며, 근로지원인, 보조기기, 편의시설 등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 현 지원 체계는 장애유형과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교원 지원 경험이 부족한 교직원의 부재 또한 장애인교원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 장애인 교원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요하다. 사례집은 장애인 교원의 다양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이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례집은 장애유형별 우수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며, 장애인교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

- 본 사례집에는 총 13개의 개별사례와 15개의 우수사례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사례는 장애인 교원이 수업 운영, 학급 경영, 학교 업무 수행 등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노하우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교육적 성과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들어 원할한 수업운영을 위해 시각장애 교원은 점자정보단말기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학습 자료를 준비하고,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출석을 매일 부르며 학생의 목소리와 위치를 익히는 방식을 도입했다. 다른 사례에서는 학부모 상담 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고, 상담 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를 도입해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를 구축했다. 또 다른 교원은 근로지원인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로 인한 제약을 줄이고, 업무의 주체성을 유지하며 문제 상황을 해결했다. 이처럼 장애인교원은 업무 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 이러한 사례들은 장애인교원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교직 환경에서 포용성과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활용 방법

- 교육 자료로의 활용: 장애유형별 수업 운영 및 학급 경영 사례를 일반 교사와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 정책 개발 자료: 장애인교원의 실태와 요구를 기반으로 교육청 및 학교가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한다.
-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활용: 장애인교원 지원인력 및 관리자 대상 직무 연수 자료로 활용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 장애 인식 개선: 사례 공유를 통해 장애인교원의 존재와 필요성을 알리고,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킨다.

기대 효과

- 본 사례집은 장애인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통해 이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장애인교원과 동료 교원, 학생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평등하고 포용적인 교육 문화를 확립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교원의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교원
우수사례집

2024. 12.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인천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Gangwon State Office of Education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장애인교원
우수 사례집

CONTENTS

I

장애인교원 우수 활동 사례

1. 수업운영 6
2. 학급경영(학급운영, 학생학부모 상담 등) 16
3. 업무수행(교직원 회의, 동아리 운영 등) 30

II

장애인교원의 우수 활동 사례 인터뷰

1. 시각장애인교원 우수 활동 사례 42
2. 청각장애인교원 우수 활동 사례 73
3. 지체장애인교원 우수 활동 사례 103

III

교사 수기 138

장애인교원
우수 사례집

I

장애인교원
우수 활동 사례

Ⅰ 장애인교원 우수 활동 사례

장애인교원의 우수 활동 사례를 수업 운영, 학급운영, 업무 수행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1 수업운영

1) 철저한 나만의 원칙을 가진
세종도원 초등학교 이성현 선생님(청각장애)

① 선생님의 장애 특성

2017년 돌발성 난청으로 경증 장애판정받고 양쪽 보청기를 착용하다 2년 전 악화되어 인공와우 수술 및 중증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쪽 인공와우로 주로 청취하고 있으며 다른 쪽은 보청기로 들리기는 하나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업사례의 경험은 장애를 가지고 얼마 안 된 시기 경증일 때의 경험을 서술한 것입니다.

② 우수 활동 사례

저는 과학과 5학년 1학기 '태양계와 별' 단원 '북쪽하늘의 별자리'에 대해 5학년 학생 24명과 함께 수업을 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때 수업 목표는 '별별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북쪽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을 수 있다.' 입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을 통해 수업 방법 변화의 필요성을 알게 됨

제가 장애를 가지고 난 후 첫 학부모 공개수업에서 비장애인이었을 때처럼 수업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조금 소음이 있었던 수업 상황에서 제 뒤에 있던 학생이 저를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제가 그 학생의 부름을 무시하였다고 오해하셨고 이를 참관소감록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비장애인교원과 다른 수업 운영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고 차후 교직원 장학수업을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교원으로서 원활한 학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학생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규칙을 정한다.
- 학습상황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 학습 흐름을 점검하며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장면에서 언어적인 소통 방법 외 다른 소통

방법을 찾아 적용한다.
- 학생의 예상 발문을 미리 생각하여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한다.

위와 같은 원칙으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좀 더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함

또한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과 소통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요청사항이 있으면 제 눈을 보고 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 중 할 말이 있는 경우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보다는 손을 들고 허락받은 후 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과 가까이하며 소통하기 위해 칠판에 서 있기보다는 학생들 사이사이에 서서 수업을 이끌어나갔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교실 대부분에 전자 칠판이 설치되어 있어 원격으로 칠판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도 교사가 가까이 있으니 학생들의 학습 자세에 자극을 주고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지도 빨리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소에 규칙적으로 매번 학습 흐름과 규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습하여야 합니다. 또 학생들은 교사가 잘 파악을 못 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대화를 답답해해서 하려던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학생들에게 생길 수 있는 부족함이나 필요한 것이 있는지 등을 먼저 세심히 봐야 합니다. 청각장애인교원은 소음이 많은 환경을 어려워합니다만 적극적인 활동이나 참여로 인한 소음은 교사로서 반가운 환경입니다. 통제가 안 되어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소음과는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에서 하여야 하는 일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추가적인 문의가 많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어플을 활용하여 학생들과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함

또한 수업의 흐름이 계획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적절한 제안을 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저는 학생들의 학습 상황, 의견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미러링을 통해 화면을 공유하거나 협업공유어플을 활용하였습니다. 학부모 동의나 학생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어플 위주로 활용하였고 필요시 학생의 아이디와 비번을 교사가 지정하여 학생의 학습과 결과물 등을 점검할수 있는 사설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예시가 필요한 경우 미리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교사에게 별도로 도움 요청하는 일을 줄였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는 화이트보드사이트를 확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결과와 의견을 작성하도록 해서 같이 화면을 보며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핑퐁 어플같은 게임처럼 퀴즈를 풀 수 있는 어플이나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즐거운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 후에 평가를 하였는데,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소크라티브, 네이버폼같은 설문지, 카옷, 핑퐁 등의 퀴즈 및 질문 어플을 학습내용이나 효율성을 고려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 과정과 수업장면에서 장애인교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이 많이 없다고 느껴서 소프트웨어 지원도 자유롭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의 스마트패드 및 노트북 지원으로 수업에 유용하게 사용함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에서 장애인교원용으로 대여해준 스마트패드를 수업에 활용하였는데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많이 유용하였습니

다. 2024년 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주었는데 그 예산으로 청각장애인용 노트북이나 내선전화기를 구입하여 좀 더 수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자통역 활용으로 소통의 질이 향상됨

또 저는 학생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자통역을 통해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눈을 보는 것이 우선이기에 문자통역을 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문자통역을 활용한 덕분에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느낍니다. 또한 보청기 내 소음 속 말소리라고 하는 기능 덕분에 비장애인 교원이 못듣는 작은 소리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조심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이 우루루 몰려와 소통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지만 일부 학생들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계속 하기도 합니다. 이 습관을 쉽게 고치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쉽게 어수선해지고 학생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에 이야기를 전달하여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지도 측면에서 규칙이나 알아야 할 것들을 사전에 미리 안내하고 잘못된 습관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규칙에 의해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유난히 목소리 작은 학생 특히 단어로만 이야기하는 경우 듣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경우 소리를 글로 바꾸어지는 어플을 이용하거나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글로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학생이 교사를 놀리거나 흉내를 낼 수 있고 동료교사가 학생들에게 저의 장애를 알려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수업 운영으로 훌륭한 수업으로 평가받음

이렇게 수업 전반을 열심히 진행해보려고 노력하였더니 저는 동료장학에서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에게서 훌륭한 수업이였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장애인교원도 수업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도 학습활동에 만족하였습니다. 보통 5학년 되면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실력을 가늠하여 평가하며 뒷담화를 하거나 따지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저의 교육경력에서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교원으로서의 긴장감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충은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개인의 노력과 교육청 지원 덕분에 학생들과 오히려 섬세한 소통을 할 수 있음에 교직생활의 긍정적인 의미를 찾았습니다. 교사로서의 성취감도 느끼고 있으며 저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습니다.

③ 관련 참고자료(교수학습과정안, 사진 등)

지도 단계	학습 과정	교수 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들어 가기	동기 유발	◆ 별에 관해 이야기하기 * 이것은 무엇을 찍은것인가요? * 지난시간에 학습한 '항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별자리에 관해 이야기하기 * 우리 나라 옛날 사람들의 무덤속에 별들을 그린 그림들을 보고 이야기 해 봅시다.	-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입니다. - 밤하늘에서 밝은 점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항성 또는 별이라고 합니다. - 태양계에서 태양이 유일한 별입니다. - 점으로 별의 위치를 나타내었습니다. - 점을 이어진 선으로 별들을 연결하였습니다.본 적이 있습니다.	5	☆ 별과 별자리에 관해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하고 과학적인 개념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성급히 판단하여 말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의 생각 중 별의 과학적 의미에 상응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별의 의미를 소개한다. • 화이트보드프로그램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나타내고 공유한 내용을 화면으로 살펴볼수 있다.
	학습 문제 확인	◆ 학습 문제 확인하기 • 별자리가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북쪽 밤하늘에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를 알아봅시다.			
활동 하기	북쪽 밤하늘의 별자리 알아 보기	◆ 활동순서 안내하기 1. 북쪽 밤하늘의 별자리 찾아보기 2. 나만의 별자리 만들기 ◆북쪽 밤하늘의별자리찾아보기 - 별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종이위에 어떻게 별을 그리면 좋을까요? - 지난시간에 항성 모형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나요? 항성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었나요? - 그림 종이위에 항성인 별을 그릴때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 별들의 크기나 밝기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 여러분들이 별자리를 찾고 별자리 그림을 그릴 때 둥근 별을 다른 크기로 나타낼수 있습니다. * 별자리 찾기 어플의 사용법을 함께 살펴봅시다. - 스마트 기기로 북쪽 밤하늘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조사하고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봅시다.	- 학생들이 안내순서대로 다같이 외쳐본다. - *◎○☆ 등 (다양하게 나타낸다.) - 둥근모양이었습니다. - 원모양으로 나타냅니다. - 다릅니다. - 네 - 학생 활동	30	☆ 항성이나 행성이 구체의 모양이기 때문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발표를 유도한다. ☆ 빛이 크다고 항성이 큰 것이 아님 멀고 가까운 것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지구에서 보이는 겉보기 등급일뿐임. ☆ 어플사용방법을 충분히 지도하여 사용법을 지도할수 있도록 한다. • 스마트기기 ☆실제 별빛의 색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학생의 질문에 대비한다. • 미러링을 통해 천체관측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히고 관찰한다.
		◆ 나만의 별자리 만들기 *『실험 관찰』 28쪽 북쪽 밤하늘 그림에 투명 필름을 덮고, 원하는 별을 이어 나만의 별자리를 그리고 발표해 봅시다. * 별자리 필름을 북쪽 밤하늘 그림 위에 덮은 뒤 실제 별자리를 관찰해 봅시다.	-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카시오페이아자리가 있습니다. - 큰곰자리의 일부인 북두칠성을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하늘에서의 별자리는 그림보다 작아보입니다.		• 투명필름 대신 별들을 검은도화지에 흰색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 투명필름을 고정하기 위해 테이프를 사용한다. ☆ 실제 북쪽 밤하늘의 별자리와 비교하여 자신이 그린 별자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고, 생각에 따라 다양한 별자리가 있을 수 있음을 지도한다.

마무리 하기	학습 내용 정리	◆ 북쪽 밤하늘의 별자리 정리하기 * 별과 별자리의 의미를 이야기해 봅시다.	-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입니다. - 별자리는 밤하늘의 별을 무리 지어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모양으로 나타내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5	☆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수용하고 별자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대상의 이름을 붙여 놓은 것임을 알려 준다.
		* 북쪽 밤하늘의 별자리를 정리해 봅시다.	- 북쪽 밤하늘에는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카시오페이아자리가 있습니다. - 북두칠성은 큰곰자리의 일부로, 국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 퀴즈활동전 학생들이 어플 활용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보채는 학생들은 기다릴 것을 안내한다.
		*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이라면, 카시오페이아자리는 어떤 모양이라고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핑퐁앱의 퀴즈를 해결해 봅시다.	- 영어의 알파벳 W자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뾰족한 두 개의 산봉우리처럼 보입니다. -퀴즈활동하기		
	차시 예고	◆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는 별자리를 이용해 방위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나의 장애도 수업이며 학생들과 함께한다

육량중 어미옥 선생님 (신장장애)

① 선생님의 장애 특성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혈뇨 증상을 발견하면서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1993년부터 1년간 혈액투석을 받았고, 1994년에는 첫 번째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3년에 쌍둥이를 출산한 후 신장 기능이 다시 약화되었고, 1년 6개월간 혈액투석을 다시 받으며 2005년에 두 번째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육아와 건강 문제를 함께 관리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족과 주변의 도움으로 잘 극복해나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식한 신장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면서 다시금 혈액투석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혈액투석을 시작하게 되면서 일과 치료를 병행하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매주 월, 수, 금 퇴근 후 4시간씩 투석을 받고 있지만, 저는 교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동안 특별한 지원 없이 일반 교사들과 동일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② 우수 활동 사례

자신의 투석 영상을 직접 수업 자료로 활용

제가 현재 중학교 2학년 과학 수업에서 가르치는 단원은 배설계입니다. 신장과 관련된 수업 내용을 좀 더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저는 실제로 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모습을 촬영하여 수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투석 과정에서 혈관에 바늘을 꽂고 인공 신장기를 통해 혈액이 정화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이 인공 신장과 신체 내부의 신장 기능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만큼 더 많은 호기심과 질문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수업을 더욱 풍부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은 4인 1팀으로 구성된 모둠 활동을 통해 진행됩니다. 각 모둠은 주어진 주제를 탐구하고 요약한 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합니다. 학생들은 직접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고, 제 투석 영상과 연결하여 우리 몸의 배설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합니다. 또한, 신체의 소중함과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저의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제 경험을 들으며 자신들의 일상적인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실제 투석 영상 자료가 학생들의 호기심 자극 및 소화계와 배설계에 대한 이해 증진

가끔 학생들은 제 수업 중에 질문을 던집니다. “샘은 콩팥이 없어서 오줌을 못 싸시죠?”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제 몸은 인공 신장을 통해 배설 과정을 대신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더욱 호기심을 가지고, 소화계와 배설계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이해해 나갑니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말을 하는 것까지도 말이죠. (아이들에게는 이 과정이 단순한 학습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저 역시 그들과 함께하며 매 순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들과의 교감 경험은 교사로서의 성장에 기여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역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으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매일 성실하게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을 보며, 교단에 서 있는 제 자신에게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로 처음 발을 디딘 초년생 시절에는 신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직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 자료나 시스템이 지금보다 덜 발전되어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기도 했지만, 학생들과의 교감을 통해 큰 동기부여를 얻으며 하루하루 성장해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교사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으며, 매일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3) 지원인력을 적극활용, 수업을 철저하게 준비한다.

신길초등학교 박병찬 선생님(지체장애)

① 선생님의 장애 특성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비장애인으로 지내다가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야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대를 경증 장애인으로 보내다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중증 장애로 진행되어 현재는 휠체어를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하지 중증 지체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② 우수 활동 사례

◆ 수업개요

- 교과: 과학
- 대상 학년: 6학년
- 단원: 3단원 - 여러 가지 기체
- 차시: 1차시
- 수업 목표: 여러 가지 기체 만들기 실험을 통해 기체와 관련된 현상에 관심을 기울인다.
-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후 "많이 배웠다"는 것보다 "수업이 재밌었다"는 평가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을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특히 수업장학이나 학부모 공개수업에서는 공들여 준비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합니다.
- 수업 활동:
- 활동 1: 탄산수를 만들어보자!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탄산수를 만드는 실험을 통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기체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탄산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입구를 고무풍선으로 막아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관찰하여 기체 발생을 확인합니다.

- 활동 2: 부글부글 거품 만들기!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코끼리 거품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미리 소분된 색소, 물비누, 과산화수소수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소분된 아이오딘화 칼륨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습니다. 이때 삼각 플라스크 안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며 거품이 생성됩니다. 학생들은 삼각 플라스크 안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 활동 3: 향불은 어떻게 될까?

  산소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코끼리 거품 속에 향불을 넣어봅니다.

- 수업 결과 및 반응: 이 수업은 학부모 공개수업과 수업 장학에서 모두 활용되어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도록 재구성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 수업 준비 과정

- 이번 수업은 한 차시에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모두 발생시켜야 하는 실험이 포함되어 있어, 필요한 화학 약품들과 실험 도구들을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산소 발생 실험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수는 학생들에게 안전사고

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물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 색깔과 냄새가 없는 화학 약품들을 학생들이 구분하기 어려워, 각 약품을 약포지에 기재하여 필요한 양만큼 소분해서 준비했습니다. 실험 대비에 너무 많은 도구들이 나와 있으면 유리로 된 실험 기구를 넘어뜨리거나 떨어뜨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업 중 실험이 끝난 도구들은 바로바로 반납하도록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 가장 주의해야 할 과산화수소수는 실험 전에 미리 배부하지 않고,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가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 수업 전에 과학실에서 지원 인력과 협력하여 사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확인하고 수정했습니다.
- 이러한 철저한 준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즐길 수 있었으며,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 수업 진행 과정

- 수업 종이 치고 학생들이 자리에 앉지 않으면, 교사에게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선 교사에게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해 수업 내용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며 동기를 유발합니다. 영상을 본 후 교과서를 펴도록 지도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 초등학교 수업은 활동 중심, 배움 중심 수업이 많아 대부분 조별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각 조마다 역할을 정해 놓고, 학생들이 서로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도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문제 상황은 교사에게 알리는 것이 학생의 역할임을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 지원인력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학생들을 지도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했습니다. 문제 상황 발생 시 지원 인력에게 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교사의 피드백을 전달하거나 학생들을 교사에게 인솔하는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피드백은 즉시 학생에게 전달하고, 수업이 끝난 후 교사에게 상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수업 진행을 방해하거나 돌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 교실 뒤쪽에 배치된 책상에 가서 1분짜리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앉아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동일한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학생에게는 5분짜리 모래시계를 사용하여 대응했습니다.

◆ 수업 평가 과정

- 학생들의 돌발적인 질문은 칠판 대신 그림판 등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림판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 학습지는 조별로 학생들의 역할을 활용하여 배부하고 수거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아 이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 인력은 수업 중 각 조의 학습지 작성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 수업 진행 과정에서 활용한 편의 지원 내용

- 지원 인력에게 약포지에 화학 약품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과 필요한 화학 약품을 중량 측정하여 소분해서 담아 두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 조별 실험 바구니에 과산화수소수를 제외한 실험 도구를 준비해 두도록 지시했습니다. 지원 인력이 준비한 실험 도구와 약품의 준비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수업 중에 실험 도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원 인력이 실험 도구를 배부하도록 했습니다. 과산화수소수는 안전에 유의하여 교사의 지도 하에 지원 인력이 직접 학생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실험이 끝난 실험 도구를 학생들이 반납하면 지원 인력이 이를 수거

하여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 실험 도구가 깨지거나 화학 약품을 떨어뜨리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 인력에게 즉시 개입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학생들의 갈등이나 문제 상황 발생 시 지원 인력이 장애 교사에게 상황을 전달하도록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 수업 중에 지원 인력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미리 설명해 주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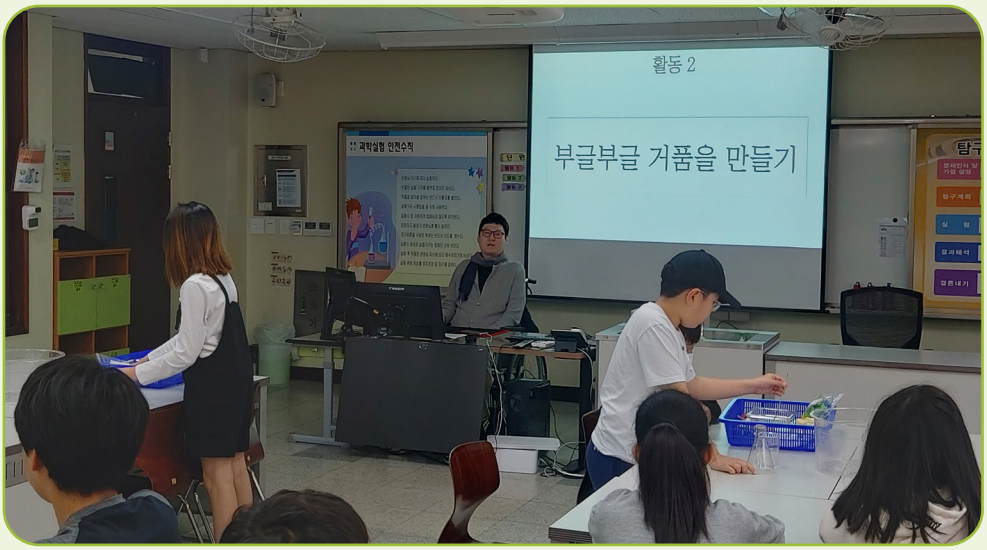
◆ 수업 진행 관련 고려(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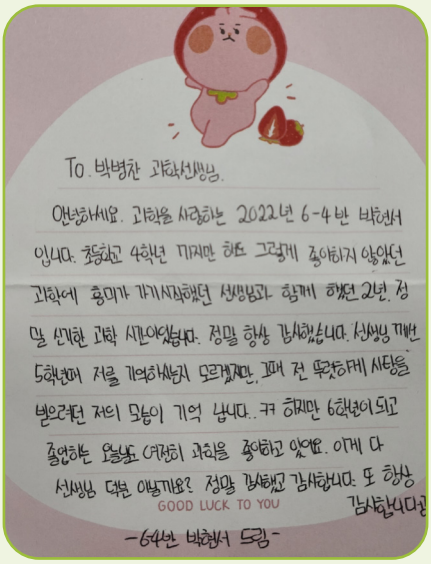
- 제가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끊임없이 순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뒤에 앉은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피드백을 진행했습니다.
- 과제를 해결하는 시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지원 인력에게 순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과업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지원 인력이 개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교사에게 학생의 어려움을 알리고, 교사의 지시에 따라 개별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 타이핑이나 판서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PPT로 제작했습니다.

◆ 수업 성과

-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예상한 흐름대로 수업이 흘러가지 않으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동기 유발, 활동, 정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수업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공개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항상 참관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제가 상·하지 지체장애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관해서만큼은 인정받아 관리자 분들께 '수업 전문가'라는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변 교사들이 저에게 수업 관련 자료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여 기꺼이 제공해 주며, 동료 교사들과의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제가 담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과학 수업이 재미있다고 느끼며 저에게 쪽지나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③ 관련 참고자료(교수학습과정안, 사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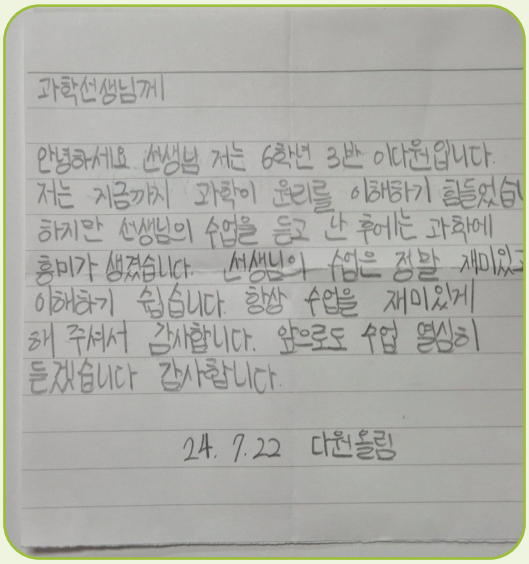




To. 박병찬 과학선생님.

안녕하세요. 과학을 사랑하는 2022년 6-4반 박현서 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과학에 흥미가 가기시작했던 선생님과 함께 했던 2년. 정말 신기한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항상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께선 5학년때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꼬꼬 전 뚜렷하게 사탕을 불으려던 저의 모습이 기억 납니다.. ㅋㅋ 하지만 6학년이 되고 졸업하는 오늘도 여전히 과학을 좋아하고 있어요. 이제 다 선생님 덕분 이실까요? 정말 감사했고 감사합니다. 또 항상 GOOD LUCK TO YOU 감사합니다.

-6-4반 박현서 드림-



과학선생님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6학년 3반 이다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과학이 윤리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 하지만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과학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항상 수업을 재미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업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 7. 22 다원올림

2 학급경영(학급운영, 학생학부모 상담 등)

1) 공부하는 선생님, 판교대장 초등학교 이홍석 선생님(뇌병변장애)

① 장애를 가지게 된 과정 및 특성과 고등학교 재학 시절

저는 2013년 중학교 체육대회에서 쓰러져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대표로 줄넘기 종목에 출전해 열심히 뛰던 중, 갑자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보건 선생님께서는 일사병일 거라며 그늘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저 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그때는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다행히 체육대회가 동네 큰 공원에서 열렸고, 교사의 신고가 아닌 한 시민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 진단을 내렸고, 즉시 응급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너무 갑작스러워 무척 두려웠지만,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퇴원하는 날 또 한 번 뇌출혈이 발생해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두 번째 시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퇴원 후 처음에는 큰 후유증 없이 지내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 다리에 강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상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안 저는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재활과 공부를 병행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재활 과정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을 3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여러 재활치료 병원과 한의원을 다니며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지만, 피로가 쌓여 고3 2학기 때는 재활을 중단하고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기에 고등학교 시절에도 관련 도서를 많이 읽기도 하였으며 경제학과와 관련된 학과를 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시로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1차를 붙었지만 2차 면접 때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정시에 집중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반 친구들에게 자신있었던 수학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해 급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기에 정시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와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지원하여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구교육대학교 정시 면접 당시 학교에 대한 기억이 좋아 2017년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입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당시 대구교육대학교 정시 면접을 보기 전에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기능성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래서 재활치료를 잘 받아야했다고 걱정하셨지만, 당시 공튀기기와 드리블 능력을 검사하였습니다. 추후 알게 되었지만 장애학생만 이 검사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속상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②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

초등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 중 가장 의미 있었던 경험은 굿네이버스에서 진행했던 위기아동 교육봉사였습니다. 당시 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 굿네이버스에서 60시간에 달하는 교육봉사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에서 막 졸업하고 대학교 1학기를 마쳤기 때문에 교생 실습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육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원하여 굿네이버스 교육봉사에 지원하였고 면접을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 사전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여 고등학교 이후로 남들 앞에서 서서 발표했던 경험은 없었기에 긴장을 많이 하였고 당시 실장님께서 추가로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서서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서서 해야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나아진 상태로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때 실장님께서 제가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서 하신 노력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재밌었던 과목은 체육이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체육을 잘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농구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지만, 고3 때 재활을 받지 않아 몸이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체육 교수님들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셨고, 특히 장애물 달리기나 투포환 던지기에서 균형을 잡기 어려워 자주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수님들께서는 극복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지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기계체조 수업에서 비교적 쉽게 수업을 마칠 수 있었고, 이후 태권도, 줄넘기, 야구, 테니스, 골프, 탁구, 농구, 무용 등 다양한 체육 종목들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3학년 때 농구 수업에서 슈팅과 스텝을 인정받아 동기들을 가르치는 멘토 역할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스트레칭을 하지 못해 고관절에 무리가 갔고, 결국 고관절에 물혹이 생겼습니다. 교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지만, 계속 수업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 결과 3학년 2학기에는 다시 재활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③ 임용고시와 발령 이전

재활치료를 잘 마치고 난 뒤 임용고시 기간이 되어 임용고시에 집중을 하였고 2021년도 초등 임용고시 합격을 하였습니다. 발령받고 남는 기간 동안 저는 얼른 교사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령받기 전까지 기간제 교사일을 찾았습니다. 그 중 독특하다고 느꼈던 기간제 생활은 경상북도 상주에 소재한 화북초등학교 입석분교장이었습니다. 이 분교는 국가벽지로 상주 시내에서도 차로 40분 걸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고가 나왔을 때 너무 재미있어 보여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상주 시내 사택 지원이 있었고 학교까지 차를 태워주셨습니다. 분교에 있는 아이들의 수는 너무 적었고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수업 내용이 제가 앞으로 수업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분교에는 1학년이 없었고, 2학년 1명, 3학년 1명, 4학년 1명, 5학년 3명, 6학년 1명으로 총 7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분교의 연구부장님이 맡으셨던 전담교과를 대신하여 맡았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과목은 통합체육(전교생 7명 대상), 영어, 과학, 도덕교과 입니다. 이때 다양한 학년을 맡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도서를 받아 보고 바로 수업을 실시하였고 가장 고민이 되는 수업 내용은 통합체육이었습니다. 통합체육을 함에 있어서 저는 평소에 배웠던 내용과 달리 전체가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해야했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업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당연스럽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평소에 하던 피구형 게임과 컵타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비슷한 놀이를 찾아 연습하여 지도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년 전체를 통합하여 수업할 수 있었던 통합체육을 실제로 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④ 첫 학교 발령과 업무

2021년도 6월 1일자로 판교대장초 교사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발령날 당시 멀리 발령날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하여 힘들 때마다 땀으로 옷이 가득 젖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발령제도에는 장애가 심한 사람들만 발령 우대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순위만 적어서 제출을 하긴 하였지만 1순위에 발령날 가능성이 매우 적고, 넓은 지역이다보니 어디에 발령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좋게 6월 발령이날 당시 개교학교가 있어 신규발령을 성남으로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남의 신설 학교였던 판교대장초등학교로 첫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발령이 나고 난 뒤 저의 장애 특성에 맞는 지원은 받지 않고 근무했습니다. 사실상 지원받는 방안도 몰랐을뿐만 아니라 지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걷는 것이 불편할 뿐인데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치료비 지원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발령받는 것이 몸에 피로가 덜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먼 곳까지 가게 될 경우 우측 하지 강직이 심해집니다. 그나마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에 발령이 났습나다. 추후 차를 구매하였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

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 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인 NEIS와 생활기록부 지원이었습니다.

첫 발령이 나자마자 본가와의 거리를 확인해보니 대중교통으로 40분이 걸렸습니다. 본가가 용인시에 있었고 최대한 땀이 흘리기 싫었던 저는 대중교통을 최대한 타는 방향으로 잡아 버스-지하철-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반복하였습니다. 가끔씩 방향이 같은 부장님의 도움으로 차를 얻어타면서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돈을 열심히 모아 2023년도부터는 차를 구입하여 차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발령이 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교무실에서 처음엔 생활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의 경우 각 반에 가서 근무를 하는 편이었으나, 장비 구축과 공사로 인해 교무실에 다같이 생활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NEIS, 생활기록부였고 맡은 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가 발령받기 전에 업무를 1주일 전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신설학교 특성상 6월 1일 전부터 모여 학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같이 모여 협의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상 판교대장초등학교의 NEIS초기 설정을 제가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NEIS업무와 생활기록부 업무와 관련하여 기피되는 편이 많았고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아 교감선생님과 부장선생님들께 여쭤보아도 모르셨습니다. 결국 제가 택한 방법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교육부 사이트에 나와있던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 받아 6월 1일 발령 전까지 암기하였습니다. 자료를 직접 찾아서 궁금한 점들에 관해서는 NEIS지원센터에 연락하여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면서 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설학교에서 NEIS 시스템 설정을 잘 맡은 결과 인정받아 현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생활기록부 지원단과 교육부 NEIS 초등 자문단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의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얼른 찾아내어 자신의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피업무를 초반부터 맡게 된 덕분에 꾸준히 지속할 수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1학년 담임으로 발령받은 저는 초반에 모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학 시절, 교육대학교 실습을 했을 때 저는 맡아본 학년이 모두 고학년이었습니다. 실습 학교 선정할 때 신청 스피드가 느렸기에 항상 고학년을 맡게 되었고 실습도 고학년에 맞춰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부분은 교육론 시간에 배웠던 초등학교 1학년 특성과 교육봉사를 통해 만나보았던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 특성을 알고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쳐보신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연수를 찾아듣기도 하였고 부장님께서 학급운영하시는 모습을 참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마지막까지 부장님께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부장님의 모습을 보며 앞으로 제가 선배교사가 된다면 후배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어야겠고 귀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1학년 학생들과 활동한지 이제 만 3년 5개월이 되어갑니다. 발령받고 3년 5개월 중 발령 초기 제가 학급운영을 하면서 했던 학급운영과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학급운영을 하기 위해서 1학년 선생님들과 모

여서 협의회를 자주 했습니다. 학군지라고 불리던 분당에 발령났기 때문에 학년에서 하기로 정한 것을 하지 않으면 학부모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랬기에 1학년 교육과정을 이끌기 위해서 저와 같이 발령난 선생님과 부장님과 협력하여 급하게 6월 이후 진행할 교육과정을 짜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부장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자료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어떻게 해나갈지, 학생지도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깨달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또한 같이 발령난 선생님께서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육과 유아교육 심화과정을 나오셔서 1학년에 대해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 선생님 덕분에 많은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6월 1일 개교하자마자 1학년 아이는 1명이 왔습니다. 이때 1명의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교과를 나눠서 가르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1명이 왔지만 앞으로 학생들이 더 많이 전학올 것으로 수요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 발령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예상과 달리 학생이 1학기 동안에는 적게 왔기 때문에 학생지도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없었습니다. 21학년도 1학기에 학생이 계속 전학 오게 되어 제가 맡은 반 아이의 수는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8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국어, 수학, 통합교과 지도를 하였습니다.

교과 내용의 경우 중간 전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도가 각기 달랐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을 재구성하였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부장님이 갖고 계셨던 자료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서 많은 자료를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셔서 수업자료를 저의 스타일에 맞게 재구성하여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재구성하여 수업할 수 있었더라도 당시 시기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발령 당시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말부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수업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플랫폼은 이학습터와 줌이었습니다. 때마침 졸업하기 전 대구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서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내용과 실습을 여러번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급 내에 있는 학생들과 가정 내에서 듣는 학생들을 동시에 데리고 수업할 수 있었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부장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해당 플랫폼 사용 방법을 주기적으로 연수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규 교사와 경력교사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 같아 인상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1학년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학부모님들께서는 온라인 플랫폼 대신 오프라인으로 등교하길 바랐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을 직접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자료로 풍부하고 실질적인 수업경험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 코로나로 인한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다양한 자료를 직접 학부모님들께 제공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매주 학교에 들러 자료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도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또는 맞벌이를 하지 않는 학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가정에서 수업을 듣고,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님의 학생들은 긴급돌봄으로 돌봄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온라인 플랫폼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도 하였기에 21학년도 1학기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2학기 들어서는 가림막 설치 등 여러 작업과 교육부 지침이 바뀌어 전면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름방학 이후 2학기에는 당시 초등학교 1학년 과밀학급(28명)의 기준을 넘어서는 학생 수를 받아 학생지도를 했습니다. 분반이 되기 전까지 제가 지도하던 학급 학생 수는 37명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움직임이 많았어야 하는 시절인 1학년에 움직임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 의자에 앉아 할 수 있는 책상춤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책상춤의 경우 유튜브 '흥딩스쿨' 연구회에서 올려주시는 책상춤 영상을 바탕으로 학생들과 연습했습니다.

이후 분반이 된 시기에 때마침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 당시 학부모 상담은 이알리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알리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설문지 구성을 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지정된 시간에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알리미를 통해 상담을 받았고, 코로나가 심했기 때문에 학부모와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학년 학생의 학부모님인지라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하는지 궁금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학급 내 학부모님들 전원 상담 신청하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저는 부장님께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여쭤보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수업자료와 마찬가지로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수업자료 뿐만이 아닌 상담자료 또한 많습니다. 사전 질문지와 상담을 진행할 때 서로 소통을 잘 이끌어 내기 위한 자료들이 많아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학급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학부모님들께 이알리미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미리 질문지로 받아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수 있었고 더 궁금한 점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발령 초기인지라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업무 담당자에게 여쭤본 뒤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취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다리를 저는 모습을 알고 있었으나 학부모님께서는 다리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초등학교 기간동안 남자 선생님을 1학년 때부터 만나뵐 수 있게 되어 좋다는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남교사가 적은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주고 잘 따라주어 학부모 상담과 21학년도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⑤ 22학년도 이후의 학급 운영 및 학부모 상담

21학년도가 마무리 된 이후 교육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해 여러 공문들을 학교로 발송하였습니다. 대면으로의 전환 및 코로나가 걸린 학생들의 출결인정과 같은 내용이 기존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초등교육과 특수통합교육과정을 심화과정으로 공부했기에 통합학급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1학년도 졸업하자마자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특수교육과에 진학하여 야간 강의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신입으로 오게 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도 사회성 기술 지도와 학습부진아동 지도였습니다. 때마침 22학년도 신입생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아동이 온다고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맡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순간부터 제가 장애를 가지고 나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과 시절부터 특수통합교육심화과정으로 선택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맡은 아동은 발달지체로 특수교육대상자 판정을 받고 들어온 아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회성기술과 의사소통기술에서의 어려움과 수업참여행동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반에서 유일하게 저에게 반말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는 1학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기초 개별화교육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반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지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업참여행동에 어려움이 있어 교과서를 펴지 않고 돌아다니는 행동이 컸습니다.

2학기부터 수업참여행동에 어려움이 심각해져서 어떻게 지도할지에 대해 대학원 선생님들과 교수님들께 여쭤보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의 교재에 있던 사회상황이야기를 이용하였습니다.사회상황이야기를 제작하면서 해당 아동의 얼굴을 넣어 그림책 형식으로 이야기를 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가지고 해당 학생에게 읽어볼 수 있게끔 지도하였고 이에 맞는 행동을 학생의 손을 직접 잡아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지도 결과 해당 아동은 바로 효과를 드러내었고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펼치는 행동을 바로 하기도 하였고 착석행동도 늘었지만 여전히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아동들에게 개별적 지원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엔 코로나로 인해 읽기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교육과정시간 외 교과보충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하였습니다. 해당 지도를 하기 위해 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초학력 기본-심화-전문가 과정 연수를 들었습니다. 기본-심화 연수는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졌고, 전문가 연수는 경인교대 교사교육센터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기초학력을 연구하고 있었던 서울대 교육학과 프로젝트 팀과 연계하여 BASA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심화과정 때까지 배웠던 중재 방법과 검사 방법을 바탕으로 지도하였습니다. 학부모 상담 당시에 읽기로 어려

움을 겪던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 이 부분에 대해 공부 중이라는 점을 밝혔고 학부모님께서 검사와 교과보충 프로그램 진행에 동의하셨습니다.

해당 교과보충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가 언어치료를 받는 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몇몇 발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읽는 과정에서 낱말을 예측해서 읽는 행동, 조사를 마음대로 붙여서 읽는 행동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손가락으로 글자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어 전체 문장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들에게 교사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기와 읽으면서 불필요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근거기반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개별적 지원 외에도 제가 학급 운영을 위해 노력했던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을 제공하였습니다. 추후 학부모 상담과 이어져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갇혀 있어 체력이 약해져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고, 최대한 체육활동을 많이 제공해야겠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했던 부분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활성화와 점심시간 동안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스포츠클럽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고 난 뒤 학교 중정에 있는 복합놀이공간에 나가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고 전통놀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전통놀이와 줄넘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성 기술 지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4학년도 현재 증축공사 문제로 인하여 올해는 진행할 수 없어 아쉽지만 스포츠클럽활동 외에 텃밭 운영을 하였습니다. 평소 식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교육대학원 시절 타전공 수강을 통해 정원학교육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를 적용해보기 위해 1학년 아이들과 텃밭에 식물을 심고 수확하는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과정의 소중함을 알고 통합교과 내용에 실려있던 생명존중교육을 동시해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⑥ 어려웠던 학부모 민원 사례

22학년도 여름방학 이전 학부모와의 갈등에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날 한 학생이 급식을 먹기 전에 화장실로 손을 씻으러 가던 도중 넘어지는 과정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친 일이 발생합니다. 일이 일어나자마자 학생을 들고 보건실로 데려갔고 학부모가 바로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cctv의 존재를 몰랐던 저는 학부모님께 없을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발령 초기에 처음으로 아이가 크게 다친 일이 생기기도 하였고, 제가 학교에서 응급실에 늦게 실려간 것이 동시에 겹쳐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말과 밤 늦게 오는 학부모의 연락에 응답하였습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cctv존재 여부를 알았다면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말에 cctv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해드려 제가 되려 사건을 급히 마무리 지으

려는 사람으로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학급 내 아이들이 아무도 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주변 아이들에게 물어본 결과 아무도 밀지 않았음을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이는 한 학생을 지목하였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열람결과 학교 특성상 화장실 앞에 cctv가 없었기에 해상도가 낮게 멀리 있던 cctv 부분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일부러 해상도를 낮추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학부모에게 욕을 들었습니다. 또한 징계요청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발령받고 처음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관리자와 부장님들의 도움으로 제 병가를 사용하여 가정에서 휴식을 3일간 취했습니다.

이후 복귀 후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학부모는 저에게 협박과 폭언을 지속하였으나, 3일간 해당 일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도록 여러번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고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욕설을 퍼부은 것에 대해 사과받지 못하고 학년이 마무리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다른 초등학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크게 낙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⑦ 사례 작성 후기

사례를 작성함에 있어 장애교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해온 과정을 적음으로써 많은 장애교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특성상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직접 경험해보고자 했던 것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물어보고 찾아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다면 좋은 동료교사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교직사회 내에서 알려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직접 물어보고 찾아보는 것만이 현재 교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교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례들이 많이 모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경청하고 세심히 설명한다" 최별 선생님(청각장애)

저는 선청성 청각장애인입니다. 오른쪽 귀는 저주파수가 잘 들리고 왼쪽은 고추파수가 잘들려서 오른쪽으로 듣는 것이 편합니다. 양이보청기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사람들과 대화가 어려워서 1대1 대화를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와 학생 상담에 있어서 1대1 상담을 상대적으로 잘 수행을 하는 편이였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셨을 때는 양해를 부탁드렸고 미리 상담 전에 자리를 저의 오른쪽 책상에 미리 마실 차와 자료를 두어 부모님 자리를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많이 말하기보다는 많이 듣고 호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과정에서 저의 지원인력에서 문자통역을 요청하여 부모님이나 학생이 간 후에 제가 들은 내용이 맞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개별화협의회에서 관리자와 함께 하는 다자간 소통 자리가 있는데 그때에는 문자통역지원인력을 꼭 대동하였습니다. 대부분 진행 순서에 따라 한분씩 발언을 하고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임선생님과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분위기 상 문자통역 지원인력과 함께 하기가 어려워 근처에서 문자통역을 부탁드렸고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여 차후 제가 하여야 할 일을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늘 보청기 프로그램 속 '소음속 말소리' 기능을 최대로 높여 사용하였습니다. 저에게 그 기능이 너무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하면 비장애인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뿐더러 소음 속에서 상대방 말을 구분하여 들려주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 청력에 맞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빨리 지치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무가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력을 회복시키느라 바빴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들이 저는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지원인력과 함께 일을 합니다. 가끔 제가 이해한 내용을 믿을 수 없을 때가 있고 가끔 상대방이 기억을 못할 때가 있는 경우 자연스럽게 제 장애로 인해 제가 잘못 들은 경우로 되는 일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대비하여 지원인력과 함께 근무를 하였고 근무한 이후로 제가 잘 들었는지 못들었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되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한 비장애인도 듣기 어려운 발음을 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인력이 없을 때에는 저의 장애를 탓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원인력이 있으니 지원인력도 학생의 발음을 못 듣고 있다고 하니 학생이 저의 장애를 탓하지 않도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비장애인학생보다 더 솔직하여 저의 보청기나 발음을 보고 이상하다거나 무엇인지 등 직설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하지만 저는 그러한 질문을 워낙에 많이 받다보니서 쉽고 자세하게 잘 설명하는 편입니다.

교사로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만 하나씩 해결해나갈수록 장애인이 아닌 교

사로서의 자존감이 하나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급을 경영하는데에 있어 학부모와 학생과의 만남이 많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어떻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일과 안좋은 일은 비례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교직 경력이 쌓일수록 좋은 일의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3)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진흥초 옆집언니 특수교사 혜현 선생님(지체장애)

① 선생님의 장애 특성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2층에서 청소를 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고, 그 결과로 척수 손상을 입게 되어 현재는 지체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의 구축이 발생하여 사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물건을 집거나 양팔을 이용해 물건을 옮기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수납 장치를 통해 혼자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비장애인들보다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저는 수업과 컴퓨터를 활용한 행정업무 모두 독립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게 큰 자긍심을 주며, 장애인교원으로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과정과 통합학급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학급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많아 보조인력 확보 및 배치가 필수 업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 및 보조인력 지원 덕분에 저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학생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② 우수 활동 사례

◆학급경영 개요

특수교사의 경우 한 학기에 한 번, 일년에 총 두번의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진행합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일반적으로 교감, 특수교사, 통합학급 담임교사, 학부모님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더불어 교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이 수립됩니다. 저는 신입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만족스럽게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학급경영 과정

진행 과정은 먼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일정을 조율 합니다. 일정이 정해지면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 운영계획 및 가정통신문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학부모님께 가정통신문을 발송합니다. 그리고 일정에 맞춰 협의회를 진행합니다. 1학년 신입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진행할 때는 학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의 경우 입학에 대한 설레임 보다 낯선 환경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을 가득 안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부모님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를 효과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학부모와 자연스럽게 사전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대면상담을 주로하되, 학부모님의 편의에 따라 유선상담도 실시합니다. 교육적 요구, 학생의 특성 등을 꼼꼼히 기록하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다는 학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황에 맞는 공감의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의 목적과 관련서비스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드린다면 학부모님께 협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교사로서 학부모님과의 첫 만남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습니다. 사전상담 없이 바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학부모님께서 장애인 교사를 보고 당황을 하시거나 혹여 거부감을 표현한다면 협의회를 진행해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긴장을 하게 되고 이는 실수로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담을 진행하여 학부모님의 성향을 미리 파악한다면 안정감 있는 협의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실 환경을 정비합니다. 저는 제가 생활하는 공간을 공개하는 것이 저의 성향을 짧은 시간 내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실 청결에 신경을 써서 협의회를 준비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교사라고 하여 교실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행여 하실 수도 있기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썼으며, 책상, 의자, 각종 서류 배치를 제가 가장 편하고 불편해보이지 않는 동선에 맞게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교사가 불편해 보이고 허둥지둥 한다면 보는 사람이 더 불편함을 느낄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해보인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간혹 시간표 및 지원강도를 조율함에 있어서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학부모님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전상담을 통해 학부모님의 생각을 미리 전해들었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한 과정을 통해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를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학부모님과의 신뢰가 한 두 번의 상담으로 형성되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첫 단추를 잘 끼웠을 때 그 관계가 굳건히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첫 상담에 공을 들이는편입니다.

◆ 학급경영 과정에서 활용한 편의 지원 내용

신입생 학부모님과의 사전상담은 입학식 당일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부모님께서 특수학급의 위치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직접 입학식장으로 가서 학부모님을 특수학급으로 안내하는 것이 불편하여 특수교육 실무사님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실무사님께서 학부모님들을 교실로 안내해주셔서 저는 학부모님들을 교실에서 맞이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을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이 되면 에너지를 다른 교육적인 부분에 더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 학급경영 어려움 및 극복 경험

교사로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학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장애당사자이자 교사인 만큼, 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에 대해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학급의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장애의 진실을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것이 제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제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저는 더욱 세심하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돌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도 놓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을 꼼꼼히 살피고, 개별 특성에 맞는 수업 준비부터 진행까지, 학생들과의 돈독한 관계 형성과 학급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들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제 장애보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두드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제 심리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통제할 수 있는 요소를 구조화하여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저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학부모님께 장애인 교사도 일반 교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제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의구심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꿈꾸는 통합된 교육 환경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소감 및 성과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며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결국 해낼 수 없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학부모 상담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담 경험을 통해 심리적, 전문적 측면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특수학교에서 전담교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에 처음으로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 담임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님과의 소통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긴장과 불안이 있었지만, 지금은 5년 차 특수학급 교사로서 나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저의 열정과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미숙한 모습을 보인 탓에 불편함을 느끼신 학부모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교사

로서의 확고한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장애 유무와 관계 없이 자연스럽게 저를 교사로 인식하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교사로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학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확신합니다.

③ 관련 참고자료

- 장애를 입게된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
- 2020년 학부모 첫 응대 후 소회를 담은 동영상

※ 유튜브 채널명: 옆집언니 혜현



3 업무수행(교직원 회의, 동아리 운영 등)

1)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다문화학생 교육을 기획한 혜광학교 손병문 선생님

① 선생님의 장애 특성

저는 선천적 무홍채증으로 인한 시각장애인입니다. 진행성 시각장애로 무홍채증과 더불어 백내장, 녹내장, 안구진탕 등의 증상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어릴적부터 저시력 시각장애인으로서 일반 초, 중, 고등학교에서 앞자리에서 칠판 판서 등을 보고 독립적으로 학습, 보행, 대인관계 등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고등학생 때부터 시력 저하와 대학생부터 녹내장으로 시야 제한이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익숙한 공간에서는 독립적으로 보행이 가능하고,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안내인 보행으로 보행을 하고 있으며, 좌측은 맹, 우측은 빛이 일부 시야에서 보이는 정도의 맹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학교 업무업무 수행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로지원인을 지원받고 있으며, 화면음성낭독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업 준비, 인터넷 자료 검색, 나이스 업무 수행 등 기본적인 업무 수행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영상이나 이미지 자료 검색, 나이스 기록 시 오탈자 검토 및 교정, 문서 양식 검토 및 교정, 인쇄물 형식 자료의 내용 확인과 텍스트 파일로 자료 변환 등의 수부적인 부분에서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우수 활동 사례

◆업무 개요

2022년부터 2023년 2년 간 교육과정부에서 다문화교육 업무를 맡아 경남교육청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사업을 도내 특수학교 중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은 22년 당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 지적장애 외국인 남매 학생 2명 이었으며, 2명 학생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에서 전학하여 본교에 재학중이었으나 교직원, 학생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

도교육청 사업인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내에서 특수학교의 지적장애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처음이었으므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과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도교육청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 일반학교 한국어 학급 담당자들에게 문의하여 일반학교 외국인 학생 대상 한국어 학급 운영 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받아 본교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서 부장님, 교감선생님과 협의하여 본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타부서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학교 내 한국어 교육을 할 장소를 섭외하였습니다. 대상 학생 담임

선생님의 협조를 받아 한국어 능력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청에 제출하여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운영 학교로 지정받아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운영 계획에 따라 한국어 강사 면접과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고 한국어 강사가 대상 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활용한 편의 지원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지원인 지원과 화면낭독프로그램, 문자인식스캐너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으며 자가부담금을 시간당 300원 부담하였으나 25년부터 도교육청에서 예산으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들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운영 계획서 수립, 한국어 강사 채용 계획서 수립,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 물품 구입을 위하여 K-에듀파인 공문 기안 등의 주요 업무들에 활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획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내 이동, 자료 검색, 인쇄물 내용 확인, 계획서 및 공문 양식 교정 등에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았으며, 한국어 강사 면접 및 채용, 한국어 강사와의 대면 및 소통, 운영 물품 구입 및 지원 등의 업무에 근로지원인에게 일부 지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업무 진행 시 어려움 및 극복 경험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면서 시각장애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부서 부장교사, 대상 학생 담임교사, 한국어 강사 등과도 전화 및 대면으로 원활히 소통하고 협의하였고,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한국어 강사를 지원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시각장애로 어려움이 있었다면 외국인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자 반갑게 인사해주고 짧은 대화를 할 때, 학생들의 표정과 행동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소감 및 성과

본교 외국인 학생이 초등학생으로 전입해왔을 때부터 의사소통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본교에 근무하면서 듣고 있던 차에 다문화교육 업무를 맡아 부서 부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두 외국인 학생에게 2년 간 능력 있는 한국어 강사님을 채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2년 간 한국어 교육을 받는 동안 학생들이 활기차게 기분 좋게 수업을 듣고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을 한국어 강사님께 전해 듣고 업무 담당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에도 두 학생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올해 초부터 준비하던 중, 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부터 특수학교 장애학생이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한국어 강사님과 외국인 학생에게 더 일찍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었으면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짧은 2년 간 업무를 하며 바쁘고 힘들었지만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나의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은 보조공학기기

광주상무 초등학교 조태희 선생님의 온라인 학습터

① 선생님의 장애 특성

저는 선천적인 망막질환으로 인해 심한 저시력 상태이며, 주맹증이 심하여 밝은 빛을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선천적인 망막질환을 말씀드리기보다 심한 눈부심과 저시력 상태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편리하실 듯 합니다. 특히 밝은 실외에서는 선글라스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에 가까워서 아이들을 처음 만날 때에도 눈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실내에서는 눈부심은 덜한 편이지만 강한 조명 아래에서는 여전히 교정시력이 0.1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확대 도구와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도 중증장애인으로는 최초로 광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교사로 임용된 지는 이제 1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학급 담임을 맡을 때에는 보조인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주위의 권유도 많았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애초에 학교에 장애인교사 보조인력을 지원했다는 선례 조차도 없던 시기였고 공익근무요원 등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묵묵히 저만의 방식을 찾아가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저만의 루틴이 생겼고 문제 없이 학급 담임, 심지어는 학년 부장까지도 맡아 비장애인 교사들과 동등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만의 루틴을 잘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우수 활동 사례

◆업무 개요

현재 근무하는 곳은 광주상무초등학교로, 올해 3월에 새롭게 부임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세 번째 직장입니다. 장애인 교원을 배려하는 다양한 인사규정이 있지만 현재 학교 분위기상 마냥 장애를 이유로 유예를 할 수 없기도하고 4년에 한 번씩 학교를 이동하는 것은 공립학교의 가장 중요한 인사원칙이기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걸어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학교가 언덕 중턱에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과정을 연습하였고 현재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로써 수행하는 각종 업무는 다양합니다. 학급운영, 교육과정, 진로진학지도, 학급관리, 생활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학급 사무관리 등이 있구요. 또한 학급담임의 일과를 살펴보면, 아침자습 지도, 조례, 정규시간, 청소 및 종례, 방과후 지도 등이 있습니다. 요새는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꾸려 문화예술동아리 담당 업무에 열을 쏟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관련 업무엔 물품구입, 공연기획 등 PC를 사용하는 다양한 업무 상황이 혼재하기에 이부분은 제가 하루 중 꽤나 심혈을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아니 거의 보이지 않지만 점자정보단말기나 PC화면확증기 혹은 화면읽기프로그램을 통해 학급경영 및 기

타 행정적인 업무들을 느리지만 조금씩 천천히 완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

PC의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가 효율적 업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업무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홈페이지는 접근성 지원이 원활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확대하여 보며 업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활용한 편의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32인치 4K모니터를 지원받았으며, 예전에는 ZoomText라는 프로그램을 공단으로부터 지원 받았으나 최근에는 윈도우 기본 확대 프로그램의 기능 향상으로 인해 윈도우 기본 확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시력 선생님들의 경우 굉장히 불편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면에 가까이 얼굴을 대고 보거나 화면 자체를 돋보기로 확대하는 방식 등입니다. 하지만 단축키를 이용하여 배율을 조절하는 과정 등이 익숙해지면 비장애인 못지 않은 업무 처리 속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PC를 받으면 화이트포인트를 줄이기 위해 윈도우11에서 지원하는 다크모드로 설정하고 마우스 포인터 또한 검정색으로 변경하고 크기도 키웁니다. 이렇게 해야 쉽게 마우스포인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단축키를 활용하여 윈도우 기본 돋보기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업무 진행 시 어려움 및 극복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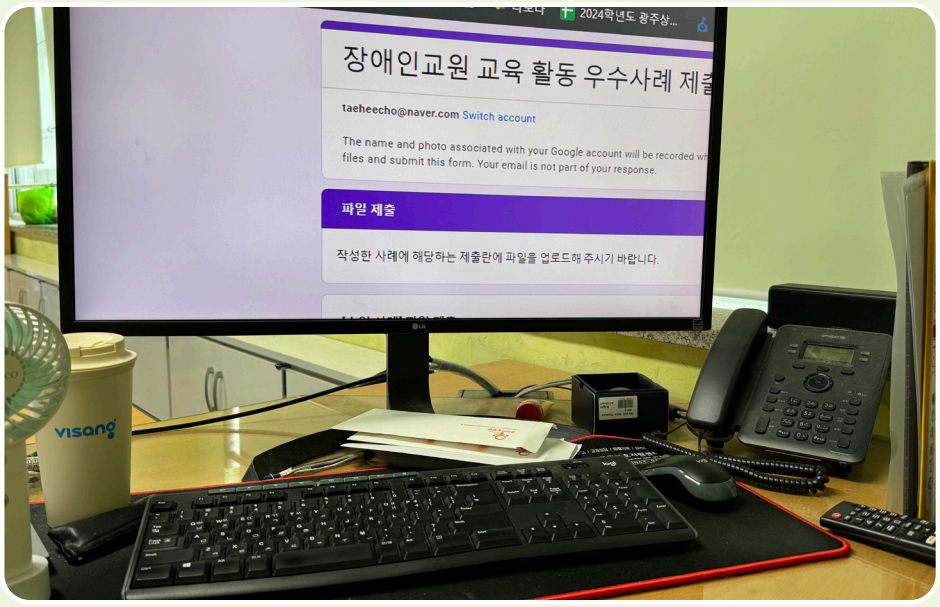
우선 가장 중요한 PC사용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은 화면확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화면에 가까이 붙어서 PC를 사용하곤 했지만 이럴 경우 사용하는 나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동료 교원들에게도 너무 큰 이질감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윈도우XP에 기본으로 탑재된 돋보기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단축키 사용도 불편했고 해상도도 깨졌으며 무엇보다 듀얼모니터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때 ZoomText라는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를 지원받아 몇 년간 업무에 매우 잘 활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화면확대 소프트웨어가 시야가 좁아 무척 불편할 수 있는데 적응이 된다면 무척 빠른 속도로 화면을 옮겨가며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윈도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윈도우7부터는 기본 돋보기 프로그램도 사용이 편해져서 요즘은 기본 돋보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할 일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소감 및 성과

2009년 이후, 전국 교대 및 사대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기 시작했고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에 따라 이제 특수학교에서는 장애를 가진 교사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었고, 심지어 제가 일하는 초등학교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장애인 교사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장애인 교원이 많아질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발령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관리자와 많은 갈등이 있었고 미비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육청 뿐 아니라 장애인고용공단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겨서 높은 벽을 넘는 것이 그나마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③ 관련 참고자료(사진 등 첨부)



3) "점자기념일"을 기획한 김유라 선생님(시각장애)

① 선생님의 장애 특성

저는 미숙아망막증으로 인한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잔존 시력은 없으며 빛 감지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업무 및 수업을 촉각 및 청각에 의존하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컴퓨터인 점자정보 단말기와 스크린리더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② 우수 활동 사례

◆업무 개요

시각장애인의 한글날 이라고 불리는 '점자기념일'을 활동 주제로 하여 행사 기획 및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은 전교생이었으며, 활동 목표는 '점자의 필요성과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 한글 점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였기 때문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활동 참여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혼잡한 분위기를 줄이기 위하여 참여 학생들을 과정별 학급별로 앉을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순서 중 점자 퀴즈와 선물뽑기을 진행하였는데 학년별로 담임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을 1명 또는 2명씩 배치하여 맡은 학년을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에서 누락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활용한 편의 지원 내용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독립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업에서 사용할 자료 제작이나 업무 진행시 동선 체크 및 상황 파악 등 시각적 불편함이 있을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에서는 사용할 물품 및 선물을 선정하고 주문할 때 인터넷 접근성 부족으로 혼자 주문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나 물품의 외형을 관찰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 받으며 시각장애인인 저도 비장애인 교사들처럼 학생들을 지도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가능하였습니다.

◆업무 진행 시 어려움 및 극복 경험

마이크에 의존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저의 지시에 따라 주어진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학년별로 지원교사를 배치하였으나 모든 학생이 참여를 하였는지 불참 학생이나 누락된 학생들이 있지는 않은지 시각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근로지원인 및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으며, 선물 전달, 활동 도구 배분과 같은 것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여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시각장애인 교사도 얼마든지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환경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감 및 성과

점자에 대하여 배우고, 점자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O·X퀴즈, 점자가 표기되어 있는 선물 뽑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전교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지루해하지 않도록 문제를 맞추거나 활발한 리액션을 하는 학생에게는 선물을 자주 전달하며 좋은 반응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한글 점자에 대한 지식을 키우며 행사의 재미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활동 진행 상황과 학생들의 상태에 대해 수시로 체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근로지원인과 동료 교사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비장애인 교사들처럼 막힘 없이 행사 전반을 지휘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즐겁게 참여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저에게도 큰 성취감을 느끼게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③ 관련 참고자료(사진 등 첨부)



4) "힐링동아리"로 모두가 힐링하는 박병찬 선생님(지체장애)

① 선생님의 장애 특성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비장애인으로 지내다가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야 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대를 경증 장애인으로 보내다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중증 장애로 진행되어 현재는 휠체어를 사용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하지 중증 지체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② 우수 활동 사례

◆업무 개요

언젠가부터 학교에서 교직원 동아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칙 중 하나는 모든 교사가 적어도 하나의 동아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잠깐 동안은 동아리 참여율이 교원 평가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교직원 동아리가 생겨났고, 대부분은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보드게임, 수업 실연, 도예 체험, 바이올린 등입니다.

저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동아리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저는 우선 다른 학교에서 운영 중인 동아리들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그중에서 저처럼 신체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를 찾던 중, '힐링'을 주제로 활동하는 동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동아리는 교직 생활 중 경험한 일과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위로하는 자리를 통해 교사들끼리 마음을 비우고 협력하여 인성 교육을 구성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찾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동아리를 진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동아리비로 차와 성찰을 위한 일기장을 구매했고, 한 학기에 한 번씩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밖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계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모였을 때는 학교 생활을 공유하는 스몰토킹으로 시작하여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방향으로 동아리를 진행했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활용한 편의 지원 내용

동아리를 개설하고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을 지원 인력과 함께 꾸몄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거리를 출력하여 배부하는 일, 선생님들이 마실 차와 사용할 펜 등을 준비하는 것 등을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습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지원인력에게 이동 지원을 요청하여 선생님들과 함께 경사가 없는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 힐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편의 지원을 통해 선생님들과 부담 없이 동아리에 참여하고 진솔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업무 진행 시 어려움 및 극복 경험

처음으로 동아리를 개설하는 일이었고, 동아리의 주제도 생소해서 선생님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와 친한 선생님들에게 동아리 계획서를 전달하고, 개별적으로 만나 동아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고, 결과적으로 10여 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동아리 지원비는 참여하는 선생님 한 명당 약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금전적인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소감 및 성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 주제를 선택하여 직접 개설하고 운영해 본 경험은 새로운 학교에 갔을 때에도 도움이 되어 동아리를 다시 개설하는 것이 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또한 나와 같이 신체적 활동에 대한 부담이 있는 교사들도 동아리에 가입하여 만족도가 높았고, 계속해서 동아리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가 더 원활해졌고, 더 많은 동료 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③ 관련 참고자료(사진 등 첨부)

<table>
<tr><th>영 역</th><th>힐링 동아리</th></tr>
<tr><td>동아리명</td><td>둥글게 둥글게 (힐링 동아리)</td></tr>
<tr><td>운영일</td><td>20.04. ~ 20.02. 매주 금요일 15시30분~16시 30분</td></tr>
<tr><td>대 상</td><td>
<table>
<tr><th>순</th><th>학년반</th><th>성명</th><th>비고</th><th>순</th><th>학년반</th><th>성명</th><th>비고</th></tr>
<tr><td>1</td><td>전담</td><td>박병찬</td><td>회장</td><td>7</td><td></td><td></td><td></td></tr>
<tr><td>2</td><td>2-5</td><td></td><td></td><td>8</td><td></td><td></td><td></td></tr>
<tr><td>3</td><td>3-4</td><td></td><td></td><td>9</td><td></td><td></td><td></td></tr>
<tr><td>4</td><td>3-2</td><td></td><td></td><td>10</td><td></td><td></td><td></td></tr>
<tr><td>5</td><td>5-4</td><td></td><td></td><td>11</td><td></td><td></td><td></td></tr>
<tr><td>6</td><td>6-3</td><td></td><td></td><td>12</td><td></td><td></td><td></td></tr>
<tr><td colspan="8">총 인원 : 10명</td></tr>
</table>
</td></tr>
<tr><td>장 소</td><td>예능실</td></tr>
<tr><td>주요활동</td><td>○ 교사들의 수업 및 생활지도 노하우 공유
○ 교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지친 일상에 대한 힐링
○ 마음빼기 활동을 통한 삶에 대한 성찰 및 인성교육 노하우 공유
○ 마음빼기 교수학습 적용을 통한 인성교육 실현</td></tr>
<tr><td>연간
계획</td><td>
<table>
<tr><th>월</th><th>주</th><th>주제</th><th>활동 내용</th></tr>
<tr><td rowspan="4">4</td><td>1</td><td>반갑습니다</td><td>회원간의 서로 인사나누기 회원간 친해지기</td></tr>
<tr><td>2</td><td>내안의긍정찾기</td><td>내 안의 긍정 찾기</td></tr>
<tr><td>3</td><td>내안의긍정찾기</td><td>힐링 다이어리 선물</td></tr>
<tr><td>4</td><td>내안의긍정찾기</td><td>힐링 다이어리를 통한 감정 공유 및 힐링</td></tr>
<tr><td rowspan="3">5</td><td>1</td><td>명상</td><td>차( )명상을 통해 심신 정화하기</td></tr>
<tr><td>2</td><td>마음 알기</td><td>진짜마음 가짜마음 알기</td></tr>
<tr><td>3</td><td>마음 버리기</td><td>넓고 큰 마음과 거짓 마음 비교하기</td></tr>
<tr><td rowspan="3">6</td><td>1</td><td>마음 버리기</td><td>마음 버리기의 방법을 알고 떠오르는 생각 버리기</td></tr>
<tr><td>2</td><td>명상</td><td>자연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습관 다지기</td></tr>
<tr><td>3</td><td>1학기총정리</td><td>1학기 있었던 모든 일을 돌아보고 버리기</td></tr>
<tr><td rowspan="3">9</td><td>2</td><td>버려야할 마음세계 알기</td><td>나의 지나온 교직생활 돌아보며 버리기</td></tr>
<tr><td>3</td><td>집착된 마음 버리기</td><td>넓고 큰 마음의 입장에서 집착된 마음 버리기</td></tr>
<tr><td>4</td><td>인연 버리기</td><td>부모님, 친구, 학교생활, 주제별로 쌓여 있는 마음 찾아서 버리기</td></tr>
<tr><td rowspan="3">10</td><td>1</td><td>명상</td><td>자연 속에서 나를 돌아보는 습관 다지기</td></tr>
<tr><td>2</td><td>교직생활</td><td>태어나서 현재까지 학교에서의 모든 일 떠올려 버리기</td></tr>
<tr><td>3</td><td>학부모 관계</td><td>학부모님과 있었던 일 일체를 떠올려 버리기</td></tr>
<tr><td rowspan="4">11</td><td>1</td><td>학생 관계</td><td>학생들과의 관계에서의 자기 마음가짐 들여다보고 버리기</td></tr>
<tr><td>2</td><td>마음의 지혜얻기</td><td>교수학습 수업에의 적용 방법 연구</td></tr>
<tr><td>3</td><td>마음의 지혜얻기</td><td>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노하우 공유</td></tr>
<tr><td>4</td><td>확인 및 마무리</td><td>교사 마음빼기 활동을 통한 학생 교육에로의 확대 적용</td></tr>
</table>
</td></tr>
</table>

5) 우리는 문화로 소통한다! "문화예술공연"을 기획한 김자영 선생님(시각장애)

① 선생님의 장애 특성

저는 선천성 망막색소변성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 어린 시절부터 심한 야맹증, 낮은 시력, 좁은 시야의 증상을 가지고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성 질환으로 인해 하루하루 시력과 시야가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근로지원인을 지원받고 있으며, 문서장석, 업무자료 준비, 이동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② 우수 활동 사례

◆업무 개요

국악, 서양음악 분야의 학생예술동아리, 미술동아리 등 학생예술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 섭외, 운영 계획 및 추진, 성과 발표를 위한 전시 및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로 찾아 오는 문화예술공연을 연 6회 계획하여 1 ~ 2개월에 한 번씩 섭외, 계획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

학생예술동아리는 강사 섭외부터 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학생 편성 등의 행정적인 업무와 실질적인 국악, 서양음악, 미술분야의 동아리 운영, 성과 발표를 위한 전시와 교내 버스킹 추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진행할 때 근로지원인은 저의 눈이 되어 필요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및 강사와의 소통을 도와줍니다.

교내 문화예술 공연은 외부의 손님이 찾아오는 행사로 무대 세팅, 공연 진행, 뒷정리의 과정으로 크게 진행되며 근로지원인은 제가 사회를 볼 때 학생들이 다 모였는지, 공연팀이 무대를 진행할 때 어떤 상황인지, 돌발 상황이 생기진 않는지 등의 정보를 저에게 제공하고 업무의 실제 진행과 추진은 저 스스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활용한 편의 지원 내용

저는 현재 시력이 저시력과 전맹의 경계에 있어 업무 효율 등을 고려해 별도의 보조기기는 지원받고 있지 않으며 교내외 이동, 문서작업, 소통 과정에서의 시각적 정보 , 업무 추진 등 업무 처리의 과정 전반에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은 저의 눈이 되어 제가 학교 업무를 처리하면서 놓치거나 부족한 시각적 정보를 저에게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진행 시 어려움 및 극복 경험

저는 문화예술 업무를 진행하면서 타 학생, 교사와의 소통에 있어 시각적 정보를 놓치고 쫓아가지 못 할 때, 보이지 않음을 알고 있는 동료 교사들의 과한 배려로 인한 소외감을 느낄 때, 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는 일들을 시각 장애로 인해 포기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교사로서의 무력감과 낮아지는 자존감을 겪어 심 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동료교사에게 저의 시각장애로 인한 보이는 정도나 "도움이 필요 할 때 미리 말하겠다." 혹은 불편한 점 등이 있을때 즉시 말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가

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로지원인은 2년째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처음업무를 진행하는 스타일과 서로의 성향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작은 갈등이 발생하곤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 서로가 원하는 점 을 이야기 하 여 현재는 손발이 척척 맞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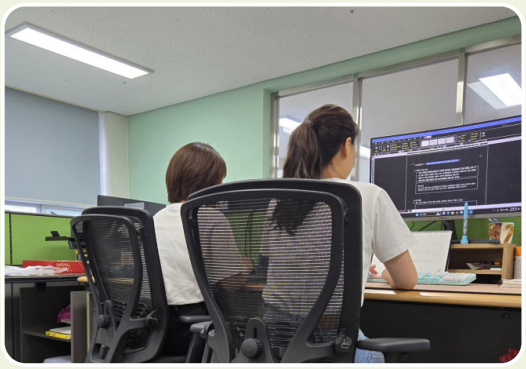
◆소감 및 성과

저는 문화예술 업무를 7년 째 맡으며 동료 교사, 근로지원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다른 교사에게 정보를 주고 인정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교사라는 타이틀은 어쩔 수 없이 저를 따라 다니는 수식어이고 저 또한 이를 인정하는 바이나 자신의 분야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애로 인해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학교 내에서 장애인도 얼마든지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나타 낼 수 있고 학교에서의 장애 공감을 절로 형성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③ 관련 참고자료(사진 등 첨부)







장애인교원
우수 사례집

II

장애인교원의 우수 활동 사례 인터뷰

Ⅱ 장애인교원의 우수 활동 사례 인터뷰

1 시각장애인교원 우수 활동 사례

:: 인터뷰 참여한 선생님 소개 ::



이윤주

이윤주 선생님은 솔샘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2년차 경력을 가진 상담선생님이다. 이윤주선생님은 출생과정에서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다. 물체의 변별은 가능하나, 작은 글씨는 읽기 어려운 상태이다.



편도환

편도환 선생님은 10년차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다. 선천성 백내장으로 저시력으로 생활하다 고등학교 때 실명하여 현재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이다. 스크린리더와 점자정보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교직에서 업무와 수업을 한다.



최지욱

최지욱 선생님은 울산혜인학교에 근무 중인 17년 차 특수교사이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거의 전맹 상태로 점자와 음성프로그램을 주 매체로 사용하고 있다. 근거리 약 50cm 정도에서 흔들리는 손 정도는 판별 가능하다.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후, 시각·지적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시각 및 지적 중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수

김민수 선생님은 목포 한빛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5년차 경력을 가진 담임선생님이다. 선생님은 후천적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다. 저시력과, 좁은시야로 물체의 변별은 가능하나 작은 글씨는 읽기 어려우며 보행상 불편함이 있다.



남관영

남관영 선생님은 봉림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3년차 경력을 가진 특수선생님이다. 남관영 선생님은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물체의 변별은 가능하나 작은 글씨는 읽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 우수 활동 사례 인터뷰 결과 ::

1) 수업운영

질문 대부분의 신규 및 저경력 시각장애인교원은 수업장면에서 일방적인 강의를 할 수는 있지만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등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학생과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업 운영 팁이 있을까요?

> '목소리를 파악하기 위해 출석을 매 시간마다 부름.'
>
> '좌석배치도 외우기 위한 노력'
>
> '짝활동과 모둠활동 선호'

편도환: 전맹의 입장에서 일반 학교에서 교과를 가르치는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20명에서 30명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학생의 일단 목소리를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매수업 시간마다 출석을 불러요. 그래서 출석을 부를 때 학생이 대답한 목소리 들으면서 학생의 목소리에 익숙해지고, 학생이 대답하는 위치를 보면서 위치도 파악합니다. 대답하는 걸 들어보면 학생의 기분이 어떤지 또는 어디 아픈 데가 있는지, 뭔가 다른 걸 하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어서 저는 처음에 출석을 부르는 걸 되게 좀 중시해요.

자리 배치 같은 경우에 담임 선생님들이 학급 좌석 배치도를 만들어 교탁에 붙여 놓으시거든요. 그거를 파일로 전달받아서 학생들의 좌석배치도를 외우는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교실 자리를 바꾸는 반의 경우 재배치한 자료를 받거나 지원인력에게 요청을 하여 좌석 배치도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 학생의 학급에 가서 수업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냥 기존의 그 학급에 지정된 좌석을 제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수업했습니다.

중학교라서 수업할 때는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많이 좀 시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짝활동이나 모둠활동을 시켜 놓고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학생들의 좀 특성을 파악하기가 조금 용이한 면이 있어요. 짝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걸 시켜보면 대화를 통해서 학습 과제를 해결해야 가는 과정에서 개별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파악하는데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기는 어려워서 지원 인력께 학생들이 뭐 학습 활동지를 얼마나 작성을 하고 있는지, 학습 과제를 수행을 완료했는지, 학생들이 어떤 행동으로 도전 행동 같은 거 돌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지를 좀 관찰하고 정보 제공을 부탁드리는 편입니다.

적용 사례

- 본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수업 시 주로 사용하며, 일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기도 함.
- 점자정보단말기는 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 또는 학습활동지를 전자문서 파일로 점자정보단말기에 저장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활용함.
- 스마트 기기는 구글 설문지, 패들렛, 클래스카드, 구글클래스룸 등 학생들이 스마트폰 또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과제 제작, 수정, 과제 제시, 학생들의 과제 완료 여부 또는 수행 정도 확인 등에 활용함.
-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스마트 기기 보급 시 장애인교사의 장애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 역시 개인 소유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 등을 활용함.

적용 예시

◆ **지원인력의 수업에서의 지원 역할 및 협력은 다음과 같이 함.**

1. 수업 준비

- 학습활동지 제작 시 서식, 표, 글자체, 글자크기, 정렬 등 학습활동지의 디자인 및 형식에 대한 검토 및 보완
- PPT 등 교육 자료 제작 지원
- 음원 및 영상 검색 및 편집 등 제작 지원
-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방법 익히기
- 교육용 소프트웨어(클래스카드, 구글클래스룸, 패들렛 등) 교육 자료 제작 및 탑재 등
- 학생 좌석배치도 작성 지원
- 교육 기자재 준비 지원

2. 수업 실행

- 출석 확인 (공석 유무)
- 학생들의 자리 확인 (임의 자리 변경 유무 등)
- 교육 기자재(컴퓨터, 전자칠판, 칠판 등) 조작 지원
- 판서 지원
- 학습활동지 배부, 회수 및 수합 지원
-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 등 학습 과제 수행 정도 관찰
- 도전 행동 학생 유무 등 학생 관찰

3. 평가

- 학생 평가지(지필평가 답안지 등) 대독
- 학생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 점수 입력 및 오류 여부 검토 확인 지원

학년 초에 이렇게 아이들 3월 달에 처음 봤을 때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기도 해요. 교과와 관련된 내용, 학생 개인에 대해서 수업과 관련해서 의지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으라고 합니다.

3월에 아이들이 좀 긴장해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학생들끼리 몸으로 활동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을 해요. 모험 상담 활동 몇 가지를 가져와서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름을 좀 외울 수 있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게임 이름은 범피리 범범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다 동그랗게 서면 1명이 그 원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1명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목을 하면서 범피리 범범이라고 말하는데 범피리 범범이라고 말을 끝내기 전에 지목당하는 사람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빨리 외쳐야 돼요. 계속 자리를 바꾸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이름을 외우게 돼서 활동을 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활동하는 걸 좀 관찰하면은 쟤는 어떤 성향이구나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학생들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자기네들끼리 웃고 친해져서 말도 잘 좀 트고 모둠 활동을 촉진하기에 효과적인 것 같았습니다.

추가질문 설문지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설문지를 QR로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작성하라고 하시나요?

>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
> 라포형성을 위해 몸으로 하는
> 다양한 게임과 활동을 진행

편도환: 종이로 할 때도 있고 구글 설문지처럼 링크로 해서 할 때도 있는데, 제가 그 설문지 하고 나서 맨 마지막 항목에는 자기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3가지를 적으라고 하고 그거를 퀴즈로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하나씩 읽어주면서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누군지 추측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편이에요.

적용 사례

- 시각장애인교원은 시력의 정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학생의 외관을 보고 해당 학생이 누구인지 인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 본인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교사로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학생들의 목소리와 수업 내에서 학생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학생 개개인의 특성(교과에 대한 학습 능력 정도, 관심사, 성격 등)을 파악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임.
- 매 수업마다 학생들의 출석을 부르며 개개 학생의 목소리를 암기하고 익숙해지도록 하며, 출석을 부르면서 학생들의 위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학생의 이상 유무(건강 상태 등)을 파악함.
- 학생의 좌석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출석을 부르며 학생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과 학생들의 좌석을 지정해주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여 활용함.
- 시각장애인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위치와 목소리를 파악하고 학생들이 먼저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시각장애인교사가 학생을 먼저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주면 선생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관심을 기울여준다는 것에 정서적 교감과 라포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년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생의 교과에 대한 선수학습 능력, 흥미, 관심도, 정의적 특성 등을 파악함.
- 시각장애인교사는 강의식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표정, 눈빛 등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인지가 어려우므로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발문이나 질문을 하며 학생들의 반응과 호응 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좀더 파악하기 위하여 짝 활동 또는 모둠 활동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의 짝 활동 및 모둠 활동 과정 중에 교실을 순회하며 개별 학생들에 대한 관찰을 실시함.
- 학생들의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짝 활동 및 모둠 활동 등에서의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원인력에게 학생 관찰을 요청하여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도 함.

이윤주: 저는 음악 교과라서 특별실을 가지고 있는 교과예요. 저는 자리를 다시 배정을 해서 지원 인력에게 부탁해서 좌석표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보조 지원인력도 가지고 있고 그랬어요. 출석을 부르면서 자리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좌석 배치에 이동이 있거나 이런 거는 보조 선생님의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교과가 거의 2개 학년에 걸치기 때문에 많은 아이를 가르치게 되는 교과라 한 번에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지교과와 다르게 각반별 1~2시간으로 전교생을 커버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외우는 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조 선생님이 좌석표를 보고 애들을 한번 확인하는 역할을 많이 맡아 주셨었습니다.

추가질문 선생님이 여러 교과를 하신 거잖아요. 다 같은 방식이었을까요?

이윤주: 그렇지는 않죠. 음악 교과랑 국어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지원 인력이 없었어요. 제가 2008년까지 특수학교에서 일을 했고, 그때는 보조 선생님이 없거나 아니면 특수 실무사 선생님이 진짜 심한 애만 케어하고 있거나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받고 혼자 수업을 했어요.

음악 교사를 했을 때도 혼자 수업을 했어요. 음악 교과로서 한계를 느낀 거는 손 모양이나 동작 같은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 인력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저는 늘 전공자를 뽑았어요. 전공자를 뽑아서 동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인제 피드백을 주시는 형식으로 수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적용 사례

저의 경우 확대독서기를 가지고 있지만 업무나 수업 외 장면에서 활용하고 수업장면에서는 그다지 많이 쓰지 않았어요. 교과의 특이성이 있고 실기실습이 주가 되는 교과이기 때문에 같은 전공을 한 업무지원 선생님만을 뽑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필기나 기타 눈을 써야 하는 것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은 업무지원 선생님이 하셨고, 저는 수업중에는 교과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조공학기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수업 외 장면에서 비전자문서 자료를 확인하거나 할 때 확대독서기를 사용하곤 하였어요.

시각장애 교원이고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업장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업무지원선생님의 첫 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수업은 제가 진행하지만 수업맥락에 맞에 자료를 넘긴다던지 아이들이 필기나 실기연습을 할 때 눈으로 주어야 하는 피드백 등은 업무지원 선생님이 하셨어요. 수행평가 과정에서는 제가 당연히 주된 역할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 업무지원 선생님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추가질문 근로지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간제 교사가 지원을 했었나요?

> 기간제교사정도의 전문적
> 근로지원인이 도움이 되었어요.
>
> 근로지원인과 교사와 확실한
> 역할 구분이 필요

이윤주: 근로지원인인데 기간제 교사급을 꼭 뽑는 거예요. 기간제 교사를 할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이 주로 거쳐 가셨었어요. 만약에 어떤 교과가 그렇게 뽑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제가 영어과 얘기도 예를 들어 딴 선생님한테 듣고 그러는데 영어과 경우에는 그렇게 기간제급의 선생님을 뽑기엔 어렵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듣고 있거든요. 교과 특성이 조금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기 초에 지원인력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지원인력 선생님한테 부탁해야 될 것과 제가 저한테 꼭 얘기해야 하는 걸 분리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화장실 같은데 갔다 올 때 손 조용히 손 들고 갔다 온다 이럴 땐 지금 뭐 한 번에 한 사람씩만 간다는 규칙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손을 들어도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손 들고 지원인력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고 조용히 갔다 오면 된다고 설명을 해요.

평가 같은 경우는 조교 선생님에게 묻지 말고 평가하면 꼭 나한테 물어봐라, 왜냐하면 평가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필기를 할 때 잘못된 거라든지 악보를 그릴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손을 들고 조교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라. 대신에 수행평가랑 관련된건 나한테 와서 확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적용 사례

저는 특별실을 사용하는 교사였기 때문에 자리배치를 다시 하고 그 배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위치를 외었던 것 같아요. 수업 과정에서의 규칙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하기, 화장실은 한 번에 한 사람만 가기 등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아이들과 자율적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정한 규칙은 없었는데 아이들 앞에서 보조선생님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 소통을 위해 학생과 가까이서 수업 반에서 도와줄 학생 찾기

최지욱: 첫 번째로, 학생과 소통 문제에 대해서 학생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저는 많이 됐거든요. 가만히 서서 수업하기보다 교실을 빙글빙글 돌아다닙니다. 학생 가까이 가서 잘 앉아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구요. 학생 목소리를 듣고도 멀리서 이렇게 제가 교탁 앞에 서가지고 수업하는 것보다 가까이서 이렇게 수업을 하면 학생이 무슨 행동이 괜찮은지 알기가 편하거든요.

목소리만 듣고는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수업을 할 경우 학생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학생의 행동을 알아차리기는 더 어렵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또는 서서 수업하지 않고 학생 주변을 돌아다니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로도 학생의 자세나 태도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고 신체 접촉이 가능한 동성의 경우 자세가 이상하다고 판단될 경우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시력이 조금이나마 있는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멀리 있을 때는 시력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가까이 있을 경우 시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눈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만들기입니다.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근로지원인 하고 공무직은 당연히 저희 눈을 대신하는 사람인데 당연히 비언어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애가 엎드려 있으면 말을 좀 해달라고 하거나 학생하고 떠들고 있으면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휴대폰을 한다던지 친구들하고 떠든다던지 제가 모르게 떠든다던지 고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요.

장애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근로지원인이나 공무직에게 학생들의 비언어적 행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나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에 그 반에 수행 수준이 좋은 학생에게 학습 수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행 수준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애들한테 선생님이 눈이 좀 안 좋으니까 혹시 얘가 놀고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든 잘 통하더라구요. 애들끼리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좀 설득을 해서 주변 또래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적용 사례

가. 학생의 수행 결과물 확인: 학생들이 묵자 또는 그림으로 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지원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글의 경우 그대로 읽어달라고 말하면 되지만 그림 등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행 결과물에서 핵심이 되는 키워드 등이 들어갔는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설명해달라. 등을 지원인에게 질문하여 교사가 의도하는 결과물인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원인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인이 어디부터 교사에게 설명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 지원인의 가치판단 등이 개입될 수 있어 최대한 교사가 의도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지원인이 교사와 비슷한 기준에서 결과물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학생의 수업 태도에 대한 피드백: 교사도 잔존감각을 이용하여 학생의 수업태도를 체크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에서와 같이 지원인에게 수업태도에 대한 피드백 예를 들자면 '엎드려 있을 때 말씀해 주세요.' '친구와 소리 없이 장난치고

있을 때 말씀해 주세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전달하여야 교사가 의도한 대로 수업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수업 보조: 그림 그리기, 실습 등 장애인이 하기에 어렵거나 불가능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수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가르침의 주최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을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인에게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 실습의 경우 학생 순서 정하기, 절차적 방법 시연(시연은 지원인이 하지만 단계는 교사가 설명하는 방법), 지원인이 말한 피드백을 참고하여 교사가 한 번 더 재언하기 등 교사가 수업을 맡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최적으로 이끌어가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익숙해질 때까지 번호대로 앉히기

QR코드 활용해 의견 한 번에 파악하기

김민수: 저는 학생들의 형태나 얼굴을 보고 걔가 누군지 익숙해지면 알 수는 있어요. 처음에 새 학년을 맡았거나 했을 때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번호대로 일단 앉혀서 최대한 이름하고 학생의 목소리나 성향이나 이런 거를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학교에서 명렬표를 주면 일단 앉혀놓고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번호대로 앉혀 놓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학생들과 빨리 최대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에 선생님을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나 어떤 좋았던 점 같은 거를 저한테 가능하면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PC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구글 공유 문서 같은 거에 쓰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학생들의 생각을 봐야 되는 경우에 QR 코드 찍어서 자기 의견을 올려달라고 해서 소통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보기가 편하거든요.

적용 사례

시각장애교원이라서 큰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우스포인터를 찾기가 어려워서 최근에 터치스크린 기능이 있는 기기로 교체하였습니다.) 교실에는 대형 전자칠판이 있어서 교사가 기본개념을 설명한 후에는 관련영상을 자주 활용합니다. 태블릿PC가 학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패들렛, 구글문서 류의 코워크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면 음성 언어로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업자료도 기존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음성으로 소통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3월 초에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HTP 검사를 같이 해요. 검사를 분석해서 개인의 심리 상태나 학부모 상담할 때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질문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저만의 질문을 만들어 넣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갔다 왔던 장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먹었던 것 중에 가장 맛있었던 음식, 가장 좋아하는 사람처럼 기호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넣어요. 그리고 질문을 나중에 이제 반 친구들하고도 관계 형성을 해야잖아요. 그때 퀴즈로 사용을 해요. 그거를 TMI 퀴즈라고 부르거든요. 학생들이 맞혀보는 그런 퀴즈도 하고, 연장선에서 학생들 또 사진 얼굴 사진을 이렇게 2~3장씩 다 이렇게 찍어놔요. 그 사진을 이제 제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오릴 수 있잖아요. 오려서 교실에 전자 칠판에 크게 띄워주는 거예요. 교실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서 친구와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선생님하고도 그런 활동을 하면 선생님하고 관계도 빨리 형성이 되거든요.

적용 사례

특수학교(특수학급)와 일반학교(통합 또는 특수학급)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일반학교(통합학급) 기준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교사에게 존중받고 있다라는 학급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자리배치는 선 의견청취 후 교사의견을 더해 정합니다.(월1회 변경), 학습 환경 구성 및 수업과정에서도 최근에 학생들의 선호 트렌드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예를들어 최근에 하츄핑이라는 캐릭터가 유행한다고 가정하면 수업자료와 학습 환경에 일부 반영합니다. 이를위해 자주 학생들과 일상대화를 많이 합니다.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게임을 좋아하는지, 어떤 애니를 좋아하는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하는지, 등입니다.

아직 경증이라 활동보조인은 임용 후에는 써보지 못했도, 교육대학교 재학시절에 근로봉사 학생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소통이었습니다.(형식이 아니고 내용의 문제) 내가 원하는 것과, 지원인이 생각하는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원인과 정말 많은 대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도 고려되어야 하니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명확한 지시과 소통을 하기 위해 나 스스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월요일 라포 형성 위한
> 주말 있었던 이야기 활용

남관영: 저는 월요일 1교시에 주말에 있었던 얘기를 해요. 친구들끼리도 소통하고 저랑도 소통하고 그리고 스몰토크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해지고, 그렇게 서로 이제 저의 장애 같은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자리 배치 같은 거는 따로 제가 뭐 하지는 않고요. 교육적인 판단으로 그냥 자리 배치를 합니다. 앞에 앉아야 하는 학생이면 앞에 앉히고 저의 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자리 배치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추가질문 선생님 저시력이어서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들었었던 내용 중에 선생님은 들어오시자마자 신규였을 때 협력 교사 배치 아니면은 기간제 교사 중에 좀 전문성 있는 선생님 배치가 도움 됐었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고경력 한시적 기간제 교사가
> 도움이 되었어요.

남관영: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1년차 신규 교사 장애 교원한테 한시적 기간제 교사(기간제면서 경력이 있던 선생님, 1년 계약)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교사를 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특수반에 이제 2명의 교사가 있게 됐는데, 교사를 경력이 많은 교사로 채용을 해 주셔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짰고요. 제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했고요. 노하우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수업이나 생활지도 측면 그리고 학급 운영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전문성을 가진 분을 학교에 같이 배치해서 공문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같이 좀 협력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그런 코티칭을 했습니다. 지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서 큰 도움 받았습니다.

질문 학생들이 교원의 장애를 지적할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 해당하는 사례는 아직 없었고,
> 있다면 교육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

편도환: 교직 경력 중 학생들의 본인의 장애(시각장애)에 대하여 지적을 한 사례는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업 중 학생의 도전 행동과 같이 시각적인 인지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인력의 관찰 등의 도움을 받아 학생의 도전 행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시각장애인교사의 시각장애에 대하여 불만이나 지적을 하게 된다면, 시각장애는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 중 일부에 불과하며 어느 한 개인의 일부 특성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아는 위인들 중 장애가 있었던 위인들에 대해 소개하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을 할 것입니다.

이윤주: 수업 중에 "선생님 안경 좀 쓰시면 안 돼요? 보기 불편해요."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저경력일 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연차가 쌓이면서 그냥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이라 안경을 써도 보이지 않는다.'라거나 '안경을 쓰는 것이 너네가 나를 보는 것에 부담을 덜 느낄 것 같니?'라는 등 물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솔직하게 표현해 주더군요.

> 고경력 한시적 기간제 교사가
> 도움이 되었어요.

최지욱: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시각장애인이라 볼 수 없다. 하지만 너희들이 도와주고 옆에 계신 선생님(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근로지원인 등)들이 도와주셔서 너희들에게 수업을 잘 가르치고 있다. 너희들도 선생님을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선생님을 도와줬듯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처럼 도움을 요청하기도 해라.'

김민수: 저는 저시력과 시야장애를 가진 시각장애교원입니다. 외관상 한쪽 눈동자 색과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고 항상 충혈되어 있어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 저를 자각하고 일반인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최

대한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보통은 어렸을 때부터 아파서 치료하려고 많은 과정을 거쳤고, 상처와 흉터가 생겼다. 불편해졌다. 그래도 학생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수 있다. 학생 여러분이 보기에 선생님이 가끔 어색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선생님에게 말해주거나, 선생님을 도와주기를 바란다.'

남관영: 장애를 밝히지 않았고 시력이 나쁘고 눈 건강이 좋지 않다는 방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대부분 학생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의 특징 중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학급운영

질문 대부분의 신규 및 저경력 장애인교원은 담임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장애가 있어 담임을 거부해야하는지 장애가 있지만 담임을 하여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동료교사도 장애교원과 일을 해본 경험이 적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음.
>
> 동료교사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담임을 해보는 것도좋은 방법

편도환: 대부분 시각장애인 교사들에게 담임 배정하는 것을 학교에서 기피 하는 경향이 많아서, 애초에 그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장애인 교사랑 근무해 본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수업과 업무를 하고 학생들을 지도하는지 몰라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시각장애인 교사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 내가 담임 업무를 희망한다면 업무나 수업이나 이런 생활지도나 이런 걸 열심히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서 동료로부터 신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담임을 하게 되면 주변 동료 교직원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동료 교직원들이 장애인 교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도 협업에서 정말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료 교사들의 지지와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자신의 장애를 알리는 것에 대해서 일단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소개할 때 시각장애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것과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지켜야 할 부분들 좀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편인데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일단 담임을 이렇게 맡았을 때 학부모님들께 3월 첫날이라든지, 아니면 사전이라든지, 알리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알리진 않았었거든요. 이유로 제가 당시 담임을 할 때 해당 학교에 근무한 지 상당히 좀 기간이 오래돼서 대부분 좀 학생들이 아는 편이었고, 그리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지역에 이미 소문이 난 걸로 인지하고 있었어요.

학부모의 우려는 공개수업으로 해결

만약에 첫 발령을 받거나 아니면은 발령 받은지 얼마 안 된 학교 같은 경우라면 사전에 그렇게 좀 뭔가 알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해 제가 지금 두 번째 학교에 있는데, 첫 번째 학교에서는 저의 시각장애로 인해서 직접적인 민원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두 번째 학교에서는 그런 좀 우려를 나타내는 학부모님이 있다고 듣긴 했었거든요. 제 생각은 학부모님들도 잘 몰라서 그렇게 우려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부모 수업 공개 때 저는 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 한번 나눠보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적용 사례

본인의 장애는 외관으로 거의 드러나는 장애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교사 소개와 함께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안내함.

학부모에게는 먼저 알릴 수 있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서 부모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부모들도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수업을 맡는 학급 학생들에게는 학부모에게까지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었음.

다만, 담임을 맡게 된 해에는 2월말에 사전에 학부모들께 문자 메시지로 인사를 드리면서 알리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하였지만, 실행하지는 않음.

담임을 맡았던 해에는 당시 그 학교에서 7년차 근무를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본인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주변 학부모들도 시각장애인교사가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가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할 때 학부모위원들도 몇 번 보아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다만, 신규나 전보 등으로 새로운 학교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학교라면 학부모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음.

추가질문 그럼 안전사고나 관리 소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선생님이 민원을 받거나 아니면 우려되었던 부분이 있지는 않으셨나 봐요.

> 학부모님과 소통을 통해 오해 줄이기

편도환: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오셔서 아무래도 처음 학교 입장에서도 장애인 교사에게 처음 담임을 맡기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생각지 못한 민원이 있을 걸 생각을 해서, 부담임을 좀 경력이 있으신 분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떤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 괜찮다 좋다 해서 그 당시에 생활 지도부장님을 부담임으로 계시고 학부모님들에게 안심을 주는 그런 걸 했었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려가 특별히 없었던 것 같은데, 학생의 그런 어떤 심리 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학부모님들이 직접 연락하시는 분도 있는데, 담임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상담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학부모님들도 조심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해도 덜 생기고 이럴 것 같아서요. 그런 소통을 중시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적용 사례

시각장애인교사들에게는 학교에서 담임 배정에 대한 기회부터 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각장애인교사들은 담임 배정에 대한 기회를 얻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시각장애인교사와 함께 근무하는 것이 처음인 대다수의 비장애인인 교장, 교감 또는 교사들은 시각장애인교사가 학생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 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지거나, 학부모로부터의 민원 제기 등에 대하여 상당한 우려를 지니고 있음. 또한, 장애인교사가 수업, 업무, 생활지도 등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업무분장에서 업무나 담임 등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시각장애인교사들은 첫 발령 또는 전보 시에 자신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교장 및 교감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해를 돕고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함.

또한 장애인교사에 대한 업무 등에서의 신뢰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함.

장애인교사에게 적정한 업무나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기도 하지만, 장애인교사 입장에서 처음 함께 근무하는 이들에 대하여 자신을 알리고 신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함.

주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로 매년 업무분장 시 업무의 배정량을 조금씩 확대하거나 좀더 난이도가 있는 업무를 점진적으로 맡아 가면서 동료 교직원들의 신뢰를 쌓는 과정을 통해 어떤 업무를 맡겨도 잘 할 수 있는 교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담임 업무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동 학년(과정) 교사들과의 협업도 매우 중요하므로 동료 교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본인은 처음 발령받은 학교에서 4년차까지는 큰 업무를 맡진 않았지만, 5년차부터 교육연구부의 기획 업무를 맡으며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가고, 전보 유예로 같은 학교에 2년 더 근무하며 담임 배정을 지원하여 동료 교직원의 지지를 얻어 담임 업무를 배정 받음.

적용 예시

가. 점자정보단말기의 이용: 교재 및 지도서를 점자정보단말기에 넣어 읽으며 수업합니다.

나. 스크린리더의 활용: 판서가 필요할 경우 스크린리더를 이용하여 적은 내용을 확인하며 판서합니다. 또, 점자로 읽기에 내용이 많을 경우 스크린리더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많은 문서의 경우 점자로도 수업 진행이 어렵지만 점자에 비해 스크린리더를 들으면서 수업을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스크린리더로 많은 내용을 확인할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한 후 확인하거나 수업 전 미리 확인한 후 키워드를 적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 컴퓨터와 점자정보단말기를 연결하여 수업: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수업하거나 복잡한 표를 확인하며 수업할 경우,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점자정보단말기로 옮기기 귀찮을 경우 등 컴퓨터와 점자정보단말기를 연결하여 수업합니다.

이윤주: 저는 2001년 신규인데 일반 학교 음악으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장애 오픈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담임 맡고 교무부 소속에 담임을 맡았는데 장애인이라고조차 얘기를 못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땐 장애 전형도 없었으니까 담임을 일반 학교에선 죽어도 못 하겠다고 생각했었고 담임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시각장애 특수학교에 있을 땐 당연히 담임을 한 2~3년 했고요.

추가질문 장애를 말하지 않고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다른 선생님들이 분명 잘 알려지지 않은 시도교육청에서 바로 배치시키면 유사할 거 같거든요.

이윤주: 비슷할 수 있고 경증장애인 경우에는 말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반장을 좀 잘 뽑아서 반장을 통해서 학급 회장을 통해서 좀 학급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학급회장을 통해 운영을 했고 학급회장이 똘똘하고 애들은 단합이 잘 돼서 학급이 굴러가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사들이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특수학교에서는 담임을 하면서 내가 담임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한 건 없었어요. 되려 일반 학교에선 안전사고에 대해서 즉 그렇게 막 문제가 있거나 제가 지금 뭐 동아리 애들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 안전사고 이런 건 중 고등학교에서는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데 되려 특수 학교에서 학생이 다친다 그러면은 제 잘못이 아닌데 선생님이 담임해서 잘 못 봐서 다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었죠. 그럴 때는 좀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시각장애가 아니었으면 그냥 애가 잘못해서 다친 건데 애가 문제행동을 하다가 다치거나 실수로 다친 건데 꼭 엄마들이 와서 저기 선생님이 눈이 안 보여서 애를 잘 못 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좀 속상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을 가르치는 게 이상이 없다. 뭔가 문제가 터질 줄 알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슬슬 담임 얘기가 먼저 밖에서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너무 그 첫해의 경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담임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거부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비교과 교사 됐잖아요.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너무 힘들어했던 기억 때문에 안 맡으려고 했던 경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3~4년쯤 지나면 학교에서 담임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용기 내서 맡아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용기내어 담임해보는 것도 괜찮아 보여'

> 지원인력과 충분한
> 대화를 통해 맞춰나가기
>
> 스스로 담임을 했을 때
> 잘해내면 자존감 UP

최지욱: 우선은 담임이라는 게 책임이 따르는 자리라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담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뭐 생활 지도라든지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학급운영이라든지, 담임 업무라든지 여기서 시각장애인들이 힘들어하는 게 생활 지도가 좀 힘들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것들은 학부모 상담이야 뭐 전화로 하면 되고 학급운영도 그냥 뭐 불편함이 있겠지만 할 수 있는데, 학생 지도는 눈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조력자의 의사 타진을 먼저 하는 거죠. 이제 제가 그 지원 인력이 없이도 해보고 있기도 해봤는데 지원 인력이 없었을 때는 제가 그 시각장애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됐고요.

지원 인력이 있었을 때는 제가 특수학급 담임을 했는

적용 사례

- **역할 인식**: 담임을 하기 전 담임의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급 운영, 담임 업무 등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내가 이 일을 혼자서 할 수 있는지 혼자서 할 수 없다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 **조력자의 의사 타진**: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면 근로지원인 등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이런 일을 도와줘야 할 것 같다.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여쭤봅니다. 근로지원인 등의 지원인력은 장애인을 도와주는 인력이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이 아니라 이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 **문제 해결 및 숙고**: 지원인력이 난색을 표했다면 이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지 내가 이 일을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저는 위 과정을 통해 담임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제가 처음 근무할 때는 지원인력이 없어 생활지도의 문제로 담임을 맡지 않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을 때 지원인력이 없는 환경에서 담임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지원인이 배치되어 있으니 지원인과 의논했을 때 협조적이라면 담임을 맡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학부모 상담, 생기부 작성과 같은 담임 업무, 학급 운영 등은 장애인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생활지도의 경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는요. 하지만 지원인력이 비협조적이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지원인력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지원인력의 협조를 얻어내고 담임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노파심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원인력이 비협조적이라도 근무 지침 등에 의거한 지시 등을 통해 강제로 시킬 수는 있지만 결과가 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인력은 장애인을 도와주는 인력이지만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특히 담임 등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 이때 분명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근로지원인이나 지원 인력이 되겠죠. 이분들도 이제 뭐 물론 시킬 수도 있죠. 당연히 이거는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선생님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분들도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사실은 이런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할 수가 없는데 조금 선생님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 인력이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담임인데 제가 신변처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신변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자선생님 입장에서는 ' 선생님 남자애 그거 중학교 3학년 애 다 크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닦아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 선생님 눈도 안 보이는데 저보고 이걸 하라고요. 선생님 무조건 하십시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할게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라고 해서 막상 해보는데 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라텍스 장갑 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지원 인력하고 맞춰 나가서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면 담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만약에 해서 제가 잘할 수 있으면은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교사로서 자존감이 정말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는 진짜 자존감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나도 비장애인들만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꼭 기회가 된다면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잘 해내지 못하면 진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에 꼭 내가 이제 담임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 학부모의 부정적인 면은
> 교사의 능력과 지원인력이 함께함을 강조
>
> 안전 문제 또한 지원인력과
> 함께하여 멀어진다.

학부모님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머님, 학생들이 교사가 장애인이면 학생들이 장애 교사를 조금 더 도와줄 수 있고 학생들의 배려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지원 인력이 1명 더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보이는 분이시기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건 교사 혼자 가르치지만 학생들을 지도하고 하는 거는 지원인력 선생님이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학부모님께 '저희는 1명인 교사보다 2명인 교사이고, 제가 조금 뭐 0.5배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분이 1개를 하면은 오히려 저희는 1.5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이제 제 능력을 어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지원 인력이 없는 경우에도 담임을 해봤고요. 부장도 많이 했습니다. 신규 교사일 경우는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임용도 붙었고요. 저 잘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어머님 그 걱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 같아도 걱정을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5를 합니다. 제가 0.5 하고 뭐 저는 솔직히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그 걱정이 되시니까 저희는 0.5라고 할게요. 사실은 2인데 그러고 지원 인력이 1합니다. 어머님 1.5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 능력 어필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제 능력을 어필하는 편입니다.

이제 담임이 생겼을 때 어려움 같은 경우는 제일 계속 말씀을 앞에서도 하시던데 안전 문제가 제일 문제가 커요. 장애 교사 담임을 맡으면은 관리자들은 안전 문제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지원인력이 있으니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지원 인력이 없었을 때는 그 안전 문제가 굉장히 좀 저도 걱정이 많이 돼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최대한 안전사고가 안 생기도록 해요. 예를 들어 실습할 때 불을 만져야 하는 상황인 경우, 조금 최대한 학생들을 좀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든지 수업 부분에 있어서 더 걱정하는 편이에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경각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원인력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참 고

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상대: 교사가 시각장애인이라 학생들이 좀 더 장애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선생님을 도와주며 오히려 정안인 교사에 비해 배려심을 좀 더 기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

나. 정안인 교사와 다른 부분이 없음: 교사는 장애인이지만 교사를 도와주는 지원인력이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음을 말합니다.

다. 자신의 능력 어필: 지원인력이 없을 경우나 지원인력이 있어도 장애인이지만 장애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일반 교사들보다 더 괜찮음을 말합니다.

추가질문 선생님 목소리 진짜 자신감이 느껴져서 사실 너무 좋습니다. 부장 선생님까지 하셨군요. 근데 선생님 미리 알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알리시나요?

> 담임이 되면 바로 연락을 드리고
> 장애를 알려드리는 편.

최지욱: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담임 발표가 되면 먼저 전화를 돌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담임 맡은 누구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 저희가 제가 시각장애가 좀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니면 이제 저희는 개별화 협의회를 하니까 상담 또는 개별화 협의할 때, '어머님 모시면은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저 도와주시는 선생님도 이렇게 계시고요.'라고 하며 옆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도 하는 식으로 하는 편입니다.

질문 선생님은 장애를 미리 알리시나요?

> 추후 생길 문제를 대비해
> 학기 초에 먼저 알리는 편

최지욱: 장애를 알려야 되는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장애를 먼저 알리는 편이거든요. 이게 책임 소재가 따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장애를 안 알리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학부모가 장애인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장애인이라서 뭐 그럴 순 있겠다. 하지만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장애인이라고 뭐 이러면 어머니가 크게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 추가내용 ◈

장애를 알리려면 학기 초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학기말에 알리든 학기 초에 알리든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담임 발표 후 학부모에게 처음 전화할 때 '시각장애인이다 하지만 지원인 선생님도 계시고 학생을 가르치고 생활 지도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힙니다. 즉, 시각장애인이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려 학생의 수업 및 생활지도에 결손이 없음을 밝힙니다.

장애 교사가 담임을 맡았을 때 관리자들은 안전에 대해 가장 많은 걱정을 합니다. 안전한 학급 운영이 중요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원천 차단하고 학급의 지원인력 또는 장애 교사의 지원인력에게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민수: 저는 학부모에게 먼저 알린 적은 없습니다. 학생들 입을 통해서 선생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다는 정도

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리 알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학부모님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체험학습, 학예회, 운동회, 등) 진솔하게 어려움을 나누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되면 온전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면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이윤주: 장애를 다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면 공개 여부가 선택사항이 되겠지만, 중증장애인 경우 공개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업무지원 선생님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니 그 기회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학부모에게는 공식적인 서한을 보내기보다는 상담 장면에서 초반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담교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처음 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는 초반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상담교사가 시선을 맞추지 못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운 테니까요.

김민수: 저는 처음에 학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기존에 계셨던 선배 선생님들이 다 학급을 차지하고 신규는 남는 학급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저학년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경력이 5년 차인데 5년 동안 저학년만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고학년이 되면 선생님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관찰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아이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예를 들면 이제 생활지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급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의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처음에 저학년을 선택해서 한 것이 지금까지 저학년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학년이라고 하는 거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면 한 4학년 이하까지입니다. 최대한 제 능력의 수준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학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결론은 처음에 발령받아 갔을 때 그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을 잘 고려해서 관리자 학교 관리자 분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눠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경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서 학년을 처음에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규교사면 대부분 담임 맡게 되었을 때 불안합니다. 요즘은 몇 십년씩 근무한 베테랑 교원도 담임을 하다가 중도에 교체되거나 병가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담임을 맡는 것도, 담임을 맡아서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그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모든 선택은 존중받아야하고, 뒷 일은 뒤에 이어받을 사람의 몫입니다. 학교라는 직장이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업공개는 1년에 3회 이상 지금까지 5년 동안 다 했고요.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수업 설계를 해요. 지도안을 짤 때 최대한 학생들의 그 협력 수업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이제 수업에 큰 미션을 줘요. 우리가 수업 왜 공부하는 내용에 미션을 하나 제공합니다. 어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마지막에 과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초등학생 수학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 수학 수업 중간에 구해야 되는 답은 어떤 자물쇠를 여는 데 비밀번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보물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 비밀번호를 넣으면 열린다. 그리고 그런 수업을 하나의 약간 동영상 유튜브 컨텐츠처럼 제작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처음에 수업 동기부여 부분에 제가 동영상에 등장을 해서 보물 상자를 들고 등장을 해서 인제 뭐 안에 뭐 이런 게 들어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제 비밀번호 넣고 열리면은 이제 뭐 간식을 나눠준다던가. 왜 그런 식으로 짜냐면 어떤 하나의 목표에 학생들을 좀 최대한 흥미로써 집중을 할 수 있게 해 놓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제 수업 시간에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공개수업을 할 때는 모둠

으로 앉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둠원들이 약간 행동에 그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해서 학생들끼리 스스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집중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친구가 옆에서 끌어주면 더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약간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지만 비장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 최대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적용 사례

부족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만 확대되어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은 급속하게 확산됩니다. 상담에서도 절대적으로 교원이 전문가라는 느낌과 신뢰를 주어야합니다.(대학원에서 더 공부도 하고, 교육도서도 많이 읽고, 몇 가지 간단한 상담도구도 도입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교원의 상황을 통해서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경험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회, 교직원친목회, 예술교육, 다문화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많은 업무 중에서 제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면서 학부모들과 접촉을 늘리고 저의 장점을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걸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자존심 버리면, 조금씩 가까워 집니다.

교원의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생활지도가 매우 어려워 지는 추세입니다. 관리자의 우려는 업무가 익숙해지면 지워지는 것입니다. 학부모의 부정적인 익식도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바뀔 것입니다. 학생들 안전사고 및 관리가 어려운 문제인데, 학교에 매뉴얼 있습니다. 자주 안전교육하고 반복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의 탓이 아닙니다.

남관영: 저는 처음 발령받았을 때 코티칭 하는 이제 기간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 저와 기간제 선생님 중 특수학급 담임을 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장애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기야 하겠지만, 저는 지원인력도 있고 또 도와주시는 기간제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그리고 담임 업무는 일단은 지원 인력이 있으니까 한번 맡아보는 것이 앞으로의 교직 경력이나 그리고 자기 효능감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직생활을 위해서 담임 한번 맡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맡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담임을 맡았고요.

장애로 인한 제한점으로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다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 등을 지원해준다면 얼마든지 장애인 교원도 어려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한 것(청각장애-전화업무, 시각장애-작은 글씨를 계속 보아야 하는 업무 등)은 제외하면 되니깐요.

담임을 맡으면서 크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걱정했던 점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그때 그때 잘 풀어나갔던 것 같고요. 장애는 제가 학부모님들 한테 학생들한테는 특별히 알리지는 않았는데 학부모님들은 눈치챈 분들도 계시구요. 알리진 않았어요. 알리지는 않았는데 넌 그냥 눈치껏 뭔가 아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담임을 맡았을 때 이제 솔직히 관리자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 이제 동료 교사들도 또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걸로 저도 이제 소문으로 듣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 됐고요. 담임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초등담임)의 경우 생활지도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급식지도, 전담교과 학생 인솔, 현장체험학습 등 이동하며 다녀야 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직접 인솔하고 다니셨나요?

> 급식지도의 경우 지원인력과 함께 지도
>
> 교사는 언어로 지도
>
> 체험학습은 지원인력,
> 전담교원과 협의가 필요

편도환: 급식지원, 현장체험학습의 학생 인솔 등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증 장애 교사 혼자 급식지도를 하거나 학생 인솔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안전 문제 및 학생 이탈 확인 등 중증 시각장애 교사가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원인력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장애 교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중증 시각장애인의 경우 수저로 밥 및 반찬을 집고 나머지 손을 수저 아래에 받친 후 받친 손의 손가락 끝으로 학생의 입을 확인하여 수저를 입에 가져다주는 방법이 있으나 외관상 보기 좋지 않아 학생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은 지원인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지원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00이 밥 잘 먹고 있어요? 00아 밥 먹자. 이 반찬도 먹어보자.' 같이 언어적으로라도 급식지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밥을 먹지 않는 학생의 경우 지원인에게 전적으로 맡길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급식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급식을 먹이는 지원인력의 경우도 장애교사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 있기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현장학습 등에서의 학생 인솔할 때 학생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잡는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의 안전사고 및 이탈을 방지할 수 있으나 손이 두 개 밖에 없는 장애 교사가 6~7명의 학생을 잡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장애 교사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아 장애 교사가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행 수준이 좋은 학생이 있다면 교사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학생은 지원인력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인력이 교사를 안내해야 할 경우에도 교사는 학생 한 명의 손을 잡고 가운데 서고 나머지 손으로 지원인력의 팔을 잡습니다. 인솔 역시도 장애 교사가 가운데 서서 학생을 한 명이라도 잡지 않고 지원인의 팔만 잡고 갈 경우 지원인은 학생 인솔뿐만 아니라 장애 교사도 챙겨야 하기에 부담이 큽니다. 장애 교사가 도와주는 데에 한계가 있더라도 1~2명 정도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김민수: 원칙적으로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면 인솔하고 다니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교원이 장애 유형에 따라서, 해당 전담 교원과 협의하여 인솔하러 오는 것도 좋고, 지원인 또는 기타 인력이 있다면 협의하여 인솔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급 임원에게 위임하고 출발 시 인사와 안전 당부만 합니다. 급식실에는 영양교사도 있고, 급식지원인들 도 있습니다. 내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도의적인 감사 표시는 종종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험학습 현장에 관계자나 학부모 일일 교사로 동행 요청하세요.

남관영: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급식지도, 학생인솔 등을 하는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업무수행

질문 대부분의 신규 및 저경력 장애인교원은 수업보다 업무수행하는데에 있어 주변의 시선을 많이 우려하거나 실제 업무수행에서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업무를 잘 수행하여 학교구성원들에게 인정받으셨던 경험이 있을까요?

편도환: 교사의 그 직무 보통 이렇게 수업이랑 생활지도랑 업무 이렇게 3개로 나누잖아요. 수업은 뭐 누구든 하는 거다 보니깐 생활지도랑 업무 중에서 그래도 시각장애인 교사 입장에서 조금 더 능력을 더 제약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업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아까 담임 배정을 안 하는 것처럼 업무에서도 주요 업무를 배정하지 않거나 아예 업무를 거의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추가질문 학교에서 주요 업무는 보통 어떤 것들이 주요 업무로 인식되나요?

>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
> 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피력함
>
> 동료교사와의 신뢰구축 및 협조

편도환: 보통 각 부서에서 기획 업무들인데 교무부 기획이라든지. 연구부 기획 뭐 생활 지도부 같은 경우는 주요 업무이긴 한데 그쪽은 기피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도 좀 사안 조사라든지 암튼 좀 그런 것들도 신규나 저경력일 때는 마음은 되게 열정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주변에서 좀 인식이 부족해서 덜 또 좀 역할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서 처음에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저도 처음에 그 임용을 받고 나서 한 몇 년 동안은 학교에서 업무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배정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몸은 편한데 좀 마음은 불편한 느낌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게 경력을 계속 쌓아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가면 나의 입지가 계속 줄어드는 그런 느낌도 받고 해서 학교에서 인사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매년 차년도 업무분장을 하기 위해서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의 각자의 그 업무 희망을 받아서 그걸 조율해서 업무분장안을 만들어서 교장선생님께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5년 차 되는 해에 그 인사자문위원회 들어가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좀 피력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뭐 업무를 배정하지 않거나 그랬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요 업무 이런 걸 좀 배정받고 그 다음에 업무 배정 받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선생님들의 지지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적용 사례

다년간의 교과부장과 교육연구부의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교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신뢰를 형성함.

교직원 회의, 토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교 및 교육 발전에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해 동료 교직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인식됨.

추가질문 지금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 오히려 시각장애 교원의 경우 문서를 다루는 업무가 가장 쉬운거 같아요

편도환: 지금은 그냥 연구부에서 연수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연구부에서 연구기획을 맡았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신뢰를 향상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교사 입장에서 업무 유형을 제가 구분하면은 문서를 다루는 업무랑 물리적인 그 비품이라든지, 사람을 대해야 되는 그런 업무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교사 입장에서 가장 쉬운 거는 문서를 다루는 업무 그게 가장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런 것들은 내용 작성하는 데는 무리는 없고 편집 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되게 지원받을 수 있어서 가장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문서를 다루는 업무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사 운영하고 학생들이 인솔하는 그런 거는 혼자 한다기보다는 다른 선생님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많이 하는 업무이다 보니 그런 평소 다른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 다음에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추가질문 교직원 회의나 연수 같은 경우에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교직원 회의와 연수 자료는 사전에 요청드려요.

편도환: 교직원 회의 같은 경우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회의라기보다 좀 전달식 그 공지사항을 알리고 뭐 안내 안내사항 전달 예 전달 연수 같은 느낌으로 많이 해 가지고 거기서는 사실 회의 자료를 미리 제공받냐 이게 가장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실 보통은 다 그 출력된 유인물은 준비하는데 대체 자료 형태의 회의 자료는 준비하지 않다 보니깐 저는 보통 교직원에 있는 교무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수합해 가지고 준비한다든지 해서 교무부장님께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회의 자료를 미리 제공해 주시면은 제가 회의에 참여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려서 회의 자료를 미리 이렇게 제공받았는데 교직원 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회의가 끝나고 이후에 업무 시스템에서 문서를 검색해서 제가 그 문서를 내려받아 가지고 볼 수도 있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지장이 되진 않아요. 교직원 회의보다도 다른 위원회 같은 거 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든지 아까 인사자문위원회라든지 진짜 회의에서 자료를 그때 그때 보면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해서 그럴 때는 사전에 자료를 미리 이렇게 제공해 주실 것을 많이 요청하는 편이에요. 뭔가 시스템으로 학교 현장의 풍토 문화로 형성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습관이 돼야 하는데 습관이 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았어요.

적용 사례

교직원 회의 등 회의에서의 어려움은 회의 자료를 미리 파일 형태 등으로 제공하지 않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었음. 교직원 회의 등 회의를 준비하는 부서에서는 출력된 회의 자료는 준비하지만 장애인교사를 위한 대체 형태의 회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임.

교무부장 등에게 회의 자료를 사전에 교내 메신저를 통해서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음. 교직원 회의 등 회의에서 분임 토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대독 및 대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임 토의를 함. 동료 교직원들의 인식이 좋아서 분임 토의를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느끼지 않음.

이윤주: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몸 쓰는 거나 교복 선정 업무 아니면 교과서 선정 업무 같은 거 맡으면 잘하지 않을까? 너 단순한 거 낫지 않니?'라고 하시며 저에게 수업 교환을 맡긴 적이 있는데, 제가 표를 잔뜩 보면서 그때그때 바꾸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제가 기획서 같은 것들을 제출을 하고 그러면은 이걸 잘하시는구나 한참 후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업무인력이 여유가 있는 큰 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저에게 주요 핵심업무를 맡기지 않아도 될 만큼 인력이 여유로웠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교사와 비슷한 취급을 받고 업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여건이 안 돼서 저를 중핵업무를 하는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쉬운업무를 받았을 때의 무력감도 있기는 하지만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였던 것 같기도 하고, 시각을 많이 써야 하는 단순작업을 많이 요하는 일에 배치하였을 때는 화도 났던 것 같아요. 왜 이 학교에서 가장 이 업무를 힘들어하는 나에게 이 일을 맡기는지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핵부서에서 일할 때는 솔직히 힘에 부치기도 했고 도리어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이를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업무는 생각보다 잘한다는 평을 듣는 편이어 가지고 연구기획이나 복지부 기획 같은 걸 맡았었는데 그때도 인식이 잘 없어서 제가 일을 그럭저럭 잘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알고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상담 교사하러 왔잖아요.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은 독자적인 업무기 때문에 대응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을 못하면 도대체 제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걸로 토론회가 벌어진 거 같더라고요. 제가 왔더니, 다들 사색이 돼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경력이 있다 보니까 상담은 처음이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까 당연히 그 다른 학교 자료 같은 거 착착 받아서, 1년을 잘 굴렸거든요. 근데 다들 당황해하시는 거예요. 학교 경력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럴까 사실 업무는 업무 지원인이 있고 업무 내용 파악이 되면은 시각장애인이 제일 진짜 생활지도나 수업은 진짜 이렇게 비교 대상이 안되는데 저 사람이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신규 교사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실 부분이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건데 학교의 문제점이 또 사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수가 없는 상황에서 업무 파악을 하는 게 신규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업무파악이 되면은 업무 지원이라고 사실 업무를 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규 선생님들한테 그 업무 파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윤주: 교직원 회의나 연수 등에서 그날 바로바로 자료를 나눠주고 전자파일이 오지 않을 경우, 평가계획이나 기타 연수 등에서 피피티를 띄워놓고 바로 설명하는 경우 등은 제가 상황 파악을 할수 없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경우 업무지원인 선생님을 동석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 파일을 해당부서에 요청하기도 했어요.

중도의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학교를 발령받으면 제가 한 사람의 역할을 해내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적용 사례

물품 구입 등에서 표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와 공문 작성 시 혹시 모를 오탈자를 점검하는 경우, 표나 그림을 편집하고 포스터를 만드는 일 등에서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또한 근무하는 사무실의 환경구성이나 정리, 상담실 방문 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나 어느 학생이 왔다고 알려주는 일 등도 하고 계십니다.

시선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 왔을 때도 상담교사는 업무를 빼주거나 할수 없으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업무를 해나가는 것을 보고 학교경력은 무시 못하는구나 등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는 장애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가끔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교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다거나,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한 사람의 몫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제 근무평점을 다른 교사 대비 평균에서 살짝 높게 주신 것도 볼 때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가질문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강조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선생님에게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는 뭐 사수라던가 아니면 외부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학교 내에 사수가 제일 좋겠네요.

이윤주: 업무 파악이 안 되면 업무 지원인도 제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의 신규 시절을 돌이켜 볼 때 학교는 왜 사수가 없을까? 거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학교에 신규교사를 위한
> 사수가 필요해요.
>
> 부장하면서 업무 인정을
> 많이 받은 편이에요.
>
> 신규 교사의 경우 문서 업무가
> 괜찮아 보여요.

최지욱: 저는 부장을 하면서 인정을 조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환경부장을 했을 때는 관리자가 기대치가 굉장히 낮았는데 그것도 제가 2학기 때 원래 환경기획이었는데. 2학기 때 환경부장님이 해외로 나가시게 되면서 제가 부장이 된 거거든요. 이런저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각장애 시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로 옮겨서 이제 시각장애 학생과 지적장애 학생이 같이 있는 학교거든요. 울산에 있는 학교는 시각 교육부장을 당연히 시각장애인이 하는 거니까 특별한 것 없이 술술 흘러갔던 것 같아요. 시각 교육부장을 하면서 센터도 시각 거점센터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일을 좀 많이 했어요. 예산이 내려오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시 센터에서는 지적장애도 담당을 하고요. 시각장애 거점센터에서 시각장애 학생들을 담당하는 센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고, 1호 교육 과정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자분들이 좀 좋게 생각을 해서 연구부장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옮기기 전에 1년 동안 연구부장을 맡아서 자유학년제 이런 것들 뭐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서관 운영 이런 것들을 쭉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부장을 하면서도 다양한 업무를 접해보니까 시각장애인이 하기 힘든 업무가 분명히 있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작년에 안 그래도 김원호 교수님께서 업무 분류를 장애인이 하기 편한 업무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를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서, 우선은 업무 파악을 좀 시각장애인이 하기 쉬운 업무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연구부에 있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이라든지. 연구부 일들이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연구부 쪽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겠다. 뭐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업무를 맡는 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원 인력 도움을 안 받는 부분은 제가 이제 컴퓨터로 해버리면 되니까. 처음 신규 교사를 하면은 좀 문서 관련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문서 관련 업무가 시각장애인이 하기가 편하거든요. 정말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 사례

부장을 하며 학교 구성원 및 관리자에게 인정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환경부장, 시각교육부장, 연구부장 등을 수행하였고 환경부장의 경우는 관리자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 처리를 하니 '장애인임에도 대단하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시각교육부장의 경우는 시각장애인이 하기 좋은 업무라 인정을 받기보다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정도의 관점이었고, 연구부장의 경우는 컴퓨터 활용능력이 평균적인 시각장애인 교사의 경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많고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의 경우 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 특성상 하기 어려운 업무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활용만 가능하다면 스스로 할 수 있고 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를 맡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 공통적으로 문서 관련 업무가 용이하다란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이윤주 선생님도 약간의 사수가 필요하다 지금 최지욱 선생님들 그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최지욱: 신규 교사가 어떤 업무가 편하다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동료 시각장애 교사가 되겠죠. 멘토처럼 학교에서 사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동료, 시각장애 네트워크가 있다. 미리 좀 그런 책자라든지 뭐 이런 게 발간이 돼 있다면은 시각장애 신규 교사들에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책자 정도로만 알려줘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을 알려주는 건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우스를 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바뀌고 이런 거보다는 펜스 리더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알려줘야 되지 사수가 정한 일

적용 사례

- **차이를 인정하기:** 여자에게 '왜 남자보다 힘이 약하냐?'라고 이야기하고 '남자에게 왜 여자처럼 임신을 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남녀의 특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장애도 성별과 마찬가지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업무가 분명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고 관리자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인을 활용하기:** 장애로 인해 업무 처리가 힘들다면 지원인을 활용하면 됩니다. 단, 지원인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지원인에게 의논을 통해 공감을 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 지원 인도 나와 같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로봇이 아닙니다.
- **지원인력:** 표나 글 편집(내용은 장애 교사가 작성함), 대독, 대필 등
- **스크린리더:** 문서 내용 확인, 문서 작성, 그 외 업무 대부분을 스크린리더를 활용하여 처리함.
- **점자정보단말기:** 회의나 연수 내용 필기, 회의 및 연수에서의 발표

이면은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 연수를 해야하는 경우엔
> 키워드 위주로 발표
>
> 지원인력 도움받아 PPT 발표

파일로 이제 좀 받아 먼저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연수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연수하시는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파일 먼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이 연수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서 제가 업무 담당자라면 발표를 해야 할 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점자를 잘하는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키워드 정도 적어서 발표를 하면 되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파워포인트 남기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지원 인력한테 그냥 부탁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인력한테 좀 부탁을 하는 방법이 아니면 센스레인 깔아서 제가 듣고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제가 연수를 직접 진행해야 할 때 그 점자를 읽으면서 키워드 정도 적어 놓으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확인하면서 점자가 아무래도 읽는 속도가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정도 딱 적어 놓고 발표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파워포인트는 제가 센스 리더를 깔아서 직접 넘기던지 합니다.

착석 같은 경우에 저는 어려움을 좀 겪은 적이 있었어요. 지원 인력이 없었을 때 제가 이게 앉으려고 그러는데 막 사람들 앞에 앉아있는데, 제가 뒤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 그래서 부끄럽긴 하지만 앞자리에 앉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자리에 앉는다든지 아니면 동료 교사들한테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추가질문 연수를 받으실 때 앞자리에 앉는게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어디가 비워져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니까요.

최지욱: 사람들하고 뭐 한 몇 자리를 띄워놓고 동떨어진 자리에 제가 그 삘쭘하게 앉아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보통 연수를 할 때 사람들이 보통 뒤에 있다가 앞으로 오세요. 하는데 사람들 우르르 가버리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앞자리 앉던지 아니면 동료 교사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그런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용 사례

- **인쇄물 확인의 어려움:** 유인물 등을 종이로 배부해 줄 경우 시각장애 교사는 읽을 수 없습니다. 미리 파일을 받아 점자정보단말기에 넣어 가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합니다.
- **발표의 어려움:** 장애인 교사가 교직원 회의 및 연수에서 내용을 전달하거나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자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키워드를 적어 키워드를 확인하며 발표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내용을 읽으면서 진행할 경우 한 줄만 확인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의 한계로 내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을 찾아 확인하기가 힘들고 점자의 특성상 묵자보다 읽기 속도가 느리기에 내용을 놓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파워포인트의 경우 직접 넘길 수 있으면 직접 넘기면서 발표하고 직접 넘기기 힘든 경우 지원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 **착석의 어려움:** 혼자 회의에 참여할 경우 자리 착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인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혼자 회의나 연수에 참여해야 할 경우에는 동료 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김민수: 저는 신규 발령받아서 갔을 때를 생각하니 학교의 많은 업무가 있는데, 관리자분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지만 안 해봤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렵지 않은 업무를 좀 맡아서 조금씩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좀 이렇게 하 이렇게 계단식으로 맡아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방과후 부장도 아니고 저경력 교사이지만, 한국어 강사, 오케스트라 지도 강사 3명, 학부모회, 학교친목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 한잔 마시면서 몇 시간씩 이야기 하는 것을 참 좋아해서, 이분들과 접촉이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다음 해에는 같은 업무를 달라고 하여 작년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핵심은 업무 중에 한 가지는 잘 할 수 있도록 전문화 할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질문 선생님은 처음에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김민수: 저는 처음에 뭐 00교육 이런 것만 다 떼서 뭐 다문화교육 인성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처음에 문서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가 5년 동안 일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그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데 그거를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잘 하는게 되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문화, 학부모회하고 제가 5명이나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학교 친목회장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 그러면 초반에는 문서 관련된 거를 위주로 업무를 하다가 조금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선생님의 개인적 성향과 능력에 따라서 확장시켜 가는 그런 계단식 방법을 선생님은 추천하신다는거죠?

> 신규 교사로 발령났을 때 업무를
> 단계적으로 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민수: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무 파악을 제가 안 해본 일을 알 수 없잖아요. 제가 학교 업무 해 보니까 약간 팁 이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혼자 공부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핵심만 파악해서 하면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더라고요. 그게 업무에 센스가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 가르쳐 줄 사람들한테 많이 질문해야 되고 동료 교사가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래서 뭐 관리자분들한테도 그냥 좀 용기를 내서 끊임없이 물어봐요. 그리고 관리자분들도 제가 장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해주시고요. 용기를 내셔서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 용기를 내서 장애에 대해
> 말하고 질문해야 함
>
> 교육청 연수의 경우에는 직접 미리
> 연락드려서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솔직하게 의견 교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 안 하면 불편해지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연수도 심지어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그런 대규모 연수나 이런 거를 갔을 때 뭐 자료 준비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말을 안 하면 뭐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담당 연구사나 이런 분한테 미리 전화해야 돼요. 미리 전화해서 이런 거 준비되냐 제가 이런 상황인데 대형 모니터 준비되냐 휠체어 준비되냐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그 연수를 기획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된다.

추가질문 5년 됐으면 비교적 최근에 연수를 받았는데도 미리 조사가 안되었나봐요?

김민수: 교육청에 가서 소프트웨어 연수도 받아야 되고 뭐 하는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그 속도도 못 따라가고 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추후에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인터넷 사이트나 관련 어떤 연수를 들으면은 이거에 대한 오늘 들었던 연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1번 더 찾아봤던 거 같고요.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근무지에서 연수원이 거리가 100킬로미터였어요. 근데 기숙사 이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우선권은 있지만 기숙사는 이용할 수 있는데, 식사 제공은 안 된다. 예를 들면 소수의 어떤 5명을 위해서 큰 식당을 운영할 순 없다는 제약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전에 안내가 좀 미흡하니까 결국은 당사자인 저희가 그것도 일일이 좀 전화해서 연수원에 전화해서 확인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교통편마저도 저희는 운전을 못 하잖아요. 교통편 마련 정도 그게 순전히 개인적인 그걸로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연수원에 왜 연수생 게시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 지역에서 가는 사람을 제가 모집을 했어요. 제가 모집을 하고 제가 버스를 대여 대절을 할 테니까. 같이 다니실 분이 있냐 근데 그것도 비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10명은 모아야 하더라고요. 비용처리가 교육청에서 안 되고 그냥 거리에 준하는 출장비만 지급을 한 대요. 이제 설득을 했죠. 제가 다 게시판에 글 올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연수 대상자 명단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버스 대절할 테니까 같이 타고 다니실 의향이 있는 분들 찾았어요. 그때 운이 좋게도 10분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버스를 대절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서지 않으면은 누군가가 절대 해결을 해주지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연수원에서도 몰라요. 안 그러면 저는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 연수를 못 받잖습니까? 그래서 항상 용기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적용 사례

시각장애가 있어서 SW 연수, IT연수, 등 실습을 해야하는 연수는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참석해서, 듣고,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를 위해서 연수시설을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서 얼굴 비춰야 합니다. 조직문화가 혼자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사 경우에 사전에 강사연락처를 받아 협조 구하세요.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1정 연수를 가도 보조공학기기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듣고, 메모하고 나중에 집에와서 추가로 찾아보고 연습했습니다.

남관영: 저는 지금 이제 특수교육 총괄이랑 이제 장학금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그 업무 지금 3년째 맡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관리자께서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요. 작년에 기한을 한 100개 정도 했는데 올해도 합쳐서 100개 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문서 이런 쪽으로는 앞서 선생님들 말씀해 주셨듯이 시각장애 선생님들이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문서 쪽은 잘하는 거 같고요. 관리자께서 이제 다른 업무도 좀 더 많은 업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업무를 맡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적용 사례

작년엔 기안을 100개 올해도 기안을 100개 넘게 할 것 같다.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서 관리자들에게 인정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공개수업을 통해 동료교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경험도 있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들면서 관리자로부터 업무를 더 맡아야하지 않겠냐는 압박을 많이 받았다. 관리자께서는 장애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무조건 못한다가 아니라 현재 장애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협의를 하는 편이 좋은 해결방법이 될 것 같다.

일상적인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다. 이동에서부터 급식, 교육활동 교내외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는 편이다.

추가질문 선생님 연수 관련된 얘기나 교직원 회의는 어떻게 도움을 받거나 선생님 스스로 해결하고 계세요?

> 저시력의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남관영: 저는 이제 저시력이기 때문에 예 이제 뭐 미리 파일을 받아서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게 아니고 그거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유인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폰 카메라로 해서 이렇게 보거나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확대해서 그냥 폰으로 보거나 거기서 듣고 들어서 아니면은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독서기를 따로 보던가 다른 연수 이제 자율연수나 특별한 연수는 동료들이 도와주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추가질문 동료관계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선생님 보조공학기기 같은 것도 지금 활용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공담에서 지원 받았나요? 시교육청에서 지원 받았나요?

남관영: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고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신청을 해서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도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받기까지 네 3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때까지 좀 공백이 있었구요. 그거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도 활용하고 있구요. 행정업무 하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종이 유인물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걸 좀 확대해서 보거나 이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저는 도교육청에서 대형 모니터 지원받았습니다. 학습학생이 IT 기기에 익숙하다면(익숙하게 연습시킬 수 있다면) 수업은 많이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의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는 교사가 재구성하면 됩니다. 개인의 신체적 조건이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센스와 아이디어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원인력에게는 학생안전과 생활지도를 부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최지욱: 스크린리더로 나이스에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외에 학급 운영에서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저기 그 교직원 공제회 같은 경우에 옛날에 무장애 교육 프로젝트로 없어졌고요. 그러고 대부분 고용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또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 보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남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적용 사례

연수자료의 글씨가 너무 작고 티비 화면이 보이지 않아 불편했던 적이 많았다. 바쁜 선생님들이 배려해주시기는 힘들 것 같고 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다.(폰 카메라로 확대하여 보기 등)

참 고

◆ 보조공학기기를 통한 학급 운영에서의 활용 사례는 많지 않음.
◆ 지원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지원인력의 학급 운영 지원 역할은 다음과 같았음.

1. 학생 출결 등 확인
   조례 및 종례 시 공석, 지각 학생 등 출결 확인 지원
2. 학생 관찰
   학생의 건강 상태 등 확인 지원
   학생 교우관계 관찰
   학생의 급식 등 식사 관찰
3. 학급 활동
   학급 활동 준비 지원
   간식 등 구입, 배부, 정리 지원
   학생 안전 지도 감독 지원
4. 문서 작업 지원
   출석부 및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정리 등 지원

질문 마지막으로 신규장애인 교원에게 수업운영, 학급운영, 업무수행에 있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TIP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이윤주: 학부모나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는 장애에 대하여 솔직하고 덤덤하게 대하는 것이 수업이나 기타 상황에 있어서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신임을 처음부터 얻지는 못하겠지만 학생을 위하는 마음을 전달하면 대다수의 경우는 마음이 쉽게 열리시는 것 같아요.

김민수: 저도 잘 못하는 입장이라 조언할 팁은 없고, 항상 침착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다듬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구조가 부조리할 수도 있고, 교육제도와 학교 운영 시스템도 오류가 많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겁니다. 잘하려는 마음은 너무나 귀하지만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좋습니다. 퇴근 후에는 꼭 내가 좋아하는 일로 삶에 균형도 맞추시고, 하고 싶은 말은 꼭꼭 다 하면서 학교생활 하세요. 최악의 상황에는 휴직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즐겁게 학교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관영: 처음 모든 것이 어렵고 낯설 것입니다. 장애로 인해 주변에 피해가 될까 두려움도 클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신규 교원 연수와 한시적 기간제 선생님을 고용하여 코티칭 하는 것,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인을 고용하여 활용하는 것, 보조공학기기 지원받는 것 모두 신청하여 배웠고 현재까지 교직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최지욱: 컴퓨터 활용능력 기르기: 시각장애인의 경우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능력은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냐입니다. 시력의 제한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컴퓨터 활용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업무를 파악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친분 쌓기: 비장애인은 장애인과 업무처리 방식(예: 키보드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시각장애인, 마우스를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비장애인)이 달라 업무를 비장애인에게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업무처리가 힘들 경우 친분이 있는 비장애 교사에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고 자주 사용해서도 안되는 방법이지만 부탁을 할 수 있는 친분 있는 교사를 몇 명 사귀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지원인을 동반자로 여기기: 장애 교사는 지원인을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으로 여기고 지원인은 자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잘못된 경우이고 고쳐나가야 할 관계지만 장애 교사의 경우 지원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만일 들어주지 못할 경우 이유를 꼭 설명하여 지원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 교사는 지원인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둘의 팀워크가 좋지 않다면 지원인은 물론 장애 교사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네트워크 활용하기: 시각장애인 교사들이 모여 있는 교사회 등에 가입하여 시각장애인에게만 배울 수 있는 업무 팁 등을 확인하고 습득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가지기: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귀찮다는 이유로 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듣고 귀찮다는 이유로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부탁할 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장애 교사의 경우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능력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귀찮더라도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부탁도 적극적으로 들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일들이 모여 장애 교사지만 능력이 뛰어나고 성격도 좋다는 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이제 그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아니면은 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적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려야지 해놓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결이 안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2 청각장애인교원 우수 활동 사례

:: 인터뷰 참여한 선생님 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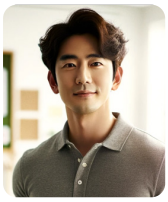
김진아

김진아 선생님은 인천 송원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3년차 경력을 가진 담임 선생님이다. 선천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청각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조용한 곳에서는 대화가 가능하지만 조금 시끄러운 곳에서는 대화가 많이 불편하다.



안00

안00선생님은 일반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1년차 경력을 가진 도덕 선생님이다. 안00선생님은 후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갖게 되었다. 안00 선생님은 조용한 공간에서 1:1대화나 휴대전화 통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나 3인 이상이 거리를 두고 이야기할 경우에는 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허00

허00선생님은 00고등학교 에 근무하고 있는 16년차 경력을 가진 특수교사이다. 허선생님은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고, 보청기를 착용하고 입모양을 보아야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이00

이00선생님은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15년차 특수교사이다. 후천적 청각장애인이며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착용하여 사람들과 소통한다. 입모양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러 명의 사람과 이야기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



이△△

이△△선생님은 서울정문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교사이다.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다. 오른쪽 귀에는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왼쪽 귀에는 보청기를 착용하고 소리를 듣는다. 가까운 곳에서 말하는 소리는 듣고 변별할 수 있어서 대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음이 심한 상황애서나 입모양을 가리면 듣는 것이 힘들다. 기계를 통해 듣기는 하지만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

:: 우수 활동 사례 인터뷰 결과 ::

1) 수업운영

질문 학생과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업 운영 팁이 있을까요?

>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가 먼저'
> '우리끼리 정한 수신호'

김진아: 한 가지 팁은 학생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새학기 첫날부터 PPT로 인공와우가 무엇이고 보청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못 알아듣는다고 분명하게 밝혀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저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가 말하는 동안에는 다 같이 조용히 있기로 약속을 했어요. '합죽이가 됩시다' 라는 말도 저는 합죽이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이들끼리 구호를 정했어요. 현재 저희 반 아이들 구호는 푸른 용이거든요. '푸른 용이 됩시다' 하면 아이들이 조용히 있고 긴급한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손가락 수신호 같은 것을 넣으면 아이들이 다 같이 서로서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손 동작으로 다 조용히 하기로 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교실에 급한 전화가 오거나 혹은 상담을 해야 할 때 사전에 약속한 손동작하나로 아이들이 조용히 하게 되니까 원활하게 대화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상황을 잘 모르면 공감도 안 되고 약속도 안 되고 소통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용 사례

1) 소통 방법 약속하기

학기 초에 교사의 장애를 미리 알리고, 교사와 학생간 수업 활용시 약속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기호를 사용하여 발표의 유형을 발표, 같은 생각, 조용히, 화장실 등등 기호로 구분하였습니다.

2) 주의 집중 구호 및 약속 만들기

아이들이 떠들 경우 교사와 학생간의 피드백이 상당히 어려워지므로 저는 학급별로 집중 구호를 3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반이 됩시다. (용) / *학년! *반! / ( )을 보세요! /

3) 학급 상담시 개별 일대일 상담

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1대1 상담을 지속하였고, 직접 교사가 이동하여서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기 어려운 경우 반장이나 발음이 또렷한 친구에게 도와주도록 지시하습니다.

> '장애학생이여도 얼굴을 보고 말해주는 등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할 수 있어요'

이00: 조용히 할 수 있게 하는 신호를 정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지적장애나 자폐를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따라서 조금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처음 만날 때 제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 얼굴을 꼭 보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인식을 하고 얼굴을 봐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약간 특수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인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약간 인지 수준이 좋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코로나 때도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해 주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입 모양을 봐야만 이해를 한다는 걸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수학급에 있을 때 저희 반 애들이 굉장히 똑똑한 편이었는데 첫날 선생님이 입을 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방송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화가 왔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신 전달을 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생들한테 저는 다 하나하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자폐아이들은 눈 맞춤이 쉽지 않은 대신 얼굴은 보여주려고 노력은 해줘요. 꼭 눈 맞춤을 하지 않더라도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입이 보여야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눈은 마주치지 않더라도 얼굴은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적용 사례

학기 초, 첫 만남에서 학생들에게 저의 장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얼굴을 보고 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 '본인의 장애에 대한 한계를 스스로 먼저 인정해야'

허00: 주로 수업 중에 시험과 구체물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라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본인의 장애를 인정하고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피하기보다는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학생들도 본인이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00 선생님처럼 저희도 서로 배려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업 운영에서 자리를 원형으로 배치해서 모두가 저를 바라볼 수 있게 저도 학생을 모두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적용 사례

청각장애교원은 청력손실도, 보장구, 구어 읽기 능력 및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입니다. 다른 장애영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요. 학생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가까이 가서 학생들이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며, 보통은 지원인력의 통역으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 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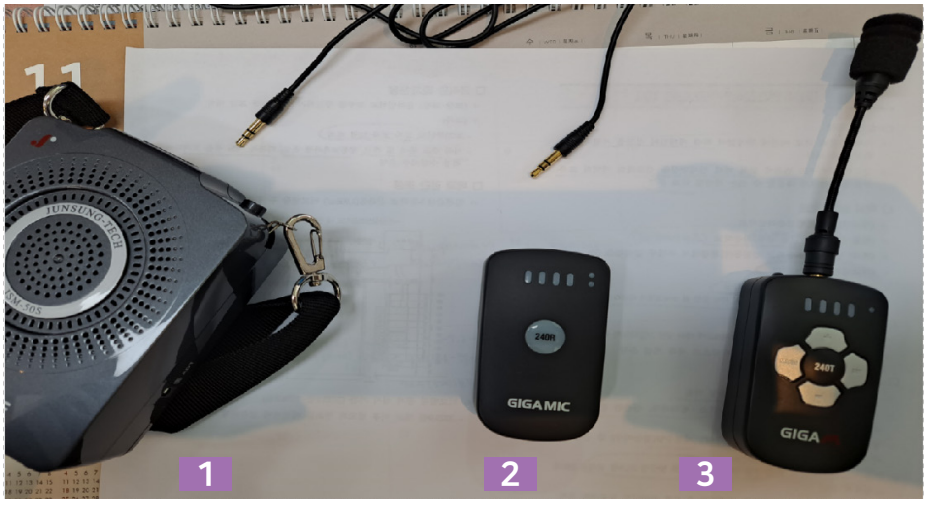
> '난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업을 열심히 했어요.'

안00: 저는 허00선생님처럼 지원 인력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경도 청각장애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전부터 제가 오랫동안 난청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업을 무난히 넘기는 그런 방법을 혼자서 터득해 왔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매년 수업 내용을 작년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계속 계속 업데이트 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제가 난청에 단점이 있지만 다른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약간 학생들 사이에서도 "선생님이 난청이 있지만 수업을 충분히 잘하셔."라는 생각에 안도하고 따라오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적용 사례

- 무선 스피커와 마이크 사용
- 학기 초에 몇 가지 사항 안내 : 발표 시 손을 들고 말하기, 발언은 크게 또박또박 말하기, 중요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와서 따로 말하기
- 온라인 플랫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문자로 제출받고 함께 보면서 추가 발언을 하도록 함

적용 예시



무선 스피커(1)와 수신기(2), 송신기(마이크) (3)

> '얼굴을 바라봐야하는 청각장애 특성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더라구요.'

이△△: 저는 특수학교 초등부라서 학생들이 보통 자폐성장애 1급. 6명 중에 5명 정도의 비율로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학년을 많이 맡았어서 자폐 아동 특성상 다른 사람이 장애를 갖고 있다까지 인지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아이들이 말할 때 제가 앞에 가서 잘 들으려고 눈을 쳐다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폐의 특성이 원래 눈 맞춤을 잘 하지 않잖아요. 매일 제가 눈 맞춤을 하고 앞에서 쳐다봐서 그런지 다른 선생님들도 하는 말이 "선생님 반 아이들은 다른 반 아이들보다 눈 맞춤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허OO 선생님께서 원형 배치 말씀하셨는데 저도 반원형 배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반원형으로 이렇게 되게 배치하고 제가 가운데에 들어가서 수업을 해요. 원형 배치를 하면 뒤쪽에 빠지는 학생들이 안 보여서. 반원형으로 된 상태에서 제가 서서 모든 학생을 주시하고 있어야 혹시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 시야에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반원형 배치를 선호하고요. 수업할 때 웬만하면 교실 창문을 닫아서 바깥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안 들리게 하고 교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웬만하면 다 캐치해서 수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적용 사례

- 책상을 반원형으로 배치하여 수업 중 학생들과 1대1로 상호작용하기 쉽도록함
- 수업 중 창문을 닫아 외부 소음이 적게 들리도록 함
- 담임을 할 때는 가급적 전자칠판이 설치된 교실로 배정받아 수업에 활용함
- 교사용 컴퓨터의 모니터를 를 수업하면서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컴퓨터를 조작하여 수업을 진행함

우수사례

:: 이성현 ::

제가 장애를 가지고 난 후 첫 학부모 공개수업에서 비장애인이였을 때처럼 수업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조금 소음이 있었던 수업 상황에서 제 뒤에 있던 학생이 저를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제가 그 학생의 부름을 무시하였다고 오해하셨고 이를 참관소감록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비장애인교원과 다른 수업운영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고 차후 교직원 장학수업을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교원으로서 원활한 학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 학생들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 규칙을 정한다.
- 학습상황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 학습 흐름을 점검하며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장면에서 언어적인 소통방법 외 다른 소통 방법을 찾아 적용한다.
- 학생의 예상 발문을 미리 생각하여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한다.

위와 같은 원칙으로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이 자신과 소통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제 눈을 보로 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 중 할말이 있는 경우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보다는 손을 들고 허락받은 후 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과 가까이 하며 소통하기 위해 칠판에 서있기 보다는 학생들 사이사이에 서서 수업을 이끌어나갔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대부분의 교실에 전자 칠판이 설치 되어 있어 원격으로 칠판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도 교사가 가까이 있으니 학생들의 학습 자세에 자극을 주고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지도 빨리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평소에 규칙적으로 매번 학습 흐름과 규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습하여야 합니다. 또 학생들은 교사가 잘 파악을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대화를 답답해해서 하려던 말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학생들에게 생길 수 있는 부족함이나 필요한 것이 있는 지 등을 먼저 세심히 봐야 합니다. 청각장애인교원은 소음이 많은 환경을 어려워합니다만 적극적인 활동이나 참여로 인한 소음은 교사로서 반가운 환경입니다. 통제가 안되어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소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에서 하여야 하는 일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추가적인 문의가 많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업의 흐름이 계획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적절한 제안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조심하기도 했습니다. 수업 중 학생들이 우루루 몰려와 소통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지만 일부학생들은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게속 하기도 합니다. 이 습관을 쉽게 고치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상황을 방차한다면 쉽게 어수선해지고 학생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에 이야기를 전달하여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장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지도 측면에서 규칙이나 알아야 할 것들을 사전에 미리 안내하고 잘못된 습관을 가진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규칙에 의해 활동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유난히 목소리 작은 학생 특히 단어로만 이야기하는 경우 듣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경우 소리를 글로 바꾸어지는 어플을 이용하거나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글로 써보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학생들이 교원의 장애를 지적할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 '소통의 속도가 느리더라도
> 정확하게 소통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요'

김진아: 사전에 미리 교사의 발음이 좋지 않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첫날부터 제 장애를 다 공개를 했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조금 더 배려를 많이 해요. 사실 저는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말한 거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들리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줘요. "너가 OOO라고 했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웃다가 이제는 선생님이 저렇게 알아들으시는구나 하고 다 제대로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반장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고 누가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 수업 때는 그러니까 발음이 명확한 아이들이 다시 설명해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정 안 되겠으면 "그러면 너가 나와서 말한 거를 칠판에 적어 봐." 이런 식으로 아예 얘기하기도 하고..저는 정확하게 피드백하고 반응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느리더라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그런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발음지적은 OK 비하발언은 NO

교사가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 선생님께 알려서 선생님 다시 말해주세요. 선생님 그 발음은 이렇게 해야해요 라고 알리기로 했습니다. 교원의 발음 지적시, 기분 나빠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시되, 오히려 알려줘서 고맙다는 태도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경우 그 말은 상당히 무례가 되는 말임을 지도하였습니다.

이00: 지적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학생들이 저의 발음을 지적한 경우는 없었어요. 사실 저는 발음을 지적하기보다는 못 듣는 걸 지적하는 게 있었는데 그 친구의 학부모님은 좋은 분이라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청각장애를 가진 선생님은 못 들을 수도 있어서 네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시는 학부모님은 있으셨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학부모님만 있었던 건 아닌데 이건 잘 풀린 사례였어요.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좋은 분들만 만나면 좋지만 좋은 분들만 만날 수 있는 비법은 없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인식 수준을 그렇게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다만 항상 나쁜 사례만 있지 않고 좋은 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00: 2020년도에 장애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제가 학

> '못 듣는 것을 지적하는 학생의
> 태도 지도에 학부모님이 협조해주셨어요.
> 참 감사했습니다.'

교를 옮겨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업을 담당했는데 이 학교가 학생들이 조금 학구열이 높고 예의 바른 학생들이 있는 편이거든요. 학교 분위기가 좀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한 반에 학생들이 33명 정도가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경도이기도 하니까 경도가 아니라 중증이어서 선생님이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러면 계속 인지가 될 것 같은데 중증이 아니다보니 얘기해도 제가 청각장애라는걸 아이들이 인지를 못해요.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니까 나중에 가서도 월말 되니까 12월쯤 가서는 제가 이야기하다가 선생님이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잖아 하니까 애들이 학기초에 들었는데도 새삼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거든요.

> '장애가 경하다보니 이야기해도
> 잊어버릴 때가 많아'

우수사례

:: 이성현 ::

학생이 교사를 놀리거나 흉내를 낼 수 있고 동료교사가 학생들에게 저의 장애를 알려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이렇게 수업 전반을 열심히 진행해보려고 노력하였더니 저는 동료장학에서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에게서 훌륭한 수업이였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장애인 교원도 수업활동을 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도 학습활동에 만족하였습니다. 보통 5학년 되면 일부 학생들이 교사의 실력을 가늠하여 평가하며 뒷담화를 하거나 따지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저의 교육경력에서 한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질문 이동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예.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능 활용)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 일과 중에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늘 착용함

김진아: 상시 착용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말을 잘 듣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교실이 시끄러운 경우, 핸드폰과 인공와우가 연결되는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긴급한 연락 사용에 이용하였습니다.

> '인천교육청의 지원덕분에 무선 마이크와 수신기를 구입해서 수업에 활용했습니다. 학생들간 소통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이00: 보청기와 인공와우는 일상적으로 늘 착용하고 있구요. 보청기와 인공와우는 항상 착용하여 전반적인 의사소통(회의, 수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00: 저도 일과 중 업무 시간에 보청기를 항시 착용합니다.

안00: 제가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저는 인천시에서 문자통역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 예산으로 무선 마이크하고 수신기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무선 마이크 두 대를 활용해서 하나는 제가 수업할 때 쓰고 하나는 학생들이 발표를 하거나 할 때 활용하는 용도로 썼는데 그리고 나중에 소감을 들어보면 목소리가 작은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마이크 2개를 들고 가서 수업을 하니까 '자기가 목소리가 작아서 어느 순간부터 발표를 안 하게 됐는데 선생님 마이크를 써서 자기도 발표를 더 잘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저희가 2020년도나 코로나 상황이라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교실 앞쪽과 대각선 끝에서는 이야기를 하면 웅얼웅얼하면 끝에 있는 애는 못 알아듣는 상황인데 마이크를 활용했을 때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거창하기는 한데 음성과 문자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학습 설계가 제 수업 시간에는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 즉석에서 하는 말을 바로바로 인지하기는 어려워서

> '청각장애인교원의 수업에 도움이 되었던 온라인플랫폼'

의견을 받을 때, 어떤 것에 대해서 찬반 논쟁을 한다거나 자기의 의견을 받을 때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활용했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기 생각을 먼저 제출 받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화면에 띄워 놓고 같이 보면서 이런 어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한다

거나 보조적인 그런 설명을 조금 더 요한다거나 했을 때 중요한 내용들을 이미 아이들이 문자로 제출한 상황이라 추가적인 의견을 즉석에서 하더라도 내용 맥락은 교사가 파악하기에 쉬웠던 것 같습니다. 팅커벨이나 패들렛을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적용 사례

보조 공학 기기보다는, 송신기 기능으로 '무선 마이크와 스피커'를 활용하였음.

스피커(수신기)를 교사 옆에 두고, 무선 마이크(송신기)를 교사용 1대, 학생용 1대로 활용하여 수업 시간 발표 및 발언 시 마이크 사용을 일상화하였음. 발표 시 학생용 마이크(송신기)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교사와 다른 학생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임. (예: 목소리가 작아 발표를 꺼리던 학생이 도움을 받았음을 전함, 코로나19 상황 시 마스크 착용으로 교실 끝자리 학생의 발언이 잘 안 들리던 상황을 개선함)

이△△: 상기기 구입을 할수도 있는데 저는 수업할 때 교실 배정을 받을 때 가능하면 전자 칠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실을 배정 받아요. 제 수업과 동시에 화면에 관련된 이미지나 영상을 띄워줘서 학생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이미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수업 진행에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교사 컴퓨터가 따로 멀리 있으면 조작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 특성상. 그래서 전자칠판을 활용하면서 교사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제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배치하고 무선 마우스와 무선 키보드를 제 앞에 갖다 놓고 바로 앞에서 조작하면서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과 교실 안에서 학생들이 움직임을 제가 한눈에 다 보면서 파악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런 배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 저희 학교가 전자 칠판이 저학년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다가 다행히 올해 2학기 때는 전교에 설치가 되었어요.그래서 다행히 지금 제가 들어가는 모든 교실에 전자 칠판이 있어서 수업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전자칠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편했어요.'

적용 사례

- 인공와우와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수업 중에는 상시 착용함.
- 강당수업 등 넓고 시끄러운 장소에서 수업할 때는 인공와우기기의 프로그램 설정을 넓은 공간에서도 잘 들릴 수 있는 설정으로 변경하여 사용함.

질문 지원인력과 함께 근무하는 경우 수업운영에 어떻게 도움을 받으셨나요?

> 협력교사제를 활용
> 속기사를 채용해서 음성 통역을 함
> 지원인력을 활용함

김진아: 저는 협력 교사제를 활용하였어요.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교사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협력 교사 선생님이 계셔서 개별적으로 피드백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세요. 일반교과다 보니 협력 교사제가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00: 저는 보조 공학 기기는 안 쓰고 2021년부터 속기사를 채용해서 속기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수업 장면에서 제 시야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아 제가 알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다면 속기사님께서 음성 통역을 해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 위험한 것 같다. 애가 화장실 급하게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음성 통역을 더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허00: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전달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말을 전달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발음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학생들도 이해는 하지만 수업 초기부터 제가 장애가 있기에 너희들이 어떻게 좀 해 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OO 선생님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하는 말을 학생들이 알아들으면 지원 인력은 그냥 넘어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정확성이 요구되면 그때 지원 인력이 개입해서 도와주는 편입니다.

적용 사례

청각장애를 지닌 교원의 경우 저의 말을 학생에게 전달해주고, 학생이 하는 말을 제가 알아 듣지 못하면 지원인력이 저에게 알려주는 편입니다.

우수사례

:: 이성현 ::

저는 학생들의 학습 상황, 의견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미러링을 통해 화면을 공유하거나 협업공유어플을 활용하였습니다. 학부모 동의나 학생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은 어플 위주로 활용하였고 필요시 학생의 아이디와 비번을 교사가 지정하여 학생의 학습과 결과물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사설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예시가 필요한 경우 미리 사진이나 동영상을 준비하여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교사에게 별도로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줄였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는 화이트보드사이트를 확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결과와 의견을 작성하도록 해서 같이 화면을 보며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핑퐁 어플같은 게임처럼 퀴즈를 풀 수 있는 어플이나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즐거운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 후에 평가를 하였는데,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소크라티브, 네이버폼같은 설문지, 카옷, 핑퐁 등의 퀴즈 및 질문 어플을 학습내용

이나 효율성을 고려하여 활용하였습니다. 이 과정과 수업장면에서 장애인교원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이 많이 없다고 느껴서 소프트웨어 지원도 자유롭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교육청에서 장애인교원용으로 대여해준 스마트패드를 수업에 활용하였는데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많이 유용하였습니다. 2024년 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주었는데 그 예산으로 청각장애인용 노트북이나 내선전화기를 구입하여 좀 더 수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학생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문자통역을 통해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눈을 보는 것이 우선이기에 문자통역을 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였지만 문자통역을 활용한 덕분에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느낍니다. 또한 보청기 내 소음 속 말소리 라고 하는 기능 덕분에 비장애인 교원이 못듣는 작은 소리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2) 학급운영

질문 장애가 있어 담임을 거부해야 하는지, 장애가 있지만 담임을 하여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적극적으로 장애를 알리는 것을 추천함
> 담임을 하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익숙함

김진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가르치는 반이 세 번째 담임이거든요. 담임을 맡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계속 청각장애 선생님들도 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익숙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저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담을 하는 경우에 특히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여러 반을 맡게 되니까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익숙해지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는 담임이 조금 더 저희에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학기 초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모르고 계실 때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학부모님들에게 저에게 어떻게 연락하는 게 좋은지 저는 편지를 적었어요. 23년도는 아예 그냥 편지 형식으로 나갔는데 올해부터는 아이들 학습 안내표와 같이 저는 청각장애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하이클래스라고 알림장 앱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보다는 알림장 문자로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학부모 상담도 대면 상담이 훨씬 좋다. 혹시 원하시면 대면 상담으로 신청하셔라,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큰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옆 반 선생님이 대처할 수 있도록 부장님 반 옆 반을 배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연구실, 저희 학년 연구실하고 부장님 반 사이에 있는 교실을 항상 배정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에 무슨 일이 생기면 경력이 많은 선생님께서 가끔 와서 도와주실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질서가 안 잡혀 있다. 그러면 경력이 많은 선생님께서 와서 "얘들아, 앉아라." 하면 다 앉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으려면 관리자, 주변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한테 다 알리는 게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인식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

는 오히려 그거를 알림으로써 제가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청각장애가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굉장히 잘 돌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이 좋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적용 사례

담임교사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담임교사가 더 편한 것 같아 계속 담임교사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1) 학생들의 말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1년동안 우리 반 아이들에게만 적응하면 됩니다.
2) 학기 초에 장애와 관련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미리 알리면,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아이들과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3) 아이들의 태도 – 우리반 담임선생님은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다른 반 아이들보다 교사에게 훨씬 배려를 잘합니다.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4) 담임교사만의 특권 – 수업을 담임교사의 상황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듣고 교사가 피드백해주는 것보다는 친구 동료가 피드백해주는 식으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5) 동료선생님의 도움 – 담임교사를 할 경우, 수업 준비에 있어서 동료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인 경우 도움을 받기 힘들어요.

허00: 저경력이시라 부럽네요.(웃음) 저는 교사로 임명되면서 두려움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임을 하든 안 하든 무엇을 맡든 그거보다는 내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면 장애가 있는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겠는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교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는 편이고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도 저의 장애를 알려주듯이 학부모에게도 저의 장애를 적극 알렸습니다.

> ‘선배 교사가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학급에 있을 때는 개별화 회의 때 그리고 알림장을 통해 저의 장애를 알려줬습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부모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애가 1학년일 때 학부모 요구대로 2반 담임 선생님으로 교체해 주었고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제가 담임이 되었을 때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선생님 해보고 나니까 느끼신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급으로 갈 때 저의 장애로 인해 교감선생님 간에 트러블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장애교사를 받을 것인가 말것인가.. 저는 그것을 알고도 묵묵히 저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 하였고 그 이후 관리자분들의 우려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후에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처럼 숨기기보다는 장애를 이야기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묵묵히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함
> 숨기기 보다 장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정석

적용 사례

저는 교사로 임용되면서, 딱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자녀가 있다면, 장애를 지닌 교사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을 보여주거나, 거부해야 하는건가 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00: 저는 담임을 맡는 것은 상황을 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실 사람들이 담임을 안 맡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담임을 맡는 걸 별로 원치 않거든요. 아무래도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도 있지만 저 같은

> 관리자에게 전화 통화의 걸림돌을 말함
>
> '저는 담임맡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장애보다는 개인 성향에 따른 선택인 것 같아요.'

경우에는 성격 자체가 걱정이 많고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전화 통화의 걸림돌이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리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어요. "전화 통화가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어서 문자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와중에 또 글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또 전화를 해야 하는데 제가 전화를 못한다. 그게 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속기사를 채용해도 속기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제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저 자체는 담임을 선호하지 않는데 이것은 장애보다는 개인 성향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장애인 선생님이 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장애 이유가 아니라 성향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적용 사례

담임을 선호하시는 청각장애인 선생님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을 선호하는 성향은 아닙니다. 특히, 학부모와 전화통화가 불가능함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큰데 이걸 개의치 않아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 것을 보면 담임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개개인의 성향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개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문제라 해결 또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00: 저는 2020년도에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특별한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으니까 난청이 있어도 난청이 있을 정도면 수업도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교 측에서. 그래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담임을 계속 했었고 그때는 제가 담임을 맡으면서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청력이 약하니까 너희가 말을 할 때 손을 들고 말을 하고 큰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해달라. 중요한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와서 따로 꼭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당부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볼륨을 최대로 한다거나 하면 부

> '장애가 있다고 말하니 오히려 주변에서 당황해해요. 그래서 청력이 약하다 정도로만 얘기해요'

모님과도 전화 통화는 가능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뭐 난청이 있다거나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그걸 밝혀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담임을 맡는다고 한다면. 지금 제 상황, 경도의 청각장애고 어느 정도의 전화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청력이 약하다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도 고려해서 그 정도의 이야기는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고 나서 처음에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는 잊어버렸지만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반응들 중에 애들 중에는 너무 놀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일반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이 청각장애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당황하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 약간 좀 과하게 어쩔 줄 몰라서 선생님한테 우리가 뭔가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게 행동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정확한 답은 모르겠지만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정도, 청력이 약하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 정도, 이 정도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고.

적용 사례

2020년 중도 장애 진단을 받음. : 공식적으로 장애를 밝히지 않아 담임을 맡았음. 경력이 쌓이기도 해서 부장 교사를 담당하고 있음. 본인의 상황(경도 청각장애, 담임 경력 충분)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양해를 구한다면 담임을 할 수도 있다(담임을 맡아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이△△: 제가 초등 특수교사다 보니 학부모님들과 항상 긴밀하게 연락하고 얼굴 매일 봐야 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장애가 있다, 없다 말하기도 전에 부모님들이 이미 저 선생님은 안 들리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발음도 그렇고 갑자기 말씀했을 때 못 듣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항상 장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담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 성향이 이OO 선생님이랑 비슷해서 학급을 책임지고 이러는 걸 가능한 안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경력이 15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특수학교 상황이 저경력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한번 정도는 관리자한테 말씀을 드려요. 와우 수술을 했기 때문에 교실에서 일어나는 돌발 상황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제가 담임이어서 부모님한테 말했을 때 관리자분

> '담임이 되기 전에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들께서도 수용해 주실 수 있는지. 대부분 여쭤봤는데 가능하다고,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면서 지금도 담임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는 다행히 순회 학급 담임을 주셔서 학급 담임보다는 부담이 덜한 걸 하는데 담임이 되기 전에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리 지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능하면 . 그래도 내가 장애가 있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학년을 맡아서 잘 운영하면 나에게도 좋고 학교에도 좋고 이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수사례

:: 최 별 ::

학급을 운영하기 전에 보통 담임을 해야하는지, 오히려 담임을 하게 되면 자신의 역량 부족이 모두 드러나지 않을지를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담임이든 어떤 업무든 뭐든지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딪쳐서 배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빨리 배워서 매를 미리 맞고 미래에 아직 맡지 않은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싶었어요. 지금 담임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게 될거니까요.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담임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담임을 맡아 학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존재하거든요. 학생 운, 학부모 운, 관리자 운, 동료교사 운, 나의 주변 상황 등등.. 그래서 이 부분은 담임이 하게 될 때가 오면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추가질문 선생님이 담임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경력 그다음에 학년에 특별하게 소리 지르는 게 많은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을 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요구 정도를 하신다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지금 순간 선생님이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게 선생님이 자녀분한테 조용히 해달라고 표시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여러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소통할 때 사용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랑 소통할 때도 제스처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학생들이 쉿 이런 표시나 이런 걸 보면 조용히 하려고 노력하고 소리 지르고 울면서도 제가 쉿 하고 가만히 서 있으면 참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일관성 있게 가만히 있거든요. 그런 거 그런 걸 좀 확대해서 보거나 이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학기초 학부모 및 학생에게 자신의 장애를 알리는 것을 추천하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리셨나요?

김진아: 추천합니다. 저는 새학기 첫날 아이들에게 피피티로 청각장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쭉 하고, 학부모님들께는 편지를 보내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설명 잘 해줘야한다며 보냅니다. 학부모설명회날 학교에 방문하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청각장애가 있어 교실 전화를 잘 못 들을 수 있다며 말씀드리고 문자로 남겨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답변 할 수 있다고도 안내하였습니다.

이00: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담임을 했을 때는 알림장을 통해서 안내를 했고, 교과전담을 할 때는 담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편입니다. 학생에게는 첫 만남 때 제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얼굴을 보고 말해달라고 강조를 합니다.

허00: 네 알리는 편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학급에 있을 때는 상담을 통해, 혹은 알림장을 통해 저의 장애를 알렸습니다.

이△△: 알리는 이유는 혹시나 생기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는 매 학년도 시작시기에 학생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협의회를 개최하는 데 이때 대면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

4학년 5반 학부모님께

안녕하세요! 따스한 봄과 함께 꽃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소중한 인연으로 새학년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올해 4학년 5반 아이들과 1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담임교사 김진아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편지로 첫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저의 교육철학과 학급 운영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점을 안내하겠습니다.

교육철학과 학급운영

저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누군가와 감정을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더욱 내면이 단단해지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주기적으로 "감정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며 스스로를 존중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함께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점

저는 현재, 청력이 약해 오른쪽 귀는 청력보조기구인 "보청기"를 오래전 부터 착용하였고, 왼쪽 귀는 인공달팽이관인 "인공와우"를 올해 이식하였습니다. 때때로 대화를 할 때, 특정 단어를 구분하지 못해, 정확히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도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기울여 듣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보다 더 행복한 5반을 위해 학보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째,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세요.
둘째,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과 제가 함께하는 학교 생활을 지켜봐주세요.
셋째, 궁금한 점이나, 염려되는 점이 있다면 꼭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문자로 문의주셔도 되고, 전화로 문의하실 때는 천천히 차분하게 말해주시면 더욱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선생님이 되어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긴 편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아 선생님-

질문 학부모 및 학생과의 상담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김진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부정적 인식은 없었습니다. 미리 알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잘 못 듣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해서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되도록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을 통해 직접면담 혹은 전화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고민 후 해결방안 제시 및 염려 덜어드리는 일련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네요.

> '학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인식은 제가 어찌 할 수 없는 영역이예요.'

이00: 저는 사실 학생들하고는 늘 잘 지냈던 것 같아요. 학생들과는 되는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오해 같은 것도 금방 풀릴 수도 있고 상황도 금방 금방 설명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화를 해서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지연이 되니까 오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듣기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사실 자기 애도 장애인데 장애를 가진 선생님이 장애를 가르친다는 거, 이거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의 인식과 생각의 차이인데 제가 절대 바꿀 수는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또 인식을 바꾸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제가 잘해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마음을 안 바꾸시는 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바꾸려고 노력하면 신규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 하면 다른 선생님한테 배치했다가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너무 잘해야 돼, 나는 이거를 학부모 인식을 바꿔야 해. 이런 것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학부

> '너무 부담스러워한다면 한발 물러서는 것도 좋은 방법'

모님들이 이렇게 원하시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제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있으니까. 저는 너무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청각장애 교사가 만약에 서울에 배치가 돼서 특수학교

> '학교구성원들에게 저의 장애를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에 들어간다면 사실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담임보다는 교과를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 담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교과로 왔을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교과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정말 많은 반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는 여섯 개 반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여섯 개 반에 들어가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반에 있는 실무사님도 있고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그 반 담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장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제가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학교에서는 만약에 교과로 가게 되면 한 반의 부담임이 되는데 부담임이 청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담임을 통해서. 저희 반 어머니께서는 사실 제가 장애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깜빡하고 뒤늦게 알렸다고 했는데 엄청 걱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새는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잖아

요. 그때 그거를 보고 나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 알리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학생들이 제 장애를 잘 이해해 줬던 것 같은데, 일부 학부모님들께서 장애를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인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생각을 제가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해결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00: 저도 학부모님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분의 인식이 그렇다면 그 분이 원하는대로 해주었습니다.

안00: 2020년 중도 장애 진단 받았는데, 장애 진단 이후 2020년과 2021년 담임을 맡았으나 장애를 밝히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었고, 2022년 학교 업무 상 학부모 매일 대면하는 상황에서는 경도의 청각장애가 있으니 말씀하실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때 특별한 부정적 인식은 느끼지 못했어요.

이△△: 모두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을텐데요.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던 시절, 마스크 너머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겼으나 마스크를 빼고 다시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려서 다시 잘 이해해서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해결하긴 했었네요.

우수사례

:: 최 별 ::

저는 학부모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모두 관계가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과 대화 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비장애인학생보다 더 솔직하여 저의 보청기나 발음을 보고 이상하다거나 귀에 끼는 것이 무언인지 등 직설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많이 당황하세요. 아직 학교 구성원에게 제 장애를 말씀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그런 일 때문에라도 학교 구성원들에게 미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또한 비장애인도 듣기 어려운 발음을 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인력이 없을 때에는 저의 장애를 탓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원인력이 있으니 지원인력도 학생의 발음을 못듣고 있다고 하면 학생이 저의 장애를 탓하지 않고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진작에 저에게 그렇게 말해주면 좋을텐데.. ^^ 덕분에 저도 위축되지 않고 학생 지도가 명확히 들어갈 수 있었구요.

질문 그 외 담임을 맡았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관리자의 우려,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학생들의 안전사고 관리 소홀 등)

김진아: 관리자에게는 청각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미리 설명을 해요. 학부모님들에게는 선생님이 청각장애가 있다면 자녀들의 말을 잘 안들어준다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그 편견을 깨부셔줍니다.(웃음) 그리고 학생들이 저에게 안전사고를 알려줄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전달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사고가 벌어지거나 욕을 하는 경우 알려주는 데 항상 고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더라구요.

> 함께하는 문화
> – 학생들이 알려줌
> –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의 도움
> – 지원인력의 도움

이00: 특수학급에서 담임을 맡았는데, 일단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전화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연락을 할 일이 많았는데 전화 통화가 바로바로 되지 않으니까 일 처리가 지연되었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전화 통화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할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곤란했습니다. 그럴 때도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으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허00: 저도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발령나면서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요. 관리자는 전임학교 교감에게 제가 어떤 장애교사인지 물어보기 위해 연락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교육청은 저를 학급에 배치한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학급에서 담임으로서 일할 각오를 하였기 때문에 크게 힘들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간 최선을 다해 학급 운영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차츰 우려가 줄어들었습니다.

안00: 제가 장애 진단 받고 나서 담임을 하진 않았고 학교 업무에서 도서관 업무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들께서 학교 도우미로 매일 오세요. 도서관 일을 도와주는 일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경도의 청각장애가 있으니까 말씀하실 때 고려해달라 했을 때 소통이 크게 어렵다거나 부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배려하셔서 가까이에서 크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까 한 이야기지만 소리지르는 학생을 배정받아서 청력 저하가 오고 힘들었어요. 그때를 계기로 소리를 덜 지르는 학생이 적은 학급의 담임으로 배정받았었어요.

적용 사례

학부모와의 상담 시

- 대면 상담 : 가급적 조용한 공간에서 1:1로 이야기하려 함
- 비대면 상담 : 볼륨을 높일 수 있는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통화함

학생 상담 시

- 가급적 조용한 공간에서 1:1로 이야기하려 함

우수사례

:: 최 별 ::

그 외에 담임을 맡았을 때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가 크다고 느꼈어요. 일반학교에서는 장애교사를 거의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차원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할지를 많이 걱정하시더라구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극복하지 못했어요. 일반학교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그런 걱정이 상쇄될거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우수사례

:: 최 별 ::

학교구성원과 어떻게 대화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학부모, 동료교사, 학생 상담에 있어서 1대1 상담을 상대적으로 잘 수행을 하는 편인데요. 저는 지원인력과 함께 일하지만 지원인력에서의 지원을 전반적으로 받기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지원받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당사자와 소통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가끔 관리자와의 상담에서는 관리자의 발음, 성향에 따라서 가끔 지원인력과 같이 가기도 하였습니다. 관리자와 대화할 때에는 직급이 다르다보니 다시 되물어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요. 또 상대방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을 때는 청각장애가 있다보니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는지 양해를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기보다는 1대1로 슬쩍 가서 말씀드렸어요. 다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 분위기가 묘해지면서 상담에 지장이 생기더라구요. 그리고 미리 상담 전에 자리를 저의 오른쪽 책상에 미리 마실 차와 자료를 두어 부모님 자리를 정해두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많이 말하기보다는 많이 듣고 호응을 하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저의 지원인력에게 부모님이나 학생이 간 후에 제가 들은 내용이 맞는 지 다시 한번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개별화협의회에서 관리자와 함께 하는 다자간 소통 자리가 있는데 그때에는 문자통역지원인력을 꼭 대동하였습니다. 대부분 진행 순서에 따라 한분씩 발언을 하고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자유로운 대화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음성통역이 되면 제일 좋기는 한데 지원인력과 대화를 정말 많이 하고 관계를 다져야 가능한 부분이여서 쉽진 않더라구요. 또한 담임선생님과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분위기 상 문자통역 지원인력과 함께 하기가 어려워 근처에서 문자통역을 부탁드렸고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여 차후 제가 하여야 할 일을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질문 지원인력과 함께 근무하시는 경우 (보조공학을 활용하는 경우) 학급운영에 어떻게 도움받으셨나요?

이00: 저는 지원인력을 받고 있지만 한번도 담임을 맡아본적이 없어서.. 허00선생님께서는 우리들 중 유일하게 지원인력의 지원을 받으시면서 학급 운영을 해보셨겠네요.

허00: 네 학생들과의 소통, 전화, 전체회의 등 음성언어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았네요.

질문 (초등담임)의 경우 생활지도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급식지도, 전담교과 학생인솔, 현장체험학습 등 이동하며 다녀야 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직접 인솔하고 다니셨나요?

김진아: 급식지도는 사전에 급식지도를 진행하구요. 필요하면 다른 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어요. 인솔부분에서는 보통 고학년은 교사가 직접 인솔을 하구요. 현장체험학습에서는 나가기전에 미리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였던 것 같고 특히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에게 반드시 알릴수 있도록 지도하였어요.

우수사례

:: 최 별 ::

저는 늘 보청기 프로그램 속 '소음속 말소리' 기능을 최대로 높여 사용하였습니다. 저에게 그 기능이 너무나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하면 비장애인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뿐더러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상대방 말을 구분하여 들려주기 때문에 비장애인들보다도 더 잘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 청력에 맞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빨리 지치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무가 끝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체력을 회복시키느라 바빴습니다.

우수사례

:: 최 별 ::

그리고 최근에 발견한 기기인데 비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저는 전화를 할 때 보청기를 빼고 받는 것이 편해요. 전화와 보청기 간의 소리가 인위적으로 들리고 제 귀로 직접 소리를 들어야 자연스럽게 들리더라구요. 이부분은 청각장애인마다 모두 특성이 달라요. 여하튼 보청기를 빼고 전화를 받다보니 보청기 분실위험이 있기도 하고 최근 갤럭시폰에 전화시 자동으로 인공지능자막이 뜨는데 화면을 보면서 통화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청기 끼고 전화화면을 보며 받는 방법을 늘 찾고 있다가 최근에 오픈형이어폰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고로 미리 구입하여 저와 맞는지를 미리 테스트하였고 잘 맞아서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끼면 귀가 아프긴 하지만 골전도이어폰과 다르게 소리가 밖으로 많이 새어나가지 않고 소리도 잘들려서 저에게 맞는 기기같아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가 모든 장애특성을 고려한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기 아닌 모든 기기로 범위를 넓혀서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기기를 열심히 찾아나가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수사례

:: 최 별 ::

앞에서 말씀드렸들이 저는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지원인력과 함께 일을 합니다. 가끔 업무전화를 하다보면 분명히 상대방이 다르게 얘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장애를 이유로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을정도로 저도 제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되더라구요. 그러한 일을 대비하여 21년부터 지원인력과 함께 근무를 시작하였어요. 함께 근무한 이후로 제가 잘 들었는지 못들었는지에 대한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되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외 지원인력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말하거나 멀리서 이야기할 때 최대한 바로 쳐주시기를 부탁드렸어요. 그 부분은 제가 아무리 보청기 볼륨을 높인다해도 잘 듣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수업장면에서도 문자통역을 부탁드리는데 전적으로 통역에 의지하면 그 외에 놓치는 비언어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아 수업 중간중간에 참고로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비언어적인 장면들과 문자통역을 동시에 인지하기 위해 스마트자막안경을 구입하였는데 아직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실례를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 외 지원인력과 함께 일하는 부분은 너무나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담임으로서 학급 운영할 때에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3) 업무수행

질문 대부분의 신규 및 저경력 장애인교원은 수업보다 업무수행하는데에 있어 주변의 시선을 많이 우려하거나 실제 업무수행에서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업무를 잘 수행하여 학교구성원들에게 인정받으셨던 경험이 있을까요?

김진아: 저경력 교사라 뭐만 해도 칭찬 받고 있긴 합니다만.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제가 지금 무엇을 언제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많이 선배교사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모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메모한 내용을 동료 교사에게 질문하여 확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 영상을 잘 만들어서 칭찬 받았어요.(웃음)

'평교사 중 유일하게 S등급'

이△△: 제가 유일하게 평교사 중에서 S 등급을 받았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감내했고 사실 처음에는 등급이 A가 나왔는데 S를 줄 수 있게 돼서 내부에서 회의를 했었다고 해요. 100% 일치로 제가 받아야 된다 해서 받았다고 하시면서 교감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무 축하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느낀 게 그래도 묵묵하게 열심히 하면 구성원들이 알아주고 잘하고 있구나 하고 격려도 해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를 느꼈거든요.

이00: 저는 항상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사실 말해도 되나.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업무라는 걸 꼼꼼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평

> '장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를 받잖아요. 이것도 성향의 문제지 장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 학교 업무에 대한 정보가 쌓이고 쌓이면서 조금 편안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1년을 잘 버티면 내년이 편해지고 내년을 잘 버티면 내후년이 편해지고 이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정보는 쌓이는 것 같아요.

> '경험할 수 없는 기회들을 좀 더 용기있게 대면해보세요.'
> '주변의 인정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에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안00: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담임도 계속 했었고 마찬가지로 업무도 주어지는 대로 여러 가지로 많이 해봤었거든요. 현 학교에서는 장애인 교원을 본 적도 없고 청각장애가 있다는데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담임보다는 한 반의 아이들이 30명이나 넘게 있으니까 담임 맡는 게 매우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업무를 주면 그냥 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했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맡은 업무가 도서관 업무였거든요. 그때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열정적인 분이라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외부 사업을 따와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계획이 있나 보다 했고 저는 외부사업을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는 도서관이 처음이었고 내가 사서 교사도 아니고 사서 교사가 없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 3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도서관에 관한 공부를 해서 공모 사업 신청서를 내고 예산을 따왔어요. 그리고 도서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적으로 교장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다음 년도에 제가 업무 분장을 할 때 저희 학교에 교육 정보부가 새로 생기게 돼서 그거를 하고 싶다고 썼는데 민주시민자치부라고 학생 자치와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제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교장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저는 그 당시에 도서관 업무도 새로웠고 당황스러웠는데 그 업무도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도서관과 다르게 학생이나 담당 계원 선생님과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되게 컸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제 딴에는 나는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주변 분들도 나를 그렇게 볼까 해서 면담을 하게 되면서 제가 옆에 계신 부장님께 여쭤보고 왔거든요. 제가 이걸 하는데 제 딴에는 제가 청각장애가 있고 어쨌든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있지만 주변에서 보실 때, 밖에서 보실 때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 질문이 다 끝나기도 전에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조금 힘들 거야 하는 거 때문에 물러서면 경험할 수 없는 기회들을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해보는 것도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허00: 이 질문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노력을 하는 것 보다는 장애를 가진 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도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끼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에 업무를 잘 수행하였다라는 인정 여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업무수행

질문 교직원회의, 연수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점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1. 가까이 앉아 듣기
> 2. 메모한 내용 확인하기
> 3. 메신저로 내용 보내줄 것을 요청하기
> 4. 신규교사의 권리 누리기

김진아: 멀리서 작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의 경우 이야기가 듣기 상당히 힘듭니다. 중요한 내용일 경우 가까이 앉아 듣거나, 동료 교사에게 내가 메모한 내용을 보여주며 맞는 지를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교사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청각장애 선생님들은 자막처럼 말하는 내용을 써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하시네요.

업무 관련해서 학기 초에 관리자분께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무를 지금 3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수행하는 데 크게 불편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청각장애가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화 통화 같은 건 중요한 상황이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용한 환경에서 업무 통화를 하거나. 그런데 교실은 시끄러울 때가 많아서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교실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린다면 "선생님, 죄송하지만 메신저로 한 번 더 보내주세요."라고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를 수행되는데 제가 아직 저경력이다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옆 반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심지어 교감 선생님에게까지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직접 가져가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신규 교사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껏 물어볼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도움을 받더라도 못 알아들었으면 "이거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학년회의를 할 때도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제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손 들고 물어봐요. 이번 주에 어디 수업 있는 거 맞냐?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항상 메모를 하고 메모를 보여주면서 제가 이상하게 쓰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했던 것 같아요. 교직원 연수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알려달라고 옆에 계신 선생님께 부탁할 때도 있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건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잘. 그런데 그게 엄청 중요하면 다시 말씀해 주시겠지 하고 넘겨버렸던 것 같아요.

허00: 저는 외부연수에 갈 때와 방학 중 연수에 지원인력도 같이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쉽게도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듣는 연수는 교육청에 지원해줄 수 있는 지 문의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그 외에 학기 중 교내 연수에 한해서는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받고 있고 외부연수나 방학 중 연수에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지원받고 있어요.

적용 사례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아 회의 내용을 이해하였고, 저의 말도 지원인력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연수에서도 필요한 경우 자막을 활용하지만, 자막이 없우 지원인력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외 학교 외부에서 받은 연수는 기관에 수어통역을 의뢰하여 수어통역을 받았습니다.

> 스피커 근처에 찾아가서 앉았음
> 마이크랑 스피커를 크게
> 휴대폰으로도 연결

안00: 저는 교직원 회의나 연수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연수나 회의 시에 발화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스피커 근처로 알아서 찾아가서 앉는 쪽이었는데 스피커 근처에 앉으면 그나마 통역 없이도 어느 정도 내용을 인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업무가 부장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 회의 같은 경우에는 교장, 교감 선생님, 각 부서 부장님과 실장님들과 회의를 하는데 외부인이 들어와서 들었을 때 조금 곤란하다 싶은 그런 내용도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문자통역을 신청하거나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에 기획회의 들어가면서 휴대폰에 직렬 마이크를 연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가 휴대폰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들고 말씀주시면 좋겠다고. 그때만 해도 코로나 때라 마스크도 하시고 칸막이도 있는 상황이라 그냥 말씀하시면 저는 하나도 안 들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일반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애인 거기에 청각장애인, 근무하는 선생님 중에 청각장애인을 만난 경험이 없으세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니까 매년 장애 인식 개선 연수를 들으셔도 청각장애인이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줘야 하지?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는데도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잘 안 돼서 나중에는 마이크를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불편하셨는지. 그런데 왜 안 드셨냐고 말씀은 못 해서 직렬 마이크 연결하고 들리는 대로만 문자통역이 되는 거로만 들었는데 대신에 가운데에 앉아야겠다. 그래서 자리는 가운데로 앉은 그런 상황에서 기획회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 외부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청각장애인 교원 대상으로 지원 예산을 주고 있어서 그거로 문자통역 서비스를 신청해서 외부 연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문자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인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청각장애인교원
> 의사소통지원사업예산으로 문자통역을 신청
>
> 서울교육청 문자통역시스템이 들어온 이후로
> 회의나 연수에 편하게 참여

적용 사례

| 정확한 정보 전달의 어려움이 큼

- 교내 회의 등은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발령 초 청각장애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휴대용 직렬 무선 마이크를 휴대폰(또는 테블릿)에 연결하여 음성문자변환앱을 활용함
- 외부 연수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의사소통지원 예산으로 문자통역서비스를 신청하여 문자통역을 받음

이△△: 저희도 인천과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 문자통역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회의나 연수에서 놓치는 내용이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문자통역시스템 도입 후에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022년에 제가 복직할 때 복직연수를 받을 때는 서울시에서 문자통역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수원에 문의하니까 연수원에서는 처음 문의하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항의했더니 최대한 편의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2022년이요. 서울에 문자통역이 2023년도에 들어왔어요,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임용고시를 2008년에 봤거든요. 2008년 임용고사보기 전까지는 서울시 면접 문제가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면접위원이 문제를 말해 주면 듣고 대답하는 거였대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그때도 받아들여져서 2009년부터는 문제를 봅아서 읽어서 하는 거로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안 되겠구나라고 미리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먼저 문의해보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00: 저도 아무래도 회의와 연수 내용을 듣는 것이 어려웠어요. 속기사를 고용하기 전에는 주변 선생님의 필기를 보면서 이해를 했었는데, 속기사를 고용하고 나서는 속기사가 쳐주는 내용을 보고 회의와 연수를 이해하고 있어요.

질문 업무분장 시 업무조율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와 장애인교원 각각 고민이 많습니다. 쉬운 업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장애로 인한 제약은 없지만 어려운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셨나요?

김진아: 관리자 및 동료 교사에게 잘 해내고 싶지만, 염려가 되는 부분을 물어봅니다. 만약 전화 업무를 맡는다면, 전화 상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메모해서 적어야 하는데 적지 못하는 경우 메일이나 문자로 안내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 실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업무라면 다른 담당자 분과 역할을 바꿀 수 없는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제가 다문화 학생 수를 조사해서 올리는 거랑 세계문화축제를 열 때 문화축제 여는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정도의 업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크게 많지는 않았어서 배려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애를 말하시기 어려운 신규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고 없이 무사히만 보내면 그 사람들한테도 내가 특별한 경험이 되겠지 하고 넘겨버리거든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고 무사히만 보내도 그 사람들에게는 되게 소중한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한다는 욕심도 없고요, 저는. 그냥 나라는 사람하고 해서 다른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이렇게 대해줘라, 이거 알려주는 정도로만 저는 목표를 잡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른 청각장애인들에게 이러지 말아라,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만 목표로 삼고 사시면 조금 더 말하기가 덜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 '연차가 쌓이면 저를 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저의 업무능력을 알고 맡기세요'

허00: 연차가 쌓이다 보니 외부로 연수 나갈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매년 업무가 달라질 수 있지만 관리자에 따라서 장애가 있는 교원에게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장애가 있는 교원이기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우선시됩니다. 하지만 연차가 쌓이면 관리자는 한때 같이 일했던 교사이기에 업무 수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교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남의 인정을 받고자 노력하기보다는 업무 자체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

외부와의 전화업무는 지원인력을 통해 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분장에서 관리자의 인식과 우리의 인식 차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를 맡든 저에게는 중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아닌 학급으로 넘어가면 쉬운 업무, 어려운 업무가 아닌 정해진 업무를 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는 학기초부터 관리자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업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전화통화업무만 아니라면 웬만한 업무는 다하겠다고 말씀드려요.'

이00: 여기서 보면 선생님들 지금 대부분이 전화 통화가 가능하신데 저는 인공와우 수술을 했지만 전화 통화는 불가능하거든요. 전화 통화에 따라서 대처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업무 같은 경우에 저는 경력이 쌓여서 담임은 힘들지만 전화 통화 업무가 아니라면 웬만큼 제가 다 업무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전화 통화가 많은 업무가 아니라면 힘들고 어려운 업무라도 하겠다, 이렇게 관리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크게 이제까지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전공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공과에서 전체적으로 교육 과정, 입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업무가 매년 매년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안문이나 아니면 했던 사람들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제가 했던 업무 중에 조금 힘든 업무가 있었다면 결보강 업무였는데 아침에 빨리빨리 시간 강사를 구하고 빨리빨리 연락을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 업무는 힘든 것 같아요.

이△△: 저는 학급에서 10년 있다가 특수학교로 들어왔는데요. 사실 초등 특수교사에서는 다 맡아서 해야 해서 업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특수업무 전반적인 것을 다 맡았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와서는 매년 업무 분장을 써서 내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무들 위주로 써서 냈는데 위에서는 저의 희망도 고려하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누가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업무도 많이 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불러서 이야기하셨을 때 전화 통화나 아니면 대면해서 의사소통을 많이 해

> '장애로 인한 저의 희망도 있지만 학교의 상황도 있어서 장애로 인해 어려운 업무 빼고는 다합니다'

야 하는 업무가 아니면 그래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업무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전화 통화가 원활하지 않다 그리고 사람과 만나는 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하는 게 편하다는 개인의 특성도 있지만 청각장애의 특성도 있잖아요.

질문 지원인력과 함께 근무하시는 경우(보조공학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어떻게 도움받으셨나요?

허00: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원인력이 선생님이 어떤

> '지원인력에게 해야하는 업무를 명확히 안내해야'

업무를 하셔야 하는지 작성해 주시면 전체적인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선생님과의 조율이 필요할 때는 주로 제가 혼자서 가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조율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안문과 함께 지원 인력이 같이 가서 회의를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그 회의의 경우 지원 인력의 지원을 받고 또는 휴대폰에 구글 번역기를 활용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외부 연수의 경우에는 제가 수어통역을 의뢰해서 수어통역을 받고 연수를 듣습니다.

> '업무 조율 시 상황에 따라 혼자 가기도 하고 지원인력과 같이 가기도 합니다'

수어통역을 지원받기 위해서 학교 자체에 특별 예산이 있는지도 여쭤보고. 아니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도 배치를 할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연수처에 직접 문의하기도 하고 지원받기가 어려운 경우 농아인협회에 의해 수어통역사를 파견받습니다.

> '지원인력이 항시 옆에 계신 덕분에 필요할 때 속기를 해주세요.'

이00: 저는 지금 속기사를 2021년부터 지금 고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건 서울시교육청의 업무 지원 인력과 지금 서울시교육청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이 지원받는 금액만큼 저도 지원을 받아서 매해마다 1년 단위는 아니고 11개월 정도를 속기사를 고용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제가 퇴근할 때까지 전일제로 고용을 해서 그 속기사님이 학교에 계속 상주해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회의가 있다, 학교에 연수가 있다 이러면 그 속기사님과 함께 올라가서 속기를 해 주시면 그 속기를 통해서 내용을 듣고 있거든요.

다만, 못 오실 때 대처 방법은 알아서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걸리실 때 못 오신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는 사실 대체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속기사를 채용하는 것도 지원자가 없어서 매년 한 명씩 오셔서 그분으로 채용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체 인력 구하는 거 어려워서 그냥 개인적으로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시간제로 대체 인력을 구하고 싶었는데 전일제를 이용하는데 시간제를 이용하면 이중지원이라고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외 학교에서 하는 연수는 아무래도 속기사 선생님 계시니까 다 처주셔서 문제는 없었는데 아직까지 외부 연수를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외부 연수를 갔을 때는 아직 대처 방법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저분을 데리고 가야하나. 아니면 거기에 요청을 해야 하나. 그런 기준은 제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질문 마지막으로 신규장애인 교원에게 수업운영, 학급운영, 업무수행에 있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TIP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 '가벼운 인사부터'

김진아: 지금도 맡고 있기는 한데 제가 저학년에서 프로젝트 할 때 필요한 PPT 잘 만든다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서 올린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알려드리기는 할 건데 신규 선생님에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이라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텐데 일단 인사 먼저 잘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큰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지, 오늘 좀 달라 보인다 이런 말해도 사람들이 되게 마음을 잘 열고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스몰 토크보다 잘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적용 사례

1) 자신감 갖기

- 장애가 있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 잘해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지도해주세요. 선생님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지도해주셔야 아이들도 믿고 따릅니다.

2) 장애 알리기

- 장애로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많다면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르는 사람이 없게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 접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먼저 알려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3) 가장 어려운 일이겠지만 ^^ 최대한 많이 대화 나누기 (스몰토크 및 질문)

- 신규선생님들 힘드시겠지만, 낯설어도 먼저 살갑게 대하는 사람을 내치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많이 물어봐주세요. "00아, 오늘 아침은 먹었니?" "00 선생님~ 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00어머님~ 건강하세요? 00이는 요즘 학교 생활 어떻다고 하나요?"

4) 문제발생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넛지 기법?! 활용)

- 시끄러워서 대화가 안 된다. (조용히 시키기/장소 이동하기 등등)

허00: 학교 일을 하다 보면 장애 때문에 힘들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씨는 결정할 수 없지만 마음의 날씨는 결정할 수 있다.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청각장애인교원에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과 구화를 사용하는 난청인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은 청각장애인 교원은 극히 소수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구화인이라고 하시겠지만 수어를 구사하는 농인도 있으니 그들과 함께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고민이 있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구성원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결국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니고 있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가 다른 장애교원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마음 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일부만 언급해보겠습니다. '날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마음의 날씨는 결정할 수 있다.'

> '자신만의 강점이 필요해요.'

안00: 만약에 학교 현장에 오신다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장애가 있지만 그것은 그 선생님의 작은 부분일 뿐이고 교사로서의 자신만의 어떤 강점 하나는 있어야 교사 생활을 할 때 그 부분에서. 내가 장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만회하면서 만족감을 더 많이 느끼고 좌절하고 힘든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자신만의 강점 하나씩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학교 전체를 바라보기'
> '먼저 다가가기'

이△△: 교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늘 관심을 갖고 넓은 시각으로 학교 전체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어려운일이나 힘든일을 맡게 되어도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 학부모,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는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이나 힘듦은 없는지 살펴보고 열린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려는 태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 내가 맡은 일에 책임지고 학교 전체의 일에도 관심갖고 참여하며 학교 안에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고, 학교 교문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온전한 "학교 밖의 나"가 되어서 나의 삶을 살도록 학교 안- 밖을 분리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00: 첫해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는 지나가는 정보를 쉽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정보 격차가 있는데, 그래서 학교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 선생님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학교가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면 좀 더 학교생활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학교운영계획서를 통해 1년 동안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자주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지체장애인교원 우수 활동 사례

:: 인터뷰 참여한 선생님 소개 ::



박병찬

박병찬 선생님은 16년차 초등학교 교사로, 중증 지체장애를 가진 교육자이다. 희귀병으로 인해 팔다리 움직임에 제한이 있으며, 현재 수동휠체어를 사용하여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초등교육 현장에서 꾸준히 근무하면서 장애를 가진 교사로서의 특수한 교육경험과 교직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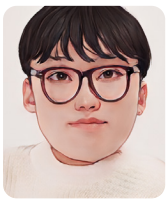
김대선

김대선 선생님은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21년차 경력을 가진 진로진학상담 선생님이다. 김대선 선생님은 후천적으로 지체장애를 갖게 되었다. 하반신마비로 휠체어가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하다.



양00

양00선생님은 중증 뇌병변 장애 교사이다. 약간의 조음장애를 수반하고 있으며, 독립 보행은 가능하지만 장시간의 보행이나 오래 서있는 것은 어렵다. 소근육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필기나 가위질 등 미세한 작업을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



유연철

유연철 선생님은 순천풍덕초에 근무하고있는 10년차 경력의 특수교사이다. 유연철 선생님은 선천적 희귀질환으로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를 이용하고 뼈가 약해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다.



김효진

김효진 선생님은 서울천호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5년차 경력을 가진 일반초등교사이다. 김효진선생님은 중증 뇌병변장애로 보행 상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다. 보행보조기기를 사용하여 거동을 하여 이동 등에 제한이 있다.

:: 우수 활동 사례 인터뷰 결과 ::

1) 수업운영

질문 대부분의 신규 및 저경력 지체장애인교원은 수업장면에서 일방적인 강의를 할 수는 있지만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등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학생과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업 운영 팁이 있을까요?

> "자리배치, 수신호 규칙, 화장실 목걸이, 과목 반장 활용"

김효진: 저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리 배치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제 가까운 자리나 이동하기 편한 곳에 배치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자리를 1달에 1번 내지는 2달에 1번씩 바꿔주면서 다 조정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운영하기에는 훨씬 더 편리했다고 느꼈어요. 학습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랑 잘하는 친구를 같이 묶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추가 지원이 필요할 때 제 자리로 오도록 규칙을 정했습니다. 또한, 고정된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과 수신호 규칙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이 있을 때는 손가락 하나, 발표를 원할 때는 손을 펴서 들기,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손가락 두 개를 드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말을 줄이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목 반장을 두어 학생들에게 일부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과목 반장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기에 열정적으로 자기 역할에 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제 업무도 수월해졌습니다. 저희 학교가 약간 좀 아이들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문제가 좀 있었어서 나중에는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 수신호로 갔다 오라고 하면은 꼭 항상 화장실 목걸이를 제가 그 교실 뒷면에다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그거를 이제 메고서는 화장실을 갔다 오도록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이제 저희 교실에서 그 목걸이를 맨 상태로 다른 반 교실에서 이제 좀 안 좋은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목걸이가 이제 안 좋은 행동을 하다가 떨어뜨려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아동의 그 행적을 추적이 가능했고 그 아동이 누구인지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교육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일일이 쫓아다니기가 조금 힘든 것도 있는데, 그런 좀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런 생활 지도하는 면에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적용 사례

-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 교탁 근거리 또는 교실 주변자리 배치
- 수신호 규칙 및 화장실 목걸이 활용
- 과목 반장을 통한 역할 분담

> "학생과 1:1로 개별화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김대선: 수업 간에서는 저는 주로 이제 고등학교라서 진로 창체 활동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은 이제 진학 저는 고3 학생들 지도 수업을 맡아가지고, 학생들이 진학에 관한 자기주도학습을 주로 시켜요. 활동지를 나눠주고 활동지회를 작성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출하면 다 수행평가로 기록이 다 되려면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 초반만 지도를 하고 개별화 수업을 하거나 또는 팀 팀플로 하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1명씩 불러가지고 고 시간 동안에 20분 정도씩 학생들 1대1 상담을 해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진로 상담 이런 분야는 1대1 상담 위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전체 직업 세계 알려주고 뭐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이런 거에서 지금 이제 약간 진로수업의 패러다임이 1대1 위약점에 처한 사항을 분석해 줘서 미래 직업 세계 특히 고등학교 경력까지 대학진학 관련된 것들 고런 방식으로 수업을 실제적인 이러한 직접 교수법 같은 그런 수업은 학기 초 잠깐 몇 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적용 사례

일방적인 강의 형식의 직접 교수법은 지양하는 편입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개인 또는 팀 활동을 하게 하고, 결과물을 제출받는 형식의 수업을 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수행평가 과제물을 할 동안 저는 학생과 1:1 상담을 하여, 개별화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합니다.

> "교실 책상 배치를 ㄷ자로 구성하여 휠체어 이동 편리하게 함"

유연철: 저는 교실 앞 교실 내에서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또 조금은 설 수 있어서 서서 수업을 하기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동 동선을 교실 내에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자리 배치라던가 또 제 컴퓨터와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가깝게 조절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 또 특수학급이다. 보니까 학생 수가 많아야지 6명 정도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책상을 디귿자로 배치해서 제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6명의 학생들을 모두 가까이에서 지도를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그게 최적의 배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따로 제 장애와 관련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고 학생들이 대부분 발달장애 아동들이다 보니, 그냥 생활지도와 관련된 규칙들만 네 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

수업시 교실 내에서 이동 동선을 최소화 하고, 학생들의 자리 배치를 ㄷ자로 구성하여 휠체어를 타고도 학생들 모두와 가까이 접근 및 소통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특수교육의 특성상 학생 수가 적음으로 인해 가능한 면인 것 같습니다.

> "학생들과 첫 만남 때 수업 규칙, 생활지도 방법, 갈등 발생 시 해결법 등을 미리 제시하고 지도"

박병찬: 저는 첫 시간에 그냥 이게 장애인이어서 뭐 다른 수업 팁을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 배치는 조금 저도 조정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수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자리 배치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이제 지금은 과학실에서 전용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8개 조였거든요.

근데 8개 조를 5개 조로 만들어서 근로지원인하고 과학 실무사님하고 같이 모양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순회하려면 지원 인력이 다리 올리고 내리고 약간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순회 수업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조를 작게 만들어서 애들이 최대한 저랑 가깝을 수 있도록 좀 배치를 하는 편이에요. 지금 한 반에 26명에서 22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 6명 정도 앉을 수 있는 5개 조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자리 배치는 저는 그냥 남자 여자 비율만 맞춰서 앉고 싶은 사람끼리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너네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며, 그들이 앉고 싶은 사람과 앉은 만큼, 짝꿍하고 떠들면 교실 뒤에 배치해둔 2개의 책상으로 이동해서 혼자 수업을 듣도록 공지해 놓았어요. 항상 그냥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남에게 피해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자도 괜찮다 근데 코만 골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편이고 한명 한명 애들 갈등이 되게 단순하다 보니까 제가 개입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갈등들이 되게 많거든요. 역할이나 순서나 뭐 이거 내가 해보고 싶어 저거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것들 되게 단순한 것들이 많아서 저는 웬만하면 가위바위보 합니다. 가위바위보 그러면서 애들한테 아직은 내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가위바위보보다 더 공정한 걸 발견하면 알려달라 그걸로 바꾸겠다. 얘기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가위바위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친구들은 저한테 데리고 오라고 미리 이제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친구에게 지적하는 거를 금지를 해 놨습니다. 친구 지적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너네가 친구 지적하지 말아라.

만약에 친구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지 괜히 너 도와달란 소리도 안 했는데 괜히 나서서 도와준답시고 친구 지적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좀 해놓고,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뒤에서 말하기 좀 어려운 것들 화장실이나 여자애들 6학년 되면 생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있다면 내 옆에 와서 얘기해라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는 쉬는 시간에 웬만하면 안 줘서 애들이 저는 이제 블록수업을 연차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화장실 필요한 친구는 조용히 손 들면 저랑 눈 마주치고 갔다 와라 대신에 눈 마주치지 않곤 안 된다. 뭐 암튼 이런 것들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급 환경은 이 정도 규칙 만들어 놓으면 1년 동안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적용 사례

학생들과 첫 만남 때 수업 규칙, 생활지도 방법, 갈등 발생 시 해결법 등을 미리 제시하고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거나 수업에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경고를 받고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뒤에 배치한 책상에 앉아 혼자 수업 듣기. 짝꿍이랑 2번 이상 떠들면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기, 순서나 역할 정할 때 발생하는 간단한 갈등 상황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하기 가위바위보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교사에게 달리기.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손 들고 말하기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장애 교사가 다가가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 교사 옆으로 와서 이야기해 주기 등

"아이들과 소통 많이 함"

양00: 저는 일단은 자리 배치는 따로 하지 않고 있어요. 중 고등학교 수업이다 보니까 계속 움직여야 돼서 근데 뭐 제가 40분 동안 수업을 다 서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뒤에 의자 정도는 이제 근로지원 선생님 갖다주시면 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수업하고 있고요. 이동 수업 시 특별한 방법, 각 반의 규칙이라던가 조금 더 소통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잘 딱히 막 많이는 안 하고요. 그냥 애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질문 학생들이 교원의 장애를 지적할 때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학기 초 장애 설명, 지적 시 학생 개별 면담"

김효진: 발령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한 학생이 수업 후 책상에 욕설을 남기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수업에서 다른 학생이 그것을 큰소리로 읽어 난처했지만, 저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지 알고 있었기에 나중에 해당 학생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6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먼저 상담을 진행해 주셨고, 그 분의 조언에 따라 학생과 관련 내용을 개별 상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기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제 장애에 대해 안내해주었습니다. 제가 달리거나 점프하는 것은 어려워도 다른 것들은 잘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저를 이해하도록 했고, 대부분은 이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휴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 장애를 이유로 일부 학생이 저를 만만히 보고 공격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학생들과의 관계는 각자의 상황, 어떤 학생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적용 사례

학기 전 교사 소개 시에 미리 설명, 수업 중 지적 시 학생 개별 면담 및 전체 안내

"학기 초 장애이해교육 및 라포형성"

김대선: 이게 이제 고등학생이라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놀라죠 항상 장애인 교사를 본 적 맞닥뜨린 적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놀라는데 이제 첫 수업으로 항상 장애 인식 개선 수업을 맨 처음에 항상 해요. 그래서 저희 장애를 알리고 그다음에 교사이기 전에 사회적 약자로써의 장애인 장애인을 지체 장애인을 대할 때 매너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가르쳐줘요. 그럴 일은 없으나 예 뭐 제가 갑자기 이제 저의 뭐 이렇게 저 같은 척수장애인들은 배변이 좀 잘 안 돼서 갑자기 소변이 나온다거나 무슨 배변을 나오는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단 1번도 없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죠. 네 선생님이 그랬을 때 너희들도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 냄새가 나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게 매너다 숨기는 게 오히려 잘못된 거죠. 요런 식으로 뭐 약간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렇게 쭉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 오히려 더 좋아하

고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저도 교사로서 예를 들어 학생으로서 인권적으로 대해주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요. 먼저 눈여겨 듣고 도와줄 때 선생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먼저 물어보고 도와주고 놀라지 않게 네 그런 게 저는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걸 통해서 달라지는 걸 또 느끼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고.

적용 사례

학년을 처음 시작할 때, 장애에 대한 이해 수업을 가장 먼저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동안 장애인 교사를 만난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애 이해 교육으로 궁금증이나 긴장도를 해소할 수 있는 라포형성이 필수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학생들이 놀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고, 교사이기 이전에 사회적 약자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장애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육합니다. 교육 후에는 딱히 장애를 지적하기보다는 문을 열어준다든지, 도와주어도 괜찮겠냐고 먼저 의사를 물어본다는지 같이 장애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간 후 장애인식 개선교육 시 안내"

유연철: 초등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또 이런 어떤 에티켓들을 갖추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쑥불쑥 와서 되게 처음에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 저한테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넘기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냥 그 일단은 순간에 자연스럽게 넘기기 위해서 선생님처럼 휠체어를 이용한 사람도 있는 거야. 아니면 키가 작은 사람도 있는 거야라고 순간을 일단 넘기고 따로 불러서 그 학생을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지도를 하고 또 초등학교에서는 장애이해 교육을 특수 교사가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이해 교육 행사 때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이나 예절 등 이런 것들을 녹여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전 학년을 학교가 큰 경우에는 전학년을 하지는 못했는데 적어도 이제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반 통합학급에는 들어와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1학년에 1반 정도는 대표로 가서 수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적용 사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자 이해하는 편입니다. 가령 저학년 학생들은 저에게 "어른인데 왜 키가 이렇게 작아요?", "왜 지팡이를 써요?" 등의 질문을 하거나 자기들끼리 수군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싶어하는 편입니다. 가볍게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거야." "반 친구들 중에서도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거야." 등으로 상황을 넘어가고 장애인식개선교육 시간에 비슷한 내용을 짚는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악의 없는 말에는 쿨하게 반응"

박병찬: 초등학교 애들이다. 보니까 이제 좀 순수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봐요. 어디 다쳤냐 어디 아프냐 언제 낫냐 네, 그러면 그냥 막 또 장애에 대해 설명하려면 또 되게 길어지니까. 그냥 선생님 축구하다가 심하게 다쳤다 너네들도 운동하거나 복도에서 뛰지 말아라 복도에서 뛰다가 다치면 나처럼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예도의 과학 시간에 한 번 들어주긴 하거든요. 저희 경기도에서 6학년 애가 뛰다가 2학년 애랑 부딪치면서 이제 2학년 애가 날라가서 이제 식물인간이 된 케이스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네가 복도에서 뛰다가 이제 덩치 큰 애들이 뛰면 너네가 위험한 게 아니고 1~2학년 애들이 위험한 거니까 뛰지 말아라 나처럼 된다.

적용 사례

초등학교라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 아이들이 어디 아프냐고 많이 묻습니다. 그럴 때는 지적을 받는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손과 발을 다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복도에서 뛰거나 장난치다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에 대해 자연스럽게 교육"

양00: 저는 장애가 너무 가시적이다보니 걸음이 이상하다, 말이 이상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처음 학교에 부임을 하면 그 해에는 좀 매 시간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호기심 그런 거인 거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장애인이다. 너희들도 장애인이지 않느냐 사람은 다양하다 정도로 넘어갔는데 이번 학교는 맹학교에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뇌병변 장애인을 아예 모르는 학생들이 많더라구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까지는 들어봤다는데 뇌병변장애라니까 너무 애들이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어떤 학생이 그 장애 검색하고 왔다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적용 사례

선생님 걸음이 이상하다, 말이 이상하다 하고 말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 장애인이라 그렇다. 장애 영역이 다를 뿐, 나도 장애인이다. 정도로 답변함.

질문 이동보조기기, 보조공학기기(예.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능 활용)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셨나요?

> "보행기에 학생들과 애칭을 붙이며 친숙하게 느끼게 만들고 주의사항 안내"

김효진: 저는 이제 병원에서 보통 많이 쓰시는 보행기라고 부르는 디근자 형태로 되는 이동보조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 그거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선 이동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제 애칭을 같이 붙여줬어요. 저는 이제 같이 붕붕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아이들도 좀 친숙하게 느끼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장난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건 선생님의 신체 중에서 다리와 같은 친구야 그래서 이런 거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돼" 이런 말을 아이들한테 명확하게 안내를 해줬었어요.

적용 사례

- 이동보조기기에 애칭 붙이기
- 학기 시작 시에 주의사항 안내

> "높낮이 테이블, 스탠딩 전동 휠체어를 지원받아 사용"

김대선: 저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전 이동이 불편해가지고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제 교탁으로 쓰는 게 높낮이 테이블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교탁을 이렇게 제 가슴까지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테이블에 그러면 거기다 책을 피거나 노트북을 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스탠딩 전동 휠체어를 사용을 해요. 그걸 그거 기립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지원을 보조공학기기로 받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서서 수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뒤 학생들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뒤에 있는 학생들이 자거나 보통 그러거든요. 집중력이라든지. 또는 판서 한다거나 또 높은 곳에 학생들 이제 뭐 진로 포트폴리오 같은 거 이제 꺼낼 때 고럴 때 이제 보조공학 기기들이 좀 도움이 되죠.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탠딩 같은 경우 저같이 이렇게 휠체어로 매일 앉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골다공증이나 그런 신장 또는 장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매일 1시간 이상은 서 있으라고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하면서도 서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적용 사례

높낮이 테이블, 스탠딩 전동 휠체어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높낮이 테이블은 교탁처럼 활용하였고, 스탠딩 전동 휠체어는 교실 이동이나 수업 간 기립이 필요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수동 휠체어에 앉아 수업을 하게 되면 뒤에 앉은 학생들이 잘 안 보입니다. 이럴 경우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잠을 자는 등 원활한 수업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판서를 하거나 높은 곳의 물건을 꺼내야 하는 경우에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 장애인의 경우 계속 앉아 생활하게 되는데, 하루 1시간 이상 서 있을 경우 골다공증, 기립성 저혈압 예방은 물론 장운동 촉진 개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수업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 사용"

유연철: 교실에서는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수업에 활용한다는 느낌 보다는 제 몸과 같은 기기들이라서 늘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휠체어, 지팡이를 사용함으로 인해 수업에 불편함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적용 사례

교실에서는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수업에 활용한다는 느낌 보다는 제 몸과 같은 기기들이라서 늘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휠체어, 지팡이를 사용함으로 인해 수업에 불편함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이라 배려하여 교과교사로 배치해주심"

박병찬: 그리고 이제 뭐 책상은 높낮이 조절 책상이랑 휠체어 쓰고 있구요. 휠체어는 수동이다 보니까 근로지원인이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자료 작성할 때는 옛날에는 이제 근로지원인 타이핑을 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요즘엔 음성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 가지고 TTS인가 예 그래서 그거 요즘에 여러 개 한 2~3개 돌리고 있습니다. 구글이랑 뭐 유료 어플 돌리니까 문서 작업도 그렇게 옛날보다는 좀 많이 수월해진 편입니다. 이제 구글 사용할 때는 그냥 PC에서 할 때 구글을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유료 어플이 더 좀 전 정확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가장 평점 좋은 유료판 2개 유료 하나 무료 하나 깔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하나는 음성 메모장이라는 어플입니다. 이제 노트인데 그때그때 메모도 하고 이런 거 어플하고 쓰고 있구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는 집에서는 저는 이제 미러링 어플 이제 애니데스크나 팀뷰 그러니까 제 핸드폰 화면이 이제 그 컴퓨터 띄워주는 이제 그런 마우스로다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는 이제 애니데스크나 팀뷰 어플이 잘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는 삼성덱스로 핸드폰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덱스랑 카카오 쪽에 전화를 해서 너네도 이거 음성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을 좀 접근성 앱으로 좀 탑재를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고려해 보겠다고 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적용 사례

높낮이 조절 책상과 휠체어를 사용하여 수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업 자료를 작성할 때는 음성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지원 인력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업 자료 개발 시 음성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 사용 및 지원 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음"

양00: 보조공학 기기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가끔 클로바 더빙 같은 TTS 음성파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원인력과 함께 근무하시는 경우 수업운영에 어떻게 도움 받으셨나요?

"문제행동 발생 시 해당 학생 근처에서 집중 지도, 수업 교구 제작 및 프린트물 출력 후 운반에 도움"

김효진: 지원 인력은 5년 내내 학교에서 고용을 하셔가지고, 지원인력이랑 계속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지원인력은 전체적인 수업 내용은 당연히 제가 앞에서 다 지도를 하는데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말썽 피우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지원인력이 그 아동 근처에 가셔서 집중적으로 좀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 배치를 일부러 그 가장자리 쪽에 문제 학생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해놨던 게 아무래도 지원인력이 애들 사이사이로 지나다니시면 아이들 집중이 좀 흐트러지는 게 있어서 그렇게 좀 가장자리 돌아다니시면서 아이들 지원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제가 수업 교구 같은 걸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있어서 교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프린트물 같은 거 출력하고 운반하는 것들 많이 도와주셨었고요. 그리고 수업 전에 미리 거의 코티칭하는 정도로 선생님과 활동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이런 활동을 할 거고, 아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학습을 할 거니까 혹시나 아이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점을 짚어주시면 된다. 하고 이제 좀 주의점 같은 것도 상호적으로 이제 소통을 해서 숙지를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원어민 선생님하고도 코티칭을 하는 상황이 많았었기 때문에 상호 협력하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원인력은 선발할 때 면접을 제가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신지, 아이를 양육하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편입니다. 대부분 일반인 분들이시고 그 외에 이제 제가 특히나 영어를 하다 보니까 혹시 영어를 아시는지도 여쭤봅니다. 그래서 영어학원 원장님이셨던 분과 함께 하기도 했고, 영어를 따로 모르셨어도 오히려 더 열심히 아이들 도와주시고 하셨던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이제 좀 잘 다루실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면접을 봤습니다.

적용 사례

- 전체적인 수업내용을 교사가 앞에서 지도, 지원인력이 문제행동 발생 시 해당 학생 근처에서 집중 지도
- 수업 교구 제작 및 프린트물 출력 후 운반 등 도움
- 수업 전 미리 활동 설명을 통해 주의점 상호숙지

"태블릿 배부 및 수거, 자료 검토, 학생 호출"

김대선: 수업 시간에 디벗 기기(태블릿)를 사용할 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회수할 때 파손 여부 확인 후 다시 정리를 해 주거나 학생들의 진로지도 자료를 만들 때 자료 검토 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둠 토의 등의 책걸상 이동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학생을 찾으러 갈 때도 이동이 불편한 저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적용 사례

수업 시간에 디벗 기기(태블릿)를 사용할 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회수할 때 파손 여부 확인 후 다시 정리를 해 주거나 학생들의 진로지도 자료를 만들 때 자료 검토 등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모둠 토의 등의 책걸상 이동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학생을 찾으러 갈 때도 이동이 불편한 저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유연철: 저는 따로 근로지원인을 활용하진 않고 사회복무요원이나 특수교육 실무사가 이제 뭐 교실 청소라든지 학습 자료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무로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만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적용 사례

근로지원인을 활용해 본적은 없습니다.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은 학생 지원을 위해 복무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학생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교실 청소, 학습자료 제작도 그분들의 업무이기에 분담하여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수업 자료, 교구 제작 등의 수업 준비, 수업 진행 시 학생들 보조, 학습지 배부 및 수거, 수업 종료 후 교실 정리 등 전반적인 수업 운영 지원"

박병찬: 수업 운영할 때 수업 자료 제작 교구제작 준비, 진행 시 학생 보조 아까 김윤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한테 가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조금 맡기고 있구요. 저희 학교는 8개 반 중 약 4개 반이 통합반인데 지원인력이 실무사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냥 특수아동만 오는 경우에는 그냥 제 지원 인력을 특수아동 옆에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실무사 역할을 그냥 시켜버립니다. 학습지 배부 수거 그리고 수거 후에 그 채점 제가 또 좀 어렵다 보니까 채점도 하고 수업 종료 이제 교실 정리 같은 것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희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근로지원인이 새로 바뀌는데 이제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하는 역할을 좀 미리 정해놔요. 그래서 제가 학교 오기 전에 저 약간 결벽증이 있다 보니까 어제 컴퓨터 닦고 컴퓨터 틀고 이제 수업 제가 이제 1달치 수업 준비물을 미리 과학실무사님하고 근로지원인한테 뽑아서 주거든요. 이제 조별 수업 바구니에 준비물이 시무사님이 잘 준비를 했는

지 확인하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저한테 꼭 전달해 달라고 소바구니 준비물 확인시키고 이제 뭐 끝나고 나서 청소나 쓰레기 치우는 것도 실무사님하고 같이 다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

근로지원인을 활용해 본적은 없습니다. 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은 학생 지원을 위해 복무하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학생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부수적으로 교실 청소, 학습자료 제작도 그분들의 업무이기에 분담하여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 "개별 접근이 필요한 학생 보조, 긴 지문이나 영상의 자막, 문제 등을 읽어 주기도 함"

양00: 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원인력 이용중이구요. 주로 수업 운영에서 인적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개별 접근이 필요한 학생이나 교과서 페이지 못 찾는 학생들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너무 다양한 특수교육학생이다 보니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 개별 지원해 주시면 제가 전체 수업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너무 긴 지문을 읽는 데 한계가 있어서 지문이나 문제를 읽어주시기도 하고, 지금은 영상의 자막을 읽어주세요. 프린트물 같은 거 배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낮은 처우와 임금. 그리고 자격도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인력은 너무 고급 인력이다 라는 말도 들었어요. 어떨 때는 근로지원인이 오셨는데 컴퓨터 사용 아예 못해 가지고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더라구요.

적용 사례

- 팀티칭의 보조교사처럼 지원인력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전체 수업 진행을 하고 있으면 개별 접근이 필요한 학생이나 교과서 페이지를 못 찾는 학생의 지원을 담당함. 또한 긴 지문이나 영상의 자막, 문제 등을 읽어 주는 지원도 받고 있음.

우수사례

:: 혜현 ::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는 과정과 통합학급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학급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들이 많아 보조인력 확보 및 배치가 필수 업무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자 및 보조인력 지원 덕분에 저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학생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학급운영

질문 대부분의 신규 및 저경력 장애인교원은 담임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장애가 있어 담임을 거부해야하는지 장애가 있지만 담임을 하여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건지 고민이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이라 배려하여 교과교사로 배치해주심"

김효진: 사실은 저는 한 번도 지금 담임을 맡은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지역에서도 학군이 어렵기로 유명한 학교여서 관리자 분들의 걱정이 좀 많으셨어요. 학폭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도 거칠다 보니 제가 담임이 되었을 때 문제 해결에 대한 어려움을 걱정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 등을 이탈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도 관리자 분들과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렸어요. 수업 중 아이가 갑자기 이탈하는 경우 -1번. 옆 반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고, 2번. 교장실에 전화를 하고, 3번. 교문 앞에 보안관실에 연락을 해서 이중 삼중으로 아이를 다시 데려온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짤 정도로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저도 그런 게 염려가 됐구요.

그런데 이제 공개수업도 하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줌으로 거의 공개수업을 한 2년간 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알려지기도 했고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려졌었던 게 그나마 저희 학군에선 좀 긍정적인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딱 대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적용 사례

해당 학군이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이라 담임 교사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되어 교과교사로 배치

"담임의 경우 물리적 이동이 필수적이므로 물리적 장벽이 해소되면 담임 업무도 충분히 할 수 있음"

김대선: 담임 관련해서 저는 고등학교여가지고 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이 가장 큰 문젠데 남학생들이 힘이 좋으니까 저를 그냥 4명에서 들면 그냥 들어서 어디든지 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비 올 때라든지 또는 눈이 온다든지 할 때에는 그것도 약간 위험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러다가 만약에 다치기라도 하면 예 이게 학부모님들 민원이 또 소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인제 그렇게 안 할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저도 근로지원인 도움을 받고 있고 뭐 이제 주로 돌발 상황 예를 들면 다쳐가지고 병원을 갈 때 고등학교는 담임 교사들이 보통은 이렇게 앰블런스에 같이 타가지고 응급실을 가서 이제 학부모님하고 전화한다던지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잖아요. 지체장애인 교사들 그런 게 좀 어려워서 이제 그런 것들만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조금 학급 운영할 때 이렇게 준비해두면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 같아요. 저희 반에 문제가 발생하면 1차 부담임교사, 2차는 옆반 담임교사, 3차는 보건교사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다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또, 자존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 뭐냐 교사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지식이 많고 운영 경험이 많으면 솔직히 장애가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문 지식과 학급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규 선생님들은 펼쳐지지 않은 일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장애인이 딱 되자마자 아 이거는 학교에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그럼 진짜 예비 신규 교사면 신규 교사들 멘토로써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장애로 인해서 차별을 받거나 또는 소외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좀 자존감을 많이 끌어올려 놓으면 심리적 부분을 많이 조금 터치해 주면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복직을 포기하고 있었다가 복직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경추마비 그러니까 이제 사지마비이시거든요. 어떤 사지마비 선생님이 포천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국어교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디 사지마비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을 하지 해가지구 이제 연락처를 막 간신히 얻어가지고 그분이 사람 만나길 되게 꺼려하셔가지고 찾아간다 그랬더니,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구요. 찾아오지 말고 전화로 해라 그래서 전화로 했는데 제가 이제 어려운 점을 계속 다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수업 자료는 어떻게 만드시고 수업 장면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시고 여쭤봤더니, 두 분이 방학 내내 이 팔은 움직이실 수 있으셔서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타이핑해 가지고 그걸 만드신대요, 1학기 학습 자료를. 그다음에 이제 방학 이제 학기 중에 끝나면 체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재활병원에 1달 또 입원을 하셔가지고, 또 재활을 또 하신대요 다음 학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의 얘기를 이렇게 듣고 나서 와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걸로 고민하고 있구나 어 이거 뭐 나는 저분에 비해서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네 그런 용기가 생기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학교에 다시 되돌아갈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면서 지금에 이른 것 같거든요.

저는 후배 만약 교사들이 그렇다면 선배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미리 배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용 사례

장애가 담임과 비담임을 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하는 핵심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담임의 업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지체 장애인의 경우 담임반 교실까지의 이동, 장거리 체험학습 지도, 학생 사고 시 병원으로의 동행 등 물리적 이동에 따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설치, 업무 지원인 배치 등 지체 장애 교원의 이동 편의지원 서비스만 원활히 제공 된다면 담임 업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자율성이 많이 부여됨으로 인해, 장애를 고려한 교육활동을 계획할 수 있어 많은 부분 만족하며 근무 중"

유연철: 저는 첫 발령이 특수학교였어요. 담임을 맡지 않고 계속 교과 담임만 해 교과담당만 했었는데 그랬던 이유 중의 하나가 뭐 학급에서 담임선생님들이 학급 교육과정을 짜긴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그래도 각 과정별로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뭐 같이 나가는 체험학습 뭐 이런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서 아이들을 인솔하는 게 그때만 해도 저 스스로도 굉장히 두려웠고 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담임을 조금 피했던 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때는 외부 활동을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잔류하는 학생들을 제가 맡아서 지도를 하는 식으로 대체하기도 했었는데 특수학급에 나와서는 이제 특수학급은 이제 교육과정을 제 마음대로 구성을 하고 제가 동선이나 이런 것들 다 계획할 수 있어서 외부 활동이 어려우면 교내 활동으로 조금 돌려서 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특수학급에서 체험 활동도 조금 더 교내에서도 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교외 활동도 하고 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활동을 특수 학급에서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다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지원 인력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인력이 있기도 하고 또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또 담임을 하다 보니까 교사로써의 자존감이나 이런 학급 운영 노하우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또 해마다 또 능력이 조금씩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적용 사례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교육과정, 체험학습, 기타 프로그램 등이 모두 정해져 있고 학년별로, 과정별로 운영되기에 자율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장애가 고려되기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담임을 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내의 특수학급은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부여됨으로 인해, 저의 장애를 고려해 교육활동을 계획할 수 있었고, 많은 부분 만족하며 근무 중입니다.

> "불편함을 솔직하게 동료 교사와 관리자들에게 공유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에 많은 변화를 만들었음"

박병찬: 저도 신규 때 담임을 맡은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뭐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관리자한테 담임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제일 힘든 건 역시 관리자들의 선입견을 극복하는 게 현재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자랑 합의 본 걸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를 서로 승복하자 관리자랑 이렇게 서로 합의는 봤고요. 저도 생각해보면 신규 때 담임 맡는 거 되게 두려웠던 것 같은데, 이거는 장애가 있다. 없다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신규면 다 겪는 과정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는 신규 때는 경증 장애인이어서 걸어다녔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아마 담임 3년 차에 휠체어를 탄 것 같은데, 그때도 약간 고민이 좀 있었는데, 아까 저기 대선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다 보니까 도움을 받았던 거 같애요. 우선 저희 관리자분들이 제가 담임을 맡았을 때 항상 옆 반에 남자 선생님을 한 분 배치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위급 시 제가 학생들이 아닌 제가 이동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좀 힘쓰일 수 있는 남자 선생님을 맡아서 제 체육수업을 남자 선생님께서 저희 사회과 수업하고 교환수업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좀 이런 부분을 좀 해주셨고 첫 발령때 지원 인력 근로지원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어 저는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받고선 근무를 했었습니다. 원래 이것도 안 됐는데 저희 교장 선생이 교육청에 요청을 하니까 사회복무위원이 교사 지원으로 배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복무위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는 수련회도 있었고, 2박 3일 수련회도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데리고 다 수련회까지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관리자께서 제가 담임을 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 그럼 해보라고 호인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것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다 지원을 해주셨고 현장체험학습도 이제 저는 개인차를 타고 활동지원사랑 목적지까지 가고 사회복무요원이 이제 인솔자로 해서 저희 반 애들 버스에 같이 타서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옆반 선생님도 멘토처럼 이제 배정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학교에서 좀 승진 준비도 하시면서 좀 스마트하신 선생님을 옆반에 배정을 하고 장애 교사 지원도 업무처럼 해주셨어요.

적용 사례

신규 때부터 담임을 맡은 경험이 있어 담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담임을 맡았을 경우 내가 맡은 학생들에게 담임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 의외로 담임을 맡았을 때 걱정했던 학부모 민원이나 안전사고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그 외에 장애 교원 근무 환경 조성 미흡으로 인해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현장 체험 학습을 가는 경우 휠체어로 탈 수 있는 버스가 없어서 아이들과 따로 자가용으로 현장 체험 학습 목적지까지 가야 했습니다. 교실 교사용 책상이 너무 낮아서 휠체어로 진입할 수 없어 책상 바닥에 높이 조절 도구를 끼워서 높이를 조절해야 했습니다. 급식실 식탁이 책상과 의자 일체형이어서 휠체어로 진입할 수 없어 아이들 급식지도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솔직하게 동료 교사와 관리자들에게 공유하고 개선해 달라고 요구에 많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사건사고가 많은 지역이라 배려하여 교과교사로 배치해주심"

양00: 저는 지금도 담임을 하고 있고 이전 학교에서도 담임을 한 번 했었어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관리자분들이 너무 우려를 많이 하셔가지고, 민원 같은 거 소지가 너무 많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담임을 희망을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2년을 담임을 희망했는데 장애를 이유로 안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옆에서 선배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 장애인 차별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해 담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해도 관리자분들이 제반 학부모님을 미리 만나셔서 장애인 담임인데 괜찮느냐를 다 물어보셨다더라구요. 그랬는데 학부모님들이 다행히도 괜찮다고 해주셔서 담임을 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관리자분들의 그런 시선과 편견,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담임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들긴 힘들어요. 교과보다는 상담할 일도 있고 학부모님들하고 어찌 됐건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긴 했는데 오히려 교과 전담으로써 수업할 때보다는 좀 더 융통성도 많고 애들하고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재량권이 많더라구요. 지원 인력 도움받으면서 하면 돼구요.

담임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도 있었어요.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운좋게 잘 담임을 마쳤어요. 담임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기회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학기 초 학부모 및 학생에게 자신의 장애를 알리시는 것을 추천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알리셨나요?

"학부모 공개수업을 통해 공개"

김효진: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것이 베스트. 아이들을 통해서, 공개수업을 통해서 장애 공개합니다.

"담임지도 계획서를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

김대선: 장애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시민 의식도 많이 발전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위 학교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알리고 또한 지체 장애로 인해 학생 지도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설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구두로 이야기하고, 학부모님에게는 담임지도 계획서에 작성하여 학기 초에 학생 편에 전달하였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알림"

유연철: 사실 장애를 밝히고 밝히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는데 저는 발령받고 나서 첫 학부모 상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장애가 있고 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만의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처음이라 어머니께서도 이제 보시기에 위태로워 보이실 수

있지만 일단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1년을 보내면 또 그래도 신뢰가 쌓여서 믿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아직까지는 다행히 큰 어려움 없이 그런 부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메신저라도 라도 하 전화가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었어요.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인사이동 이후 새로 근무하게된 학교 학부모님들과 전화상담을 하며 저의 장애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 이해해달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말씀은 일절 드리지 않고, '저도 학생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등의 말로 안심시키며 학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총회에서 알림

박병찬: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가 안산에서 15년 있고 있거든요. 학부모들은 제가 3월 초에 3월달 학부모총회 때 이제 휠체어 타고 있어서 학부모들 한테도 그때 당시에는 막 제 장애를 일일이 설명하기가 그래서 그때도 그냥 축구 하다 다쳤다고 했었습니다. 담임할 때 그렇죠. 그래서 못 쓴다 얘기했고 그리고 저의 교육관 얘기하고 건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최대한 반영하겠다. 서로 얘기 다 털어놓고 상담 때도 진짜로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장애인이어서 민원이나 불만을 받아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뭐 다만 이제 장애가 아니고 제가 좀 덩치가 있고 남자다 보니까 네 이제 어머님께서 저랑 상담하기가 무섭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연차를 쓰고 상담을 하러 오셨더라구요(웃음). 그래서 그런 것 좀 그런 경우는 있지만 뭐 장애 때문에는 좀 없어 그런 거 없었고요. 예 지금도 이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관리자의 선입견 우려를 극복하는 게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학부모들하고 부정적 오히려 학부모들이 장애가 있어서 조금 더 조심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이거 말해도 될까 막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히려 더 쪼끔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 장애를 핑계로 못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담임 할 때는 애들 갈 때까지는 교실에서 애들하고 항상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인력의 학급 운영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전에 이제 근로지원인하고 많이 협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돌발 행동 어떻게 피드백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 지도해 할 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A를 요청했는데 근로지원이 B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근로지원인이 A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건 내 책임이니까 자의적으로 B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항상 합니다. 예 그래서 돌발적인 위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을 나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받고는 있지만 근로지원인에게 교육과 운영의 주체는 저인 거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일단 3번 참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면서 어 내가 그냥 몇 번 참았는데 이거를 너랑 참으면서 일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수행기관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람 구할 때까지만 해달라 걱정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대도시다 보니까 이제 공고 올리면 지원자는 좀 많은 편입니다.

적용 사례

지체 장애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알리지 않더라도 아이디가 학부모님들이 알 수밖에 없어서 3월 학부모 총회 때 솔직하게 저의 장애에 대해 공유하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저에게 요청 사항이 있으면 솔직하게 요청해 달라고 안내합니다.

"숨길 필요가 없으므로
알리는 것을 추천"

양00: 저는 굳이 알리지 않아도 장애인임을 전화만 해도 눈치채는 그런 장애인이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지만 장애를 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애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적용 사례

저는 굳이 알리지 않아도 장애인임을 전화만 해도 눈치채는 그런 장애인이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지만 장애를 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애로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수사례

:: 이홍석 ::

상담을 진행하기 전에 저는 부장님께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 여쭤보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수업자료와 마찬가지로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는 수업자료 뿐만이 아닌 상담자료 또한 많습니다. 사전 질문지와 상담을 진행할 때 서로 소통을 잘 이끌어 내기 위한 자료들이 많아 여러 선생님들의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학급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학부모님들께 이알리미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미리 질문지로 받아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수 있었고 더 궁금한 점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발령 초기인지라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업무 담당자에게 여쭤본 뒤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취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다리를 저는 모습을 알고 있었으나 학부모님께서는 다리 불편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초등학교 기간동안 남자 선생님을 1학년 때부터 만나뵐 수 있게 되어 좋다는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습니다.

질문 학부모 및 학생과의 상담에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학부모와 면담을 직접 진행

김효진: 어떤 점에서 부정적으로 여기는지에 대해 면담 진행합니다.

김대선: 학부모 및 학생과의 상담에서 단 한번도 장애로 인해 부정적 인식을 가져본 적도 없거니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역량을 갖추었다면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았음"

유연철: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장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학부모, 학생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박병찬: 학생과 학부모 상담 때 장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은 지금까지 딱히 없었습니다. 다만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남자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저를 무서워하셔서 아버님이 연차를 쓰고 상담을 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 "학부모님과 더 자주 연락하고 학생들과 자주 소통하려고 노력"

양00: 학기 초 보통 전화를 드리면 대놓고는 아닌데 부정적 인식을 내비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드리고, 학생들과 더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질문 그 외 담임을 맡았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관리자의 우려,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 학생들의 안전사고 관리 소홀 등)

김대선: 크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리자를 포함한 동료 교사들이 지체 장애인 교사를 마주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함께 근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편입니다. 저는 부담임 교사와 옆 반 담임교사에게 돌발 상황에서 저의 장애로 인해 대처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도움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유연철: 저는 관리자, 학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10년차 근무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동료교사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제 능력을 폄하하고 엄연히 제 권한인 것을 제게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대신하며 생색을 낸다던가, 교직원들에게 저로 인해 본인이 고생한다는 것을 어필하며 본인을 높이는 모습들에 상처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우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해결, 학생 안전사고를 위해 교실을 비우지 않고 관찰

박병찬: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것은 관리자의 우려였습니다. 관리자의 걱정으로 담임을 맡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어 장애인 차별 결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저의 담임 결정은 관리자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저에게 들려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학생들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할 때까지 웬만하면 교실에서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또한 쉬는 시간에도 항상 근로지원인과 학생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수사례

:: 혜현 ::

특수학급의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장애의 진실을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것이 제게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은 제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저는 더욱 세심하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돌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생활지도도 놓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을 꼼꼼히 살피고, 개별 특성에 맞는 수업 준비부터 진행까지, 학생들과의 돈독한 관계 형성과 학급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들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제 장애보다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두드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질문 지원인력과 함께 근무하시는 경우 (보조공학을 활용하는 경우) 학급운영에 어떻게 도움받으셨나요?

> "이동 시 앞 뒤로 위치하여 인솔"

김효진: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 역할 분담
(예를들어 학생 이동 시 앞에는 지원인력, 뒤에는 교사가 인솔)

> "무브온 바이크를 통해 이동 및 학생들 인솔에 도움"

김대선: 초임교사 시절엔 지원인력 제도가 없어서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중 수동 휠체어에 연결하여 전동으로 이동을 도와주는 무브온 바이크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담임 반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인솔이 필요한 경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유연철: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며, 제가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전동 휠체어)로 인해 도움을 받은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사전 협의를 통해 학생 지도, 수업 진행에 도움을 받음"

박병찬: 학급을 운영할 때 근로지원인의 지원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제가 필요한 지원을 사전에 글로 지원인한테 안내 설명하고 근로지원인이 저의 요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미리 협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저의 요청과 다르게 근로지원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돌발적이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근로지원인이 먼저 행동하고 꼭 저에게 그 상황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로 지원이라 도움을 받지만, 교육과 학급 운영의 주체는 장애인 교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수사례

:: 혜현 ::

신입생 학부모님과의 사전상담은 입학식 당일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부모님께서 특수학급의 위치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직접 입학식장으로 가서 학부모님을 특수학급으로 안내하는 것이 불편하여 특수교육 실무사님께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실무사님께서 학부모님들을 교실로 안내해주셔서 저는 학부모님들을 교실에서 맞이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이동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을 보조인력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해결이 되면 에너지를 다른 교육적인 부분에 더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질문 (초등담임)의 경우 생활지도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급식지도, 전담교과 학생인솔, 현장체험학습 등 이동하며 다녀야 하는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직접 인솔하고 다니셨나요?

> "직접 인솔 및 지원 인력이 사각지대 위치하거나 특정 학생 집중 지원"

김효진: 교사는 지정구역에서 전체 학생 지도, 지원인력이 움직임이 많은 위치에서 지원. 또는 특정학생 집중 지원을 합니다.

> "직접 인솔하나 동료 교원 또는 지원인과 동행"

김대선: 직접 인솔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언제 제한 상황이 발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교원 단독으로 이동이나 인솔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료 교원 또는 업무지원인과 함께 해야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의 체험을 교내체험학습으로 진행함. 동선을 최소화하여 계획함

유연철: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현장체험학습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체험을 교내체험학습으로 진행하며 외부 활동을 최소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음 한 켠에는 학생들에게 학교 밖에 나가서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생들을 데리고 장애인 직업훈련시설도 다녀오고 제과제빵 활동도 다녀봤는데 동선을 최소화하여 계획하였음에도 신체적으로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을 체험학습 같이 특별한 날에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풀처럼요. 그렇다면 외부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육활동을 계획하는데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박병찬: 급식지도랑 현장 체험 학습 경우에는 근로 지원인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과 함께 이동하며 지도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학생들의 인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에 지원을 요청해 제가 맡은 반에 전담 교과 선생님 한 분을 인솔자로 추가 배치받았습니다. 전담실 이동은 복도에 아이들 줄 세우는 것까지 하고 데려다주는 것은 근로 지원인에게 요청합니다.

> "교내에선 근로지원인, 외부 활동시 동료 교사의 추가 지원"

3) 업무수행

질문 대부분의 신규 및 저경력 지체장애인교원은 수업보다 업무수행하는데에 있어 주변의 시선을 많이 우려하거나 실제 업무수행에서 피해를 줄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업무를 잘 수행하여 학교구성원들에게 인정받으셨던 경험이 있을까요?

> "꼼꼼함과 디자인 역량을 살려 학교 신문 제작, 교과 행정, 수업 자료 제작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적합한 환경과 소통이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자신감을 얻음"

김효진: 우선은 제가 발령을 사실 이제 2019년도에 받아 가지고 업무를 여러 개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이제 거의 대체로 컴퓨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이동이 적은 업무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격적으로 꼼꼼한 면이나 그런 PPT를 만들거나 학교 신문을 만든다거나 디자인적인 것들을 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신문 만드는 업무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관리자 분들의 만족도도 높으셨어요. 확실히 제가 느낀 점은 제가 이동이 어렵다고 해서 업무를 아예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한테 좀 맞는 환경적인 그런 업무가 주어진다면은 분쟁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고 자신감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과하게 이제 갑자기 부장 업무를 주시려고 해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자 분들이 소통을 자주 잘해주시면, 강점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인정받 받을 수 있는 업무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제가 교과를 계속 오래하다 보니까 교과 관련된 이제 보통 동학년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교과니까 동학년이라고 부르긴 조금 애매하긴 했거든요. 이제 제가 워낙에 그 교과랑 비교과 선생님들과 같이 활동을 몇 년 했다보니까 거기 관련된 이제 회계나 행정같은 처리들 제가 다 꿰고 있어서 그냥 거의 학년부장 같은 일들은 제가 주로 맡아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마지막에는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코로나 때 아무래도 수업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영상을 직접 제작해 가지구 아이들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몇몇 반만 하다가 옆반 선생님들께서 우리반도 그 자료를 쓰고 싶다고 하셔서 나중에는 제가 본의 아니게 전 학년이 아니라 그 학년 전체에 한 과목을 제가 다 영상을 제공해 드리기도 했었고 네 그런 점들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었어요. 같이 일한 동료로서 공부 많이 하셨고 네 고마워하시고 저도 나름 뿌듯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그런 이제 학교 홍보 관련된 거에 조금 욕심이 있으셨던 분이셔서 기존에 해왔던 것 보다 조금 더 뭔가 있어 보이는 걸 원하셔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제작을 해서 학교 교외로 이렇게 발송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선: 저는 뭐 딱히 없고 이제 저도 인제 만약에 신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장애를 어떤 뭐 부끄러움

> "진학 관련 생활기록부 작성과 우수 학생 선발 전략을 연구하여 자료 공유, 학습 공동체 진행"

이라든지. 또는 그것에 어떤 나의 한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달 수 있게끔 전문가로써 노력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학교에서 최고가 된다는 얘기는 뭐 관리자나 담임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분한테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해낼 수만 있다면 장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보다는 그 전문성이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얼마든지 뭐 학교생활은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자신만의 장점으로 학교 업무에 전문가로서 무엇이라도 아무거나 차라리 학교생활기록부를 나는 완전 끝내주게 잘 써준다. 나는 학생들하고의 상담에서는 1등이다. 아니면 동료 교사들하고 나는 인간관계가 최고다 이런 것도 다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갖고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 학교에선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만의 장점 그거 하나만 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진학 상담교사다 보니까 진학 관련 파트라서 대학진학과 관련된 일이 만약에 제가 빠지면 업무가 멈출 거예요. 진학률이 확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장 교감 선생님 또는 3학년 담임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저는 주로 상위권 대학들 인서울의 중상위권 대학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홍보 필요하잖아요.

뭐 사립급 대학을 몇 명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고등학교를 평가를 받고 받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업무 지도 생활기록부를 선생님들한테 뭐 챗 GPT를 써 가지고 서라도 얼마만큼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도 연구해 가지고 교환학습공동체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자료를 뿌려주고 그런 활동들을 다 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전직 국어 교사여서 교장 선생님 인사말도 쓰고 옛날에 다치기 전에는 제가 교지 담당이었었어요. 뭐 제가 거의 다 한권을 만드는 건데 뭐 그런 업무를 했다던지 해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하나만 갖고 있으면 저희는 제가 봤을 때 뭐 장애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적용 사례

신규 및 저경력 지체 장애인 교원의 걱정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학교에 근무할 때 지체 장애인 교원에게 필요한 적절한 이동 지원 편의만 제공 된다면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교사들이나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함께 어울리고, 생활하다 보면 장애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학교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진정 업무를 잘 수행하는 선생님으로 인정받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유연철: 저는 딱히 인정이라기보다는 초등학교 안에서 특수 교사라는 존재 자체가 유일한 존재잖아요. 거의 그래서 학생들이 뭐 부적응 행동을 할 때 통합학급에 가서 중재를 한다거나 제가 공개수업을 한다거나 자기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선생님들께서 칭찬해 주실 때 장애인 선생님의 장애만 보고 처음에는 어떻게 담임을 하나 관리자께서도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수행을 할까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1년을 지내보니 또 선생님이 수업을 보고 나니 그런 걱정이 많이 덜어졌다라는 말씀해 주실 때 저의 제 스스로의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또 장애 이해 교육하면서 한 해 한 해 학생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장애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가고 또 뭐 1학년 학생이 저를 보면서 "선생님은 어른인데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라는 놀림 섞인 발언을 했을 때 갑자기 다른 선배 학년 학생이 와서 이제 다독이면서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다를 수 있는거야." 라고 하면서 데려가면서 되게 다독여주더라구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스스로 뿌듯하기도 했고 또 통합학급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들 해주실 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학생들이 이렇게 뭐 학습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라고 올해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그냥 봄과 관련된 수업하면서 뭐 봄꽃 도감을 만드는 수업을 했었는데 "아이들 이런 것도 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사실 간단한 그냥 책 만들기 수업의 일환이었는데, 그런 과정에 "학생들이 발표도 하고 뭐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가위질도 하고 하는 걸 보시면서 감명받았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그때 참 좋았습니다.

적용 사례

전교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특수교사에게는 연례행사인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적이 꽤 있습니다.

"계기교육 자료 공유, 교사 동아리 운영"

박병찬: 그냥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장애 비장애인 교사와 상관없이 당연히 나한테 맞춰준 업무는 해야 돼서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를 한다고 해서 동료 교사가 잘했다고 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비장애 교사여도 똑같이 반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장애 비장애 교사할 거 없이 그냥 전혀 업무는 신규 선생님들이 걱정하기가 하기 필요가 없는 게 신규 학교가 아닌 한 5년만 이상 된 학교 가면은 문서등록 대장에 이 업무 어떻게 처리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서등록대장 검색하면 하기 힘든 업무들 몇 개 빼고는 다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기한부터 모든 계획서가 문서 등록 대장의 역사가 다 기록이 돼 있어서 문서 등록 대장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생각해보자면 제가 약간 계기 교육을 좀 많이 맡았는데 제가 수업자료 수업 재구성하는 거 좀 재미있고 좋아해요. 그래서 계기 교육 같은 것 일반 PPT 말고 실제로 활용하기 좀 괜찮은 PPT 이런 거 만들어서 이제 뿌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외 환경미화, 친목, 계기교육, 상담, 안전교육, 상담실도 갑자기 돈이 와가지고 구성한 적도 있습니다.

전학공이라고 해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교사들끼리 이런 것들을 뭐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활동들이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사 동아리나 뭐 이런 활동들을 좀 뭐 지원금도 1인당 2만 원씩 나가고 심지어 잠깐이지만 이 전학공 출석이 성과급에 반영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동아리인데 대부분 동아리가 배드민턴 DIY 만들기 그리기 여성생님들은 필라테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동아리들만 개설이 돼 있어서 그냥 저랑 친한 선생님이 배드민턴에 있어서 배드민턴의 이름만 올려놨는데 갑자기 참석률을 막 성과급에 반영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 그러면은 제가 참석할 수 있는 동아리를 그냥 내가 개설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다른 학교 동아리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힐링동아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힐링 동안에 이제 그냥 만나서 서로 이제 수다 떠는 동아리인데 그래서 그냥 수다 때면 좀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선생님들한테 교직 일기 쓰시라고 다이어리 하나씩 동아리 분들한테 드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쓰시고 같이 공유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해결책도 찾고 위로하는 동아리를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말고도 활동하는 거를 안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 동아리 계속 개설해 달라 요청이 꽤 있었고요.

적용 사례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를 한다고 동료 교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업무를 잘했다고 인정받은 경험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개기 교육 주관에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편하도록 학습 자료를 다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서 공유해 드렸더니 고마워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이외에 환경미화, 친목, 계기 교육, 상담, 안전교육, 전학공, 정보통신윤리교육 등을 하였는데 그렇게 큰 칭찬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학교 업무는 문제만 생기지 않게 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간혁신사업, 나이스, 교무 업무"

양00: 맞는 업무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타시도 전출을 한번 했었는데 타시도를 쓰고 나니 저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전화로 소개를 드리고 나니까 제가 장애인인게 너무 드러나서 전입 첫 해에는 업무를 쉬운 걸 주셨는데 다음 해부터는 업무 난이도 있는 업무들을 해서 지금은 교무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업무를 4년째 하고 있어서 다른 학교에서도 나이스나 교무 문의가 가끔 들어오기도 해요.

적용 사례

저는 공간혁신 사업으로 도서관 공사 예정인 해에 담당 부서 기획이 되어 일하면서 선생님들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무 기획이 되어 지금도 이전 학교나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 나이스, 교무 업무 문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수사례

:: 이홍석 ::

NEIS업무와 생활기록부 업무와 관련하여 기피되는 편이 많았고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아 교감선생님과 부장선생님들께 여쭤보아도 모르셨습니다. 결국 제가 택한 방법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과 교육부 사이트에 나와있던 자료를 모두 다운로드 받아 6월 1일 발령 전까지 암기하였습니다.

자료를 직접 찾아서 궁금한 점들에 관해서는 NEIS지원센터에 연락하여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면서 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신설학교에서 NEIS 시스템 설정을 잘 맡은 결과 인정받아 현재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생활기록부 지원단과 교육부 NEIS 초등 자문단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의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얼른 찾아내어 자신의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피업무를 초반부터 맡게 된 덕분에 꾸준히 지속할 수 있었고 다른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질문 교직원회의, 연수 등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점을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관리자에게 말하여 회의 내용 전달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거나"

김대선: 교직원 회의가 열리는 곳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엔 남자 교사들에게 4인에게 부탁하여 이동하였으나 회의 시작, 회의 끝날 때 매번 이동을 부탁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나 눈이 와서 미끄러울 때는 그 분들에게 매우 죄송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자에게 이러한 고충을 말하여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에게 전달 받는 형식으로 바꾸었고,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에서 회의장소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요즘에 학교에 경사로 개설 공사 완료 및 업무지원인 배치로 동료들의 눈치 보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유연철: 학교 안에서의 회의, 연수에는 대부분 배려를 해준 덕에 제약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하는 연수는 강의실까지 가는길에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만 있거나, 휠체어가 들어가기 좁은 구조로 책상이 배치되어있는 등의 이유로 연수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관리자분들과 사전에 면담 실시"

박병찬: 교직원 회의 온라인 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 자격 연수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지원이 전혀 없었어서 그때 교수님한테 보내드린 사진 자료처럼 말도 안 되는 자세로 1달을 지낸 적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연수 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원도 되고 학교 그 지원 인력도 데려갈 수 있고 그래서 뭐 문제는 없었고요. 우선 저는 이제 이번에도 저희 작년에 제가 학교 옮겼을 때 교감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선생님은 장애로 대우받는 거 배려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에 학교 교감이 얘길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장애로 이렇게 특별한 대우받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알아서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특별한 막 배려는 받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관리자 분들한테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한 11월 12월 이제 학년 희망서 조사서 작성할 때 관리자분들한테 사전에 면담 좀 해달라 요청은 해 놓습니다. 저랑 안 맞는 선생님하고 동학년도 피해줬으면 좋겠다고도 좀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적용 사례

교직원 회의와 온라인 연수에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집합 연수 자격 연수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연수에 대한 편의 지원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교육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면 연수나 집합 연수 때 배제되거나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편의 지원을 요구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강하게 편의지원을 요구해서 지원 인력의 지원을 받으며 합 및 대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 회의 장소 1층으로 변경"

양00: 집합 연수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가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더라구요. 그래서 담당 장학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첫날은 4층을 올라가고 두 번째 날부터 바로 1층에 배정을 다시 해주셨더라구요.

미리 말을 했거나 아니면 비고란에 연수 지원이란 이런 말이 없었는데 비고란에만 적어놨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집합연수 들어갈 때 비고란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적절하게 배치해주시더라구요.

적용 사례

연수에 갔는데 연수 장소가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었습니다. 장학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장학사님과 동료 교사의 도움으로 올라가고 다음 날부터 1층으로 배정받았습니다.

질문 업무분장 시 업무조율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와 장애인교원 각각 고민이 많습니다. 쉬운 업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장애로 인한 제약은 없지만 어려운 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셨나요?(예. 지체장애교원의 외부현장지도, 청각장애 교원의 외부와의 전화업무, 방학 중 당직과정에서의 전화 업무)

"관리자와 대화로 해결"

김효진: 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관리자의 무관심과 강요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부장업무 등)

김대선: 지체 장애 교원의 가장 큰 문제가 이동의 제한입니다. 그에 따라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급식지도나 정문지도, 야외 생활지도 등 계단 이동이나 경사가 심한 곳에서의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모든 교사들이 꺼려하는 일이기도 해서 저만 장애를 이유로 빠지는 것도 매우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외부 현장 지도 활동 등을 하지 못함으로써 성과급에서 항상 B를 받는데 대해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대처 방식이 저 조차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힘든 업무를 하는 동료교사들이 더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는 것을 받아들이니 저

"학교에서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 동료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 관리자와 의논"

의 마음도 편안하고, 학교 내에서 저에 대한 평판도 나쁘게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연철: 첫 발령받았던 학교에서 저의 능력이나, 장애정도에 대한 소통 없이 업무를 하나도 주지 않았었습니다. 함께 발령받은 동기는 선배 교사들에게 업무를 배우며 성장해 나가는데, 저는 첫해에 오직 수업만 하며 보냈습니다. 학교내에서 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 동료들과의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하니까요. 물론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곤란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상쇄하기 위한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장애인 교원 혼자 고립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자와 의논하는 과정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박병찬: 지금은 안전하고 계기교육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독도, 평화통,일 한글 같은 계기교육과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자료가 공문으로 학교에 미리 오기 때문에 솔직히 나이스, 학교폭력 빼고는 학교에서 그렇게 못할 만한 업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스도 안 해봐서 약간 미지의 영역이어서 조금 이제 약간 좀 두려움이 있는 거지 해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할 만하다고 합니다.

적용 사례

우선 저는 장애라는 것을 이유로 특별한 대우 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서 하기 어려운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나 부장 선생님들에게 업무를 배정할 때 사전에 저와 면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면담을 통해 제가 할 수 있는 업무와 하기 힘든 업무를 명확히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업무에 한해서는 비장애인 교훈과 똑같은 원칙으로 배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도 솔직히 말하면 업무 배정에 많은 배려를 받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 및 부장 선생님의 도움"

양00: 동료 교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기 전 교과서, 도서 업무를 배정받은 적이 있었는데 동료 교사들과 부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업무를 잘 넘긴 것 같아요.

적용 사례

동료 교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기 전 교과서, 도서 업무를 배정받은 적이 있었는데 동료 교사들과 부장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 업무를 잘 넘긴 것 같아요.

질문 지원인력과 함께 근무하시는 경우(보조공학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어떻게 도움받으셨나요?

"장소 이동, 물건 이동 및 가구 배치"

김대선: 지체장애인 교원에게 업무지원인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부장교사로서 회의 참석이 많은 데 이 때 업무지원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합니다. 동료교사나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매번 그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출장이나 강의, 동아리 등 외부 활동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힘을 써야 하는 물건 이동이나 가구 배치 등 제가 전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적용 사례

지체장애인 교원에게 업무지원인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부장교사로서 회의 참석이 많은 데 이 때 업무지원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합니다. 동료교사나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매번 그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출장이나 강의, 동아리 등 외부 활동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힘을 써야 하는 물건 이동이나 가구 배치 등 제가 전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 일정 동행, 대리 수행, 회의 준비"

김효진: 외부 일정 동행 또는 대리 수행해주시고, 회의 준비 지원 해주셨습니다.

적용 사례

- 외부 일정 동행 또는 대리 수행
- 회의 준비 지원

"글자 타이핑, 물품 배부"

박병찬: 문서 작성하는 업무는 음성 텍스트 변환 프로그램이나 제가 구술로 말하는 것을 지원인력이 타이핑 해주는 정도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업무할 때는 물품 정리하고 물품 배달하는 것 같은 신체 움직임이 필요한 일이 많아서 지원인력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움직임이 필요한 업무는 사전에 관리자에게 배정을 지양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교실 정리, 환경 구성, 수업자료 제작, 모델링, 개별 학생 지원"

양00: 담임을 하게 되면서 근로지원인의 손을 많이 빌리고 있습니다. 교실 정리, 환경 구성 이런 부분은 소근육의 제한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 근로지원인이 이러한 부분을 잘 지원해주고 있어요. 수업 자료도 훨씬 풍부하게 제작할 수 있고, 수업 시에도 모델링이나 개별 학생 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신규장애인 교원에게 수업운영, 학급운영, 업무수행에 있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TIP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지원 인력, 교육청과의 대화 많이 나누기"

김효진: 저는 지원인력 선생님하고 계속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지원 인력 선생님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게 정말 좋은 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도 실제로 저랑 같이 일하셨던 업무지원사 중 한 분은 가족 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으셨어서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말씀을 제가 따로 안 드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불편한지를 아시는데, 다른 분들의 경우 장애에 대해 잘 모르신 경우가 많아서 오해의 소지가 제법 있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a라고 말했는데 그 분은 a'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분의 말씀으로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시기도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어찌되었든 같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길 때도 있긴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 꼭 사전에 그분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

한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좀 꼼꼼히 살펴서 그거를 관리자분들한테도 얘기를 할뿐더러, 교육청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발령 전에 교육청에 인사관련 장학사님께 찾아가서 면담 요청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발령받는 것도 그런 고려를 해야 될 상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뭐 화장실도 좀 넓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가 전화로만 했을 때는 아 근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다가 직접 가서 딱 하고 보여드리니까 "아 정말 필요한 거구나." 라고 인식을 생각하셔가지고, 이게 교육청도 어떻게 보면은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정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관리자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시면 좋겠지만, 교육청과도 얘기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도움은 저 스스로만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꼭 그 적합한 도움이 뭔지를 본인이 먼저 좀 잘 파악을 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신규 때 그게 되게 어려워서 찾고 말 못하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게 되게 많이 쌓이더라구요.

적용 사례

우선 자기한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지원이 늦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 나름의 방법을 찾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참지 말고 꼭 말하세요. 주변에서 먼저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적합한 도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당당히 요청"
"동료 장애인 교원들에게 조언 구하기"

김대선: 장애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근무를 잘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당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편의지원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에는 장애인교원노조를 통해 같은 장애를 가진 교원들의 멘토를 받아 이미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받는 것도 초기에 학교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유연철: 내가 가진 장애를 이유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시, 동료교사, 관리자와 먼저 소통하려는 태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하려 하다보면 어떤 방향으로든 해결책이 제시되기 마련입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내가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안된다고, 못한다고 고개 숙인 채 앉아있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나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해결하는 것은 오직 나만을 위한게 아닙니다. 내가 편해야 질 높은 교육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은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박병찬: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가끔 친구 같은 선생이 되겠다. 하고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구 같은 선생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이제 관계를 잘해서 좋은 관계 형성하면은 좋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대부분 결과가 안좋은 결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사와 학생 간의 이런 관계를 정말 명확히 해서 교사의 권위를 좀 세워놔야 되고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실 붕괴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애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진 모르겠지만, 되게 잘해주다가 한번 호되게 야단치면 나쁜 선생님인데 평상시 엄하게 하다가 1번 조금 관대하거나 잘해주면 좋은 선생님이더라구요. 저도 겪은 일이지만 초등학생들이 악의를 갖고 있진 않지만 생각보다 현재 발생된 현실을 기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생각보다 잘합니다.

이 사람을 골탕 그러니까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 현실을 피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무언가 사진이나 자료를 좀 확보해 두셔야 나중에 학부모가 왔을 때 조용히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게 한 3~4번 있었거든요. 막 갑자기 막 우리 아들이 왕따다 해서 전화해서 막 해서 했는데 다행히 그때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학부모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니까 이제 바로 무마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충이나 어려운 이들 관리자나 동료 교사들한테 요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교사들은 학창 시절에 모범생이었던 분들이 많고 착하신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제 도와주시려고 하고 그냥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환대해 주시고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신규 교사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거를 그니까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력자들은 도와주고 싶은데 먼저 말하면 왠지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젊은 꼰대 될까 봐 못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웃음). 근데 반대로 오면 정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엄청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다들 도와주실 겁니다.

적용 사례

제가 신규 때 했다 실수 중 하나를 공유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친구 같은 선생은 없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와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생과의 관계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다면 교실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권위를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 주변에 사례들을 보면 편한 선생님이 한번 엄하게 훈육하면 나쁜 선생님이 되지만 엄한 선생님이 한번 관대하게 넘어가면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무언가 느낌이 이상할 때는 근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충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워하지 말고 관리자나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동료 교사의 교실 문의나 교무실 교장 질문을 주저하지 말고 두드리세요.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교직 생활 및 수업의 질이 향상"

양00: 6~7년 동안 지원 인력을 포함하여 지원이 거의 없이 근무를 했었어요. 옆에 동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셨는데 적절한 지원을 받으니까 훨씬 더 할수 있는 일도 늘어나고 수업의 질도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적용 사례

저는 6-7년 동안 지원 없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적절한 지원을 받으니 수업의 질도 향상되고 업무에 있어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우수사례

:: 이홍석 ::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현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물어보고 찾아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다면 좋은 동료교사를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교직사회 내에서 알려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직접 물어보고 찾아보는 것만이 현재 교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교원
우수 사례집

III

교사 수기

Ⅲ 교사 수기

기회는 주셔야죠

부산맹학교 특수교사 양수지

저는 불수의운동형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입니다. 독립보행이 가능하지만 근골격계의 통증이 있어 장시간 서 있거나 걷는 것은 힘듭니다. 또한 소근육의 근육 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필기나 가위질 등 소근육의 세밀한 협응이 필요한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조음장애를 수반하고 있으며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기도 합니다. 특수교사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의 부정확한 발음과 모델링으로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되는건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부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까지. 교생을 다녀오고 난 후 고민은 더 심해졌고. 교사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진로를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저경력 시절 어느 부장님의 담임 권유로 담임에 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희망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 민원에 대한 관리자분의 걱정으로 업무도 담임도 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희망한 적없는데 몇 년을 같은 업무를 하고, 몇 년을 같은 교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좋은 부장 선생님을 만났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야지.” 였던가 그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관리자분께 제가 담임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담임이 되었고 무사히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물론 동료 선생님과 그 부장 선생님의 지원이 있었기에 그리고 학생들이 잘 따라주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학부모님이 보낸 문자에 “내년에도 담임 또 해주세요.”였는데 그 문자가 참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또 좋은 선배 선생님을 만나 그 선생님의 추천으로 비중 있는 업무에 배정되어 일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올해도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무려 선생님 같은 교사가 꿈이라며...

분명 장애로 인해 못하는 것이 존재한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못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보다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또는 어떤 지원이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기회는 주셔야죠.^^

근로지원을 통해 더욱 독립된 교사로써 역량을 높이는 시각장애 진로전담교사

강원명진학교 교사 한길옥

저는 3살 때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12살 때 시각장애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두꺼운 안경을 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잔존시력으로 컴퓨터 돋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화면에 있는 내용을 확대해서 보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이 문서나 묵자책을 볼 때는 확대독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씨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8포인트 이상 진한 글씨로 볼 때 편안하게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020년 진로전담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 시각장애학교에서 진로전담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진로수업, 진로상담, 진로체험의날, 직업능력평가, 각종 공문서 처리 등 진로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업무는 진로체험의날과 같은 행사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 행사 당일, 행사 후 정리 등 시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진로체험의날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1회, 2학기 1회 통틀어 1년에 2회 열리는 행사입니다. 1학기에는 초등부 학생들은 놀이 중심으로 긍정적인 직업 가치관을 형성하고 직업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고, 중,고등학생들은 모의면접이나 발표 등을 실시하여 대학입시나 취업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의날은 창의적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에 속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문서를 기안하거나 읽을 때는 컴퓨터 돋보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학생들의 소감문 같은 경우는 손글씨가 많아 확대독서기를 사용하여 보았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지원인을 사용하기 전에는 동료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나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 세세하게 어려움은 많지만 제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구입할 때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해서 일을 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모의면접을 하거나 발표할 때, 강연을 들을 때 등 그 학생의 표정이나 세밀한 행동이 보이지 않아 학생의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년 동안 이 일을 거의 저 혼자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눈이 더 나빠지고 주위의 권유로 근로지원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부담이 컸지만 근로지원인 제도를 사용하고부터는 마음이 편안하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지원 없이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행사를 마치고도 아쉬운 점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원 인력이 있으니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만족도가 높은 행사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업무 앞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를 사용해도 한계에 부딪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직장인으로서 늘 도움을 청해야 하고 부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면 위축된 직장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동료 교원들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근로지원인 제도는 장애인 교원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다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장애교원이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것 자체로 장애학생들에게 큰 모델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질 높은 교사의 업무 역량이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한 사회인으로 굳건히 서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영어과 대표 교사 전진효선생님이 바라본 시각장애교사 김선생님의 감동적인 수업이야기: 모든 학생이 빛나는 교실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교사 전진효

김 선생님은 시각 장애를 가진 교사이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특히,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은 김 선생님에게 큰 숙제였다. 하지만 김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학생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김 선생님은 먼저 수업 자료를 점자와 녹음 파일로 제작하고,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시각 자료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김 선생님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수학 시간에는 점자 문제집과 3D 프린터로 제작한 입체 도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수학 개념을 더욱 쉽게 이해하도록 돕고, 과학 시간에는 녹음된 설명과 함께 실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학생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 선생님의 수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김 선생님은 매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개별 상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었다. 또한, 협동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돕고 배우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끊임없는 노력은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학생들은 김 선생님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성장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 학생이 "김 선생님 덕분에 장애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르지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김 선생님의 수업이 단순히 학습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도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김 선생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장애를 가진 교사도 충분히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학생 중심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셋째,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 선생님의 수업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우리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

진다. 우리는 과연 모든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더 노력해야 하는가?

김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함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We are not there yet but we are getting closer than we were yesterday.

총괄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 장	이혜진
기획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육연구관	강경탁
		교육연구사	최진영
연구	중부대학교	교 수	김기룡
	가톨릭대학교	교 수	김라경
	단국대학교	교 수	김원호
	대구대학교	교 수	박경옥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허유진, 김한나
	인천디자인고등학교	교 사	최 별
	금촌중학교	교 사	이사훈
	판교대장초등학교	교 사	이홍석
	안산신길초등학교	교 사	박병찬
	서울신상중학교	교 사	편도환
	중부대학교	대학원생(박사)	정유진
	단국대학교	대학원생(박사)	박지석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손예은
검토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사	임정태, 이윤우
	부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황여진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남인숙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무관	정관녕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조성민, 김혜선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조근애
		주무관	최하나, 모연경
	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오현민, 이정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류은옥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하강수, 한진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배봉길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남지현, 임종일
	충청남도교육청	장학사	차정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무관	양신규
	전라남도교육청	주무관	장 미
		장학사	김진욱
	경상북도교육청	주무관	장신일, 임미란
	경상남도교육청	장학사	안정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강 희

장애인교원 우수사례집

2024년 12월 31일 최종인쇄
2024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처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17개 시 · 도교육청

디자인 베스트기획

장애인교원
우수 사례집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